

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9권 (제97회 ~ 제108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https://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冲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97회 — 진과가 간언하여 안무로 승진하고, 경영이 처녀의 몸으로 선봉에 서다	6
제98회 — 장청연이 경영과 혼인하고, 오용이 독주로 오리를 해치다.26	
제99회 — 화화상 노지심이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혼강룡 양지연이 태원성을 물로 뒤덮다	55
제100회 — 장청경과 영쌍이 공을 세우고, 진관과 송강이 함께 승전보를 올리다	74
제100회 — 무덤터를 도모함이 음험하여 역적이 나고, 춘양을 밟음이 요염하여 간사한 자가 태어나다.....	91
제100회 — 왕경인이 간통으로 관재에 휘말리고, 공단이 매를 맞아 군사 범죄를 저지르다	107
제100회 — 장 관영이 첩의 동생 때문에 목숨을 잃고, 범절급이 사촌 형의 얼굴을 고쳐주다	128
제100회 — 단가장이 정중히 새 사위를 맞이하고, 방산채가 옛 강적과 맞붙다	147
제100회 — 송공명이 피서를 하며 군병을 치료하고, 교도청이 바람을 돌려 도적 떼를 불태우다	164
제100회 — 서생이 웃으며 강적을 상대하고, 수군이 물길을 일으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다	179

제100회 — 송강이 기산군을 크게 물리치고, 주무가 육화진을 깨뜨리 다.....	196
제100회 — 교도청이 안개를 일으켜 성을 취하고, 소선풀이 대포를 숨 겨 적을 격퇴하다	211

제97회 — 진과가 간언하여 안무로 승진 하고, 경영이 처녀의 몸으로 선봉에 서다

陳瓘諫官陸安撫 瓊英處女做先鋒

이야기는 이러하다. 한편 오용이 송강에게 말했다.

"성안의 군마가 적고 약한 데다, 지난번에는 조도청의 요술을 믿고 버텼으나 이제 조도청이 패하여 곤경에 처하고 외부의 지원도 끊겼으니, 저들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구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살펴보니, 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얼굴에 모두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금 저들의 두려움을 틈타, 스스로 허물을 고쳐 새로워질 길을 열어주고 이해득실의 기미를 분명히 알려준다면, 성안에서 반드시 장수들을 결박하여 끌고 나와 항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칼날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이 성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군사의 계책이 참으로 훌륭하오!"

두 사람은 즉시 의논하여, 백성을 깨우치는 격문 수십 통을 써냈다. 그 격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송의 복벌을 이끄는 정북선봉 송강이 조덕주를 지키는 장수와 병사, 그리고 군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고한다.

"전호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 죄는 반드시 다스려야 마땅하나, 그에게 협박당해 따르는 자들은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다. 성을 지키는 장수와 병사들이 만약 사악한 길을 버리고 바른길로 돌아와 지난 허물을 고치고 새롭게 살고자 한다면, 군민을 이끌고 성문을 열어 항복하라. 그러면 반드시 조정에 보고하여 죄를 사하고 너희를 등용하도록 하겠다.

만약 장수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너희 군민들은 모두 송나라의 자식들이니 마땅히 대의를 일으켜 장수들을 결박하고 천조에 귀순해야 한다. 앞장서서 행동한 자에게는 반드시 큰 상을 내리고 관직을 높여줄 것을 청하겠다.

만약 미련하게 머뭇거리며 망설이다가 성이 함락되는 날에는 성안의 모든 것이 함께 불타 없어질 것이니, 살아남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별히 이를 일러 알리는 바이다."

송강은 군사들에게 명하여 격문을 화살에 매달아 성안 사방으로 쏘아 보내게 했다. 그리고 각 성문의 공격을 잠시 늦추고 성안의 움직임을 살피라고 명령했다.

다음 날 새벽, 성안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네 성문에 모두 항복 기가 올라갔다. 성을 지키던 편장 금정과 황월이 군민들을 모아 부장 엽성, 우경, 냉녕을 죽인 뒤, 그 세 사람의 머리를 몽둥이 끝에 꿰어 장대에 매달아 송나라 군대 앞에 내보였다.

이어 감옥에 갇혀 있던 이규, 노지심, 무송, 유당, 포옥, 항충, 이곤, 당빈을 모두 가마에 태워 메고 성문을 활짝 열어 성 밖으로 모셔 나왔다. 성안의 군민들은 향을 피우고 꽃과 등불, 촛불을 밝히며 송나라 군대를 맞이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각 문의 장수와 부하들에게 명하여 군마를 거느리고 차례차례 성안으로 입성하게 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성을 얻었으니, 백성들에게는 털끝만큼의 피해도 없었고 성안에는 환호성이 천지를 진동했다.

송강이 수부(帥府)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노지심 등 여덟 사람이 앞으로 나아와 절을 올리며 말했다.

"형님, 정말이지 다시는 못 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형님의 위력 덕분에 다시 이렇게 모였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송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이어 금정과 황월이 옹규, 채택, 양춘을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와 절을 올렸다. 송강은 서둘러 답례하며 그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장군들께서 대의를 일으켜 백성들을 보전하셨으니, 이는 실로 세상에 드문 큰 공로입니다."

황월 등이 말했다.

"저희가 속히 귀순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봉 대장님께서 이토록 두터운 예우를 해주시니, 참으로 뼈에 사무치는 은혜입니다. 죽음으로써 보답하기를 맹세합니다!"

황월 등은 또 노지심과 이규 등이 적을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았던 일을 상세히 아뢰었다. 송강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칭찬했다. 그러자 이규가 말했다.

"듣자하니 그 도적놈 조(도청)가 백곡령에 있다지요? 제가 가서 그 새끼를 도끼로 백 번 내리쳐서, 이 답답한 분통을 풀어버리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조도청은 일청(공손승) 형제에게 백곡령에서 포위되어 갇혀 있으니, 그를 항복시키려 하고 있다. 나진인에게서 이미 법지(法旨)를 내리셨으니,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노지심이 이규에게 말했다.

"형님의 명이신데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제야 이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물러났다.

그때 송강은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삼군 장수와 부하들에게 공로를 치하하며 공손승과 금정, 황월의 공적을 기록하게 했다. 한창 군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행태보' 대종이 진녕에서 돌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대종이 수부에 들어와 송강을 뵈자, 송강은 급히 진녕의 소식을 물었다.

대종이 말했다.

"형님의 명을 받들어 진녕에 갔더니, 노준의 선봉께서 성을 공격하고 계셨습니다. 노 선봉께서 '내가 성을 함락시킨 뒤에 형님께 가서 승전보를 전하겠다'라고 하시며 저를 그곳에 머물게 하셔서, 내리 사나흘을 머물렀습니다. 진녕은 공격해도 좀처럼 함락되지 않더니, 이번 달 초엿새 밤에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노 선봉께서 군사들에게 명하여 몰래 흙을 자루에 담아 성벽 아래에 쌓아 메우게 했습니다. 삼경(밤 11시~새벽 1시)쯤 되자 성동북쪽의 수비가 느슨해졌고, 우리 군사들이 몰래 흙자루 더미를 타고 올라가 성벽을 넘어 수비 장수 13명을 죽였습니다. 전표는 복문을 열고 돌파하며 목숨을 걸고 달아났으나, 나머지 장수들은 모두 항복했습니다. 전마 5천여 필을 노획하고 항복한 군사는 2만여 명에 달하며, 죽은 자도 많습니다. 노 선봉께서 진녕을 함락시킨 뒤 날이 밝아 안개가 걷히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승의 전호가 전수(殿帥) 손안을 보내 장수 10명과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노 선봉께서는 진명, 양지, 구봉, 등비를 보내 적을 맞이하게 하고, 본인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지원하러 나갔습니다. 진명과 손안이 싸우니 50~60합을 겨루어도 승부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 노 선봉의 군대가 도착했는데, 손안이 매우 용맹한 것을 보고 노 선봉께서 징을 울려 군사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손안 역시 스스로 군사를 거두어 각자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노 선봉이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손안이 매우 용맹하니 지혜로써 취해야지 힘으로 맞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군마를 나누어 매복시키고 노준의가 직접 출전하여 손안과 50여 합을 겨루었다. 싸우던 중 손안의 말이 갑자기 앞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손안이 말 아래로 떨어졌다. 노준의가 크게 외쳤다.

"이것은 네가 싸움에 진 것이 아니니, 어서 말을 갈아타고 다시 싸우자!"

손안이 말을 갈아타고 다시 노준의와 50여 합을 더 겨루었다. 노준의는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도망쳐 손안을 숲 근처까지 유인했다. 그때 신호탄 소리가 울리더니 양쪽에서 복병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손안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양측에서 던진 말 걸이 밧줄에 걸려 넘어졌고, 달려든 군사들에게 사람과 말 모두 생포되었다.

북쪽 진영에서 진영, 육청, 요약 세 장수가 일제히 달려 나와 손안을 구하려 했으나, 그쪽에서는 양지, 구봉, 등비가 나타나 그들을 막아섰다. 기병들이 짝을 지어 격렬하게 싸우던 중, 숲 깊은 곳에서 양지가 크게 호통을 치며 창을 한 번 내지르니 진영이 말에서 떨어졌다. 육청과 구봉이 맞붙어 싸우던 중, 구봉이 짐짓 빈틈을 보여 육청을 끌어내자 육청이 칼을 내리쳤고, 구봉이 몸을 휙 피하니 육청은 헛쳤다. 육청이 미처 칼을 거두지 못한 사이, 구봉이 그의 등 한복판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 요약은 두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본진을 향해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등비가 뒤쫓아와 쇠사슬을 머리 위로 내리쳤다. 그 일격에 요약은 투구까지 머리째 박살이 나며 죽고 말았다.

노준의가 군사를 몰아 몰아치자 북쪽 군대는 대패하여 사오천 명의 병사가 죽었고, 남은 군사들은 10리 밖으로 물러나 진을 쳤다. 우리 군

사들은 승전하여 성으로 들어갔고, 병사들이 손안을 퐁퐁 묶어 끌고 왔다. 노준의는 손안의 결박을 풀어준 뒤 두터운 예우로 대하며 송나라 조정에 귀순할 것을 권했다. 손안은 노준의의 기개가 이토록 당당한 것을 보고 기꺼이 항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손안이 노준의에게 말했다.

"성 밖에 아직 장수 일곱 명과 군사 1만 5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성 밖으로 보내주신다면 그들을 설득해 항복시키겠습니다."

노준의는 아무런 의심 없이 손안을 성 밖으로 보내주었다. 손안이 홀로 말을 타고 북쪽 진영으로 가서 일곱 장수를 설득하자, 그들이 모두 노준의를 뵈기 위해 찾아왔다. 노준의는 크게 기뻐하며 술을 베풀어 대접했다. 손안이 말했다.

"저는 조도청과 함께 위승을 떠나 군사를 이끌었는데, 조도청은 호관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자는 본래 요술을 부리는 자라 송강 선봉께서 혹여 그 요술에 해를 입으실까 걱정됩니다. 조도청은 저와 고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장군님의 두터운 은혜에 감복하였으니, 호관으로 가서 소식을 알아본 뒤 조도청을 귀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준의가 이를 허락하여, 저(대종)에게 손안과 함께 승전보를 전하러 오게 했습니다. 노준의는 선찬, 학사문, 여방, 광성을 시켜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진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머지 장수들과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분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저는 어제 진영에서 출발하면서 손안에게도 신행법을 걸어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길을 오다가 형님의 군사가 조덕을 에워싸고 조도청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성 밖에 이르러서는 형님의 대군이 이미 성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형님을 뵙고자 달려왔습니다. 손안은 지금 부문(府門)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대종에게 명하여 손안을 데려오게 했다. 대종은 명을 받들어 손안을 이끌고 부(府)로 들어가 송강을 뵈었다. 송강이 손안을 보니 기개가 넘치고 풍채가 당당하여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 여겨, 직접 계단 아래까지 내려가 맞이했다. 손안은 머리를 조아리며 절했다.

"저 손안이 대군에 맞서 저항하였으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송강은 손을 맞잡으며 다급히 대답했다.

"장군께서 사악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와, 저와 함께 전호를 멸하고 조정에 보고하여 공을 세운다면 마땅히 관직을 내릴 것입니다."

손안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몸을 일으켰다. 송강은 그를 자리에 앉히고 술을 베풀어 넉넉히 대접했다. 손안이 말했다.

"조도청의 요술이 매우 무서웠으나, 다행히 공손 선생께서 그 요술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공손승이 그를 굴복시켜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을 포위한 지 사나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항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손안이 말했다.

"그자는 저와 매우 막역한 사이니, 제가 반드시 설득하여 항복시켜드립니다."

이에 송강은 대종에게 명하여 손안과 함께 북문으로 나가 공손승의 진영으로 가게 했다. 인사를 마친 뒤, 대종과 손안은 자신들의 뜻을 공손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공손승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손안에게 명하여 고개로 들어가 조도청을 찾아내라고 했다. 손안은 명을 받들어 홀로 말을 타고 고개로 향했다.

한편, 조도청은 비진, 설찬, 그리고 열다섯여섯 명의 군사들과 함께 신농묘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신농묘의 도사들에게 빌려온 거친 곡식으로 겨우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 이 절에는 도사가 고작 세 명뿐이었는데, 조도청 일행이 몇 달 동안 모아온 밥을 모두 먹어 치우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도 그저 억울함을 참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도청이 성안에서 함성이 들려오는 것을 듣고는 묘 밖으로 나가 높은 절벽에 올라가 살폈다. 성 밖의 포위망은 이미 풀렸고, 성문 안으로 군마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조도청은 송나라 군사가 이미 성에 입성했음을 알게 되었다.

조도청이 탄식하고 있을 때, 문득 절벽 끝 숲속에서 나무꾼 하나가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허리에 도끼를 차고 지게 작대기를 지

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절벽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러면서 입으로
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산을 오름은 노를 저어 배를 끄는 듯하고,
산을 내려옴은 물결 따라 흐르는 듯하네.
노를 저을 때는 스스로 경계해야 하며,
물결을 탈 때는 늘 스스로를 맡겨야 하네.
내가 지금 산을 오르는 것은,
내려올 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라네.

조도청이 나무꾼의 노래 여섯 구절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깨
달은 듯하여 물었다. “그대는 성안의 소식을 아는가?” 그러자 나무꾼
노인이 대답했다. “금정과 황월이 부장 엽성을 죽이고 이미 성을 송나
라에 바쳤다네. 송강의 군대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조덕성을 얻었
지.” 조도청이 말했다. “과연 그랬군!” 나무꾼은 이 말을 남기고는 바
위 절벽을 돌아 산비탈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조도청은 다시 한 사람과 말 한 마리가 길을 찾아 고개를 넘어 사당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조도청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 살펴
보니, 뜻밖에도 전수(殿帥) 손안이었다.

“그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온 것인가?”

손안은 말에서 내려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었다. 조도청이 급히
물었다.

“전수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진녕으로 가시는 길에 어찌 홀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고개 아래에 군마가 그리 많은데 어찌 막지 않았단 말입니까?”

손안이 말했다.

“형님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조도청은 손안이 자신을 국사라 부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손안이 말했다.

“일단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자 비진과 설찬도 나와서 인사를 나누었다. 손안은 그제야 자신이 진녕에서 (송군에게) 사로잡혀 항복하게 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조도청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손안이 말을 이었다.

“형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송강 선봉 일행은 의리가 매우 깊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휘하로 들어가 조정에 귀순한다면, 나중에는 분명 좋은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오직 형님을 위해서입니다. 형님께서서는 예전에 라진인을 찾아뵈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도청이 급히 물었다.

“그걸 어찌 아는가?”

손안이 대답했다.

“라진인께서 형님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동자를 시켜 전갈을 보내시기를, 형님께서 나중에 ‘덕(德)을 만나면 마법이 굴복한다(遇德魔降)’고 하셨다는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조도청이 다급히 대답했다.

“있었네, 있었어.”

손안이 물었다.

“형님의 법술을 깨뜨린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조도청이 말했다.

“그는 나의 적수라네. 송나라 군사라는 것만 알 뿐, 그 내력은 알지 못하네.”

손안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라진인의 제자인 공손승이며, 송강 선봉의 부군사입니다. 이 법어 또한 그가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이 성의 이름이 조덕(昭德)이니, 형님의 법술이 깨진 것은 바로 ‘덕을 만나면 마법이 굴복한다(遇德魔降)’는 그 말과 딱 들어맞는 일이 아닙니까! 공손승은 오직 진인의 법지에 따라 형님을 깨우쳐 바른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마로 성을 에워싸고 압박하기만 했을 뿐, 산 위로 올라와 형님을 잡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법술로 형님을 이길 정

도라면, 마음만 먹으면 형님을 해치는 것쯤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형님께서는 부디 미혹되지 마십시오.”

조도청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그는 즉시 손안과 함께 비진, 설찬을 거느리고 고개를 내려가 공손승의 군영 앞으로 향했다.

손안이 먼저 군영에 들어가 보고하자, 공손승이 진영을 나와 그들을 맞이했다. 조도청은 진영으로 들어가 엎드려 절하며 죄를 청했다.

“법사님의 인자함 덕분에 저 조도청 한 사람을 위해 대군을 움직여 수고를 끼쳤으니, 저의 죄가 더욱 깊습니다!”

공손승은 크게 기뻐하며 연신 맞절을 하고는 그를 귀빈으로 대접했다. 조도청은 공손승의 기개가 이토록 당당한 것을 보고 말했다.

“제가 눈이 어두워 좋은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사님 곁을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평생의 행운입니다.”

공손승이 명령을 내려 포위를 풀자, 번서와 여러 장수들이 사방에서 진영을 거두고 일어났다. 공손승은 조도청, 비진, 설찬을 거느리고 성안으로 들어가 송강 선봉을 알현했다. 송강은 예를 갖추어 그들을 대접하며 부드러운 말로 달랬다. 조도청은 송강의 겸손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고 더욱 깊이 감복했다. 잠시 후 번서, 단정규, 위정국, 임충, 장청이 모두 도착했다. 송강은 명령을 내려 장수들의 군마를 모두 성안으로 들여 주둔시키게 했다.

곧이어 송강은 술을 차려 축하 잔치를 벌였다. 잔치 자리에서 공손승이 조도청에게 말했다.

“그대의 법술은, 상등으로 치자면 제불보살이 수많은 겁을 거쳐 수행하여 허공삼매(虛空三昧)를 증득하고 자유자재한神通력을 얻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중등으로 치자면 봉래산의 서른여섯 동천의 진선들이 수십 년간 수화(水火)를 겪고 골수를 바꾸며 근육을 옮겨 형체를 초월하여 세상을 유람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그대는 그저 부적과 주문에 의지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천지의 정기를 훔쳐 귀신의 힘을 빌려 부릴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금강선사(金剛禪)의 사악한 법’이라 하고, 선가에서는 ‘환술(幻術)’이라 부릅니다. 만약 이 법술로 범인을 벗어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찌 털끝만큼의 차이가 천 리만큼의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조도청은 이 말을 듣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그는 즉시 공손승을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다. 송강과 다른 이들도 공손승의 말이 이토록 명쾌하고 오묘한 것을 듣고는, 그의神通력과 높은 덕망을 칭송했다. 그날 술자리는 즐겁게 마무리되었고, 그날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다음 날, 송강은 소양에게 명하여 표문을 쓰게 하여 진녕과 조덕 두 부(府)를 얻었음을 조정에 보고하게 했다. 소양은 승전보를 담은 글을 써서 숙태위에게 올리며, 위주, 진녕, 조덕, 개주, 능천, 고평 등 6개 부와 주, 현의 빈 관직들을 살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속히 보충해 달라고 청했다. 아울러 장수들도 교체하여 정벌군을 다시 편성해 달라는 내

용도 함께 담았다. 소양이 글을 다 쓰자, 송강은 대종에게 명하여 그것을 받들게 하고 즉시 길을 떠나게 했다.

대종은 명령을 받들어 행낭과 보따리를 챙기고 표문과 서신을 받들었다. 그는 몸놀림이 가벼운 군졸을 한 명 골라 대동한 뒤, 송강 선봉과 작별하고 신행법을 펼쳐 다음 날 곧장 동경(東京)에 도착했다. 대종은 먼저 숙태위의 부(府)로 가서 서신을 전하려 했는데, 마침 숙태위가 부중에 있었다. 대종은 부 앞을 지나다 그곳의 양 우후(虞候, 부대의 부관)를 찾아내어 먼저 사례로 은자 몇 푼을 건네고는, 서신을 태위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양 우후는 서신을 받아 들고 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양 우후가 나와서 외쳤다.

“태위께서 부르시니, 두령께서는 들어오시오!”

대종이 우후를 따라 부 안으로 들어가니, 태위가 대청에 앉아 서신을 뜯어보고 있었다. 대종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 태위가 말했다.

“한창 긴박한 시기에 이토록 때맞춰 왔구나! 며칠 전, 채경과 동관, 고구가 천자 앞에서 네 형님인 송강 선봉이 군대를 패배시키고 장수들을 죽여 나라의 망신을 시켰다며 대대적으로 비방하고 황제께 죄를 묻도록 탄핵하던 참이었다. 천자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실 때, 우정언 진관이 상소를 올려 채경, 동관, 고구가 충직한 이들을 모함하고 선량한 이들을 배척하고 있다고 탄핵했다. 또한 너희의 병마가 이미 호관의 험한 요충지를 통과했으니, 채경 등이 망령되게 행동한 죄를 다스

려 달라고 청했다. 이로 인해 채 태사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지. 그런데 어제 천자에게 보고하기를, ‘진관이 《존요록》을 저술하며 신종 황제를 요임금에 비유하였으니, 이는 폐하를 비방하려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니 진관의 비방죄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니, 다행히 천자께서 즉시 죄를 묻지는 않으셨다. 그런데 오늘 네 승전보를 들으니, 진관의 체면이 서는 것은 물론이고 나 또한 근심을 크게 덜었구나. 내일 조참 때 네 승전 표문을 천자에게 올리겠다.”

대종이 다시 절하며 감사를 표하고는, 부 밖으로 나와 머물 곳을 찾아 하룻밤 묵으며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한편, 숙태위가 다음 날 이른 아침 조참에 참석하니, 황제께서 문덕전에서 문무백관을 접견하고 있었다. 숙태위는 세 번 절하고 춤을 추며 예를 올린 뒤, 송강의 승전 표문을 올리며 보고했다. 송강 등이 전호를 토벌하여 전후로 총 여섯 개의 부와 주, 현을 탈환하였으며, 이제 사람을 보내 승전 표문을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천자의 안색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숙태위가 다시 아뢰었다.

“우정언 진관이 《존요록》을 저술하며 선황인 신종을 요임금에 비유하고 폐하를 순임금에 비유하였는데, 요임금을 높이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진관은 평소 강직하여 굽히지 않고 무슨 일이든 감히 말하는 담력이 있는 자입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진관의 관직을

높여주시고, 그에게 하북으로 가서 병마를 감독하게 하신다면 반드시 큰 공을 세울 것입니다.”

천자가 이를 허락하고 즉시 교지를 내렸다.

“진관의 관직을 기존보다 높여 추밀원 동지(同知)로 삼고, 그에게 안무(安撫)의 직책을 주어 어영의 군마 2만 명을 거느리고 송강의 군영으로 가서 전투를 독려하게 하라. 또한 상금으로 은자를 지참하여 장수와 군졸들을 위로하게 하라.”

조참이 끝나고 숙태위가 사저로 돌아와 대종을 불러 답신을 보내게 했다. 대종은 성지가 내려진 것을 알고 숙태위에게 작별을 고한 뒤 동경(東京)을 떠났다. 그는 신행법을 펼쳐 다음 날 곧장 조덕 성안에 도착했다. 동경을 왕복하는 데 꼭 나흘이 걸렸다.

송강은 한창 병마를 정비하며 진격할 방도를 상의하던 중이었다. 대종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황제의 소식을 물었다. 대종이 숙태위의 답신을 바치자, 송강은 그것을 뜯어 읽어본 뒤 서신에 담긴 자세한 내용을 여러 두령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두령들이 모두 말했다.

“진 안무(진관)처럼 간담이 큰 이가 있으니, 우리가 여기서 힘을 쓴 보람이 있구려!”

송강은 성지를 받는 대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수들은 명을 받들어 성안에 주둔하며 때를 기다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한편, 조덕 성 북쪽에 있는 노성현은 본부의 속현이었다. 노성의 주장 지방이 조도청이 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을 탐지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 위승에 있는 전호에게 급보를 전했다. 전호의 수하인 위성원관이 노성의 지방이 보낸 급보를 받고 전호에게 보고하려는데, 갑자기 진녕이 이미 함락되었으며 전호의 동생인 삼왕 전표가 겨우 목숨만 건져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침 전표가 도착했다. 전표는 성원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전호를 알현했다. 전표는 목놓아 울며 말했다.

“송나라 군사의 기세가 너무 강하여 진녕의 성을 깨뜨리고 아들 전실까지 죽였습니다. 신은 겨우 목숨만 건져 이곳까지 도망쳐 왔나이다. 땅을 잃고 군사를 잃었으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말을 마친 전표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자, 옆에 있던 성원관이 다시 아뢰었다.

“방금 노성의 주장 지방이 보낸 서신을 받았습니다. 조도청 국사가 이미 송나라 군사에게 포위당해, 조덕 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전호는 보고를 듣고 크게 놀라 문무백관을 모두 불러 모았다. 우승 상 태사 변상, 추밀관 범권, 통군대장 마령 등에게 물으며 조정에서 상의했다.

“송강이 즉시 국경을 침범하여 우리 서쪽의 큰 고을을 점령하고 수많은 병사와 장수를 죽였으며, 조도청마저 저들에게 포위당했다. 너희는 이를 어찌 처치할 것이냐?”

그러자 국구 오리가 아뢰었다.

“주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신은 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니, 군마를 거느리고 즉시 군사를 일으켜 조덕으로 나아가 반드시 송강 일대를 사로잡고 빼앗긴 성을 되찾아 오겠나이다.”

이 국구 오리는 본래 위승의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오리는 창봉술에 아주 능했는데, 양팔의 힘이 천 근에 달했고 강한 활을 잘 쏘았으며, 오십 근 무게의 파풍대도를 익숙하게 휘둘렀다. 전호는 그의 누이동생이 미색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에 오리를 추밀로 봉하여 국구라 칭하였다.

이때 오리 국구가 다시 아뢰었다.

“신에게는 어린 딸 경영이 있는데, 근래 꿈속에서 신인을 만나 무예를 전수받더니 깨어나 보니 완력이 남달랐나이다. 무예가 정교할 뿐만 아니라 신기한 수단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손으로 돌을 날려 새를 맞히는 것이 백발백중이라 근래 사람들은 그녀를 ‘경영의 화살촉’이라 부릅니다. 신의 딸을 선봉으로 삼아 올린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옵니다.”

전호는 즉시 성지를 내려 경영을 군주로 봉했다. 오리가 은혜에 감사 인사를 마치자, 이번에는 통군대장 마령이 아뢰었다.

“신 또한 군마를 거느리고 분양으로 가서 적을 물리치고 싶나이다.”

전호는 크게 기뻐하며 모두에게 금인과 호패를 내리고 명주와 보물을 상으로 내렸다. 오리와 마령은 각각 군사 삼만 명을 나누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출발했다.

한편, 마령이 편아장좌와 군마를 거느리고 분양을 향해 진격하는 사이, 오리 국구는 왕의 성지와 병부를 받들고 연무장에 내려가 병사 삼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는 도창과 활, 화살 등 온갖 병기를 정비한 뒤 집으로 돌아가, 여장수 경영을 전부 선봉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출정할 준비를 마쳤다. 경영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군마를 거느리고 곧장 조덕으로 달려갔다. 이 여장수가 출정하는 데에는 한 가지 운명이 깃들어 있으니, 정렬한 여인은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고, 영웅인 장수는 거문고와 비파처럼 어우러지는 부부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이었다. 과연 이 여장수가 적진에 들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8회 — 장청연이 경영과 혼인하고, 오용이 독주로 오리를 해치다

張淸緣配瓊英 吳用計鳩鄔梨

이야기는 이러하다. 국구 우려는 양녀 구영을 선봉으로 삼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며 그 뒤를 따랐다. 구영은 이제 겨우 열여섯 살로,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였으나 본래 우려의 친딸은 아니었다. 본래 성은 구씨였고 아버지는 구신이었다. 그들의 조상은 분양부 계휴현 면상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이 면상은 춘추시대 진문공이 개지추를 얻지 못하자 그를 위해 면상이라는 이름의 밭을 만들어 준 곳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구신의 집안은 꽤 재력이 있었으나, 쇠 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러다 아내를 잃고 평요현에 사는 송유열의 딸을 후처로 맞이하여 구영을 낳았다. 구영이 열 살 되던 해에 송유열이 세상을 떠나자, 송씨는 남편 구신을 따라 친정의 상사를 치르러 길을 떠났다. 평요는 계휴와 이웃한 현으로 거리가 70여 리나 되었다. 송씨는 길이 멀고 급한 나머지 구영을 집에 남겨두고, 집안 관리인 엽청 부부에게 아이를 잘 돌보고 모시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송씨가 남편과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나타난

강도 무리에게 구신은 살해당하고, 집안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송씨는 강도들에게 납치되고 말았다. 도망친 식구들이 돌아와 엽청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엽청은 비록 관리였으나 의리가 있었고 창과 곤봉을 다루는 무예도 갖추고 있었다. 그의 아내 안씨는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다. 엽청은 즉시 구씨 집안의 친척들에게 알리는 한편, 관가에 보고하여 강도를 잡게 하고 구신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다. 구씨 친척들은 가업을 이을 사람을 정하기 위해 본가에서 한 명을 선발하기로 논의했다. 그동안 엽청 부부는 어린 주인 구영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전호가 난을 일으켜 위승을 점령했다. 전호는 우려에게 군사를 나누어 보내 약탈하게 했는데, 우려의 군대가 계휴현 면상에 이르러 재물을 빼앗고 남녀를 납치했다. 이때 구씨 집안의 가업을 이을 후계자가 난리 중에 죽는 바람에, 엽청 부부와 구영도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 우려 역시 자식이 없었는데, 구영이 눈매가 곱고 총기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아내 니씨에게 데려갔다. 니씨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으나, 구영을 보자마자 마치 친자식처럼 지극히 아꼈다. 구영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 이곳에서 살아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 게다가 의지할 친척도 없던 차에 니씨가 자신을 아껴주는 것을 보고, 우려에게 청하여 엽청의 아내 안씨를 데려오게 했다. 덕분에 안씨는 구영의 곁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수발을 들 수 있었다. 엽청은 포로로 잡혔을 때 몸을 빼내 도망칠 수도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구영은 아직 어리고, 주인님과 마님에게 남은 혈육이라곤 이 아이뿐인데 내가 도망쳐 버리면 아이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구나. 다행히 아내가 저곳에 있으니, 만약 기회가 생겨 아이를 재난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주인님께서도 저승에서 눈을

감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엽청은 어쩔 수 없이 우려를 따르기로 했다. 이후 전쟁에서 공을 세우자, 우려는 안씨를 엽청에게 돌려주었다. 안씨는 그 뒤로 수사(帥司, 장수의 관저)를 드나들며 구영에게 소식을 전하곤 했다. 우려는 또한 전호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엽청을 총관으로 봉했다.

이후 엽청은 우려의 명을 받아 목재와 석재를 채취하러 석실산으로 갔다. 부하 군사들이 산기슭에서 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 눈처럼 하얗고 티끌 하나 없이 아름다운 돌이 하나 있습니다. 토착민들이 그 돌을 캐려 하면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돌을 캐던 사람 몇이 깜짝 놀라 기절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손가락을 깨물며 서로 주의를 주느라 감히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엽청이 이 말을 듣고 군사들과 함께 산기슭으로 가서 살펴보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외쳤다.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하얀 돌이었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여인의 시신으로 변했단 말인가!」

엽청이 앞으로 나아가 자세히 살펴보니 참으로 기이하게도, 그 시신은 바로 주인마님인 송씨(主母)의 시신이었다. 얼굴 모습은 마치 살아 있는 듯 생생했으나, 머리와 얼굴 쪽이 부서진 모양새가 마치 언덕에서 떨어져 부딪혀 죽은 듯했다. 엽청이 경악하며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의 부대 소속 군졸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는 본래 전호 휘하에서 말을 돌보던 줄병(馬圉)으로, 송씨가 납치되어 죽게 된 경위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다.

「예전에 대왕(전호)께서 처음 군사를 일으키셨을 때, 계휴 땅에서 이 여인을 납치하여 산채의 부인(압채부인)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대왕을 속여 결박을 풀게 한 뒤, 이곳까지 와서 높은 언덕 아래로 몸을 던져 부딪혀 죽었습니다. 대왕께서 그 여인이 떨어져 죽는 것을 보시고는 저더러 언덕 아래로 내려가 옷과 장신구를 벗겨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제가 그 여인을 부축해 말에 태워 모셨고, 또 직접 옷을 벗겼기에 그 얼굴을 아주 잘 압니다. 틀림없이 그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어찌 시신이 이토록 멀쩡하단 말입니까?」

엽청은 그 말을 듣고 쏟아지는 눈물을 모두 뺏속으로 삼키며 군사들에게 말했다. 「나도 틀림없이 알아보겠다. 예전 이웃이었던 송 노인의 딸이 맞구나.」

엽청이 군사들에게 명하여 흙을 가져와 덮게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보니, 시신은 여전히 하얀 돌이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탄식하고는 각자 돌을 캐는 일을 계속했다. 일이 끝난 후 엽청은 위승으로 돌아와, 전호가 구신을 죽이고 송씨를 납치했으며 송씨가 절개를 지키려다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을 안씨를 통해 구영에게 비밀리에 전했다.

구영은 이 소식을 듣고 마치 만 개의 화살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밤낮으로 소리 죽여 울며 눈물을 흘렸고,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 후로 밤마다 눈을 감으면 신인이 나타나 말했다.

"네가 부모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면, 내가 무예를 가르쳐 주마."

구영은 영리하고 재주가 뛰어난 데다 깨달은 것은 모두 기억하는 성미라, 몰래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서 무예를 연마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예가 숙련될 무렵, 어느덧 선화 4년의 늦겨울에 이르렀다. 어느 날 밤, 구영이 잠시 깜빡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한 차례 휘몰아치더니 코끝을 찌르는 기이한 향기가 풍겨왔다.

문득 눈을 떠보니, 머리에 각진 관을 쓴 선비 하나가 초록 도포를 입은 젊은 장수를 데리고 나타나 구영에게 돌을 날려 맞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선비가 구영에게 다시 말했다.

"내가 특별히 고평까지 가서 '천첩성'을 이곳으로 모셔 왔으니, 네게 이술(異術)을 가르쳐 호랑이 굴 같은 이곳을 벗어나게 하고 부모의 원수를 갚게 해주려 한다. 이 장수는 또한 네 전생의 인연이다."

구영은 '전생의 인연'이라는 네 글자를 듣고는 너무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며 얼른 소매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다 손을 움직였는데, 탁자 위의 가위가 찡그랑 소리를 내며 밀려났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차가운 달빛과 꺼져가는 등잔불만이 여전히 눈앞에 보일 뿐이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구영은 멍하니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제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구영은 돌을 날려 맞히는 법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벽 근처에서 달걀처럼 둥근 돌 하나를 골라 잡더니, 높낮이도 가늠하지 않은 채 침실 지붕 위에 있는 치미(鷗尾, 지붕 양 끝의 장식 기

와)를 향해 힘껏 던졌다. 돌은 정확히 치미를 명중했고, 쟁그랑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치미가 산산조각이 나며 어지럽게 땅으로 떨어졌다.

이 소란에 놀란 니씨가 급히 달려와 무엇인지 물었다. 구영은 재치 있게 둘러대며 말했다.

"어젯밤 꿈에 신인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는 왕후의 기틀을 타고났으니, 내가 특별히 너에게 이술과 무예를 가르쳐 네 아버지가 뜻을 이루도록 돕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그 돌을 던져 보았는데, 뜻밖에 치미에 맞고 말았네요."

니씨는 깜짝 놀라 이 이야기를 우려에게 전했다. 우려가 어찌 곧이 곧대로 믿겠는가. 그는 즉시 구영을 불러내어 창, 칼, 검, 극, 곤, 봉, 차, 백 등 온갖 병기를 써 보라고 시켰는데, 과연 구영은 모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었다. 게다가 돌을 날려 맞히는 솜씨 또한 백발백중이었다.

우려는 크게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게 참으로 복이 있구나. 하늘이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이를 내려 나를 돕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우려는 온종일 구영을 가르치고 말을 타며 검술을 시험하게 했다.

이때 우려의 집안에서 구영의 무예 실력이 널리 알려지자, 위승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들썩이며 구영을 가리켜 '경사촉(瓊矢鏃, 구영의

화살촉)'이라 불렀다. 마침 우려는 구영에게 어울리는 좋은 사윗감을 찾아 혼인을 시키고자 했다. 구영이 니씨에게 말하기를,

"혼인을 시키시려거든 오직 돌을 잘 던지는 사람만 찾으세요. 만약 다른 사람과 혼인을 시키려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니씨가 이 말을 우려에게 전했다. 우려는 구영이 내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여겨 사윗감을 찾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는 '왕후'라는 말에 마음이 동하여 탄마음을 품게 되었다. 구영을 선봉으로 삼아 보고하여, 양측이 싸우는 틈을 타 그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심산이었다. 이에 우려는 군사와 장수들을 선발하여 위승을 떠났다. 그는 정예병 오천 명을 뽑아 구영을 선봉으로 세우고,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며 그 뒤를 따라 출정했다.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구영이 군사를 이끌고 진격할 때, 한편 송강 일행은 소덕에서 진안무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열흘 남짓 지나서야 진안무의 군마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강은 장수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멀리서 맞이한 뒤, 소덕부 안으로 들어가 머물며 임시 행군 사령부로 삼았다. 여러 장수와 우두머리들이 모두 찾아와 인사를 올리고 예를 갖추었다.

진안무는 평소 송강 일행의 충의를 잘 알고 있었으나 만날 길이 없어 대면하지 못했는데, 오늘 송강이 겸손하고 인자한 모습을 직접 보니 더욱 존경스러워하며 말했다. 「폐하께서 선봉이 연이어 기이한 공을 세운 것을 아시고, 특별히 나를 이곳으로 보내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상으로 내릴 금은과 비단을 수레 가득 실어와 포상으로 내리게 하셨다 오..」

송강 일행은 절하며 감사 인사를 올렸다. 「저희가 진안무 상공께서 힘써 천거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토록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이 모든 것이 상공의 베풀 덕분입니다. 저희는 위로는 천자의 은혜를 입고 아래로는 상공의 덕을 입었으니, 송강 등은 비록 간과 뇌를 땅에 쏟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진안무가 말했다. 「장군께서 조만간 큰 공을 세우고 군사를 돌려 경사로 돌아가신다면, 천자께서 반드시 중용하실 것이요..」

송강이 다시 절하며 사례했다. 「부디 진안무 상공께서 소덕을 지켜 주십시오. 저희 소장들이 병력을 나누어 전호의 소굴을 공격하여, 그가 앞뒤를 돌볼 겨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진안무가 대답했다. 「내가 경사를 떠날 때 이미 폐하께 아뢰어 두었소. 최근 선봉이 얻은 주와 현 가운데 현재 비어 있는 부·현의 관원 자리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속히 관리를 추천·보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출발하게 했으니 머지않아 도착할 것이요..」

송강은 한편으로는 하사받은 상을 군사들과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첩(軍帖)을 써서 '신행태보' 대종에게 보냈다. 대종은 각 부·주·현의 수비 두령들에게 명령을 전하여, 새 관리가 도착하는 즉시 업무를 인계하고 병력을 이끌고 와서 지휘를 따르도록 하게 했다. 각 부와 주에 명령을 다 전한 뒤에는 빈양(邠陽)으로 가서 군사 정보를 탐문해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송강은 하북에서 항복한 장수 당

빈 등의 공적을 진안무에게 보고하여 올리는 동시에, 금정(金鼎)과 황월(黃鉞)을 천거하여 호관(壺關)과 포독(抱犢)을 지키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손립·주동 등의 장수들과 교대하게 하여 손립·주동 등을 본진으로 불러 부리도록 청했다. 진안무는 이 모든 요청을 하나하나 승낙하였다.

이때 갑자기 유성처럼 빠른 전령이 달려와 보고했다.

"전호가 마령에게 장수와 군마를 거느리고 분양을 구하러 가라 명했습니다! 또한 국구 우려가 구영 군주와 함께 장수들을 거느리고 동쪽에서 양원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송강은 보고를 듣고 오용과 상의하여 적을 맞이할 장수들을 나누어 배치했다. 그때 항복한 장수 교도청이 다가와 말했다.

"마령은 평소 요술을 부릴 뿐만 아니라 신행법(神行法,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술법)도 쓸 줄 압니다. 게다가 몰래 금벽돌을 숨겨 던지는데 백이면 백 명중합니다. 저는 선봉의 보살핌을 받아 이곳에 왔으나 아직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희 스승님인 공손승 도사님과 함께 분양으로 가서, 그가 항복하겠다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마 이천을 내어주어 공손승과 교도청이 이끌고 가게 했다. 두 사람은 송강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그날 바로 군마를 이끌고 분양을 향해 떠났다.

한편 송강은 삭초, 서녕, 단정규, 위정국, 탕룡, 당빈, 경공에게 명령을 내려 군마 이만 명을 거느리고 노성현을 공격하게 했다. 또한 왕영,

호삼낭, 손신, 고대수에게는 기병 천 명을 이끌고 먼저 나가 북쪽 군대의 허실을 살피도록 명했다. 송강은 진안무와 작별한 뒤, 오용, 임충, 장청, 노지심, 무송, 이규, 포옥, 번서, 향충, 이곤, 유당, 해진, 해보, 능진, 배선, 소량, 송청, 금대견, 안도전, 장경, 옥보사, 왕정륙, 맹강, 악화, 단경주, 주귀, 황보단, 후건, 채복, 채경 및 새로 항복한 장수 손안을 비롯한 정편 장수 서른한 명과 함께 군마 삼만 오천을 거느리고 소덕을 떠나 북쪽으로 진격했다.

먼저 정찰을 나갔던 왕영 등 정찰대는 이미 양원현 경계인 오음산 북쪽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북쪽 장수 엽청의 부대와 마주쳤다. 마침 엽청의 부하 성본이 정찰을 나온 참이었다. 양쪽 군대가 맞닥뜨리자 북소리가 울리고 깃발이 휘날리며 전투가 시작되었다. 북쪽 장수 성본이 말을 타고 앞장서서 버티고 있었다.

송강의 진영에서 왕영이 말을 몰아 돌진하더니, 말 한마디 섞을 새도 없이 창을 휘두르며 성본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양쪽 군대가 함성을 내지르며 맞붙자, 성본도 창을 빼고 말을 몰아 맞서 싸웠다. 두 장수가 십여 합을 넘게 싸우고 있을 때, 호삼낭이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남편을 도와 적을 베어 넘기러 달려들었다. 성본은 두 장수를 당해내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호삼낭이 말을 채찍질해 뒤쫓아가 칼을 휘두르니, 성본은 그대로 쓰러지며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왕영 등이 병사들을 몰아 들이치자 엽청은 감히 맞서 싸우지 못하고 군마를 이끌고 급히 퇴각했다. 송강의 군대가 뒤쫓아 올라가며 적군 군사 오백여 명을 베어 죽였고, 나머지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엽

청은 겨우 백여 명의 기병만을 데리고 양원성 남쪽 이십 리 밖까지 도망쳤다. 그사이 구영의 군마는 이미 진을 치고 도착해 있었다.

알고 보니 엽청은 반년 전 전호의 명령을 받아 이곳으로 오게 되었으며, 주장 서위 등과 함께 양원을 지키고 있었다. 최근 구영이 선봉으로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엽청은 주장 서위에게 보고를 올린 뒤 구영을 만나 기회를 엿보고자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정찰을 나갔던 것이다. 서위가 편장 성본에게 함께 가라고 명했는데, 하필이면 성본이 호삼낭에게 죽임을 당하고 구영의 군마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었다.

엽청은 즉시 진영으로 들어가 구영을 알현했다. 구영은 이미 장성하여 비록 여인이었으나, 그 위풍이 당당하여 마치 장군과도 같았다. 구영은 엽청을 알아보고는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한 뒤 엽청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비록 호랑이 굴을 벗어나긴 했으나, 수하에는 겨우 오천 명의 병력뿐이니 부모님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몸을 빼내 도망치려 해도 저들이 눈치채면 오히려 화를 입을까 두려워 갈팡질팡 하던 참인데, 마침 네가 와 주었구나."

엽청이 대답했다.

"소인이 마침 계책을 생각하고는 있으나 마땅한 방도가 없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쪽 군대의 장수들이 병사를 이끌고 추격해 온다는 급보가 전해졌다. 구영은 즉시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타 군사를 이끌고 적을 맞이하러 나갔다.

양쪽 군대가 마주 서니 깃발과 북소리가 서로 맞닥뜨렸다. 양측이 진형을 갖추어 대치하는 가운데, 북쪽 진영의 문 깃발이 열리자마자 은빛 말이 앞장서서 달려 나왔다. 그 말 위에는 미모가 뛰어난 한 젊은 여장군이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다음과 같다.

금비녀 꽂은 봉황이 검은 구름 사이로 비치고
은빛 갑옷은 상서로운 눈보다 눈부시게 빛나네.

보물 안장 위 붉은 신발 끝을 세우고
그림 같은 창을 든 손은 옥처럼 부드럽구나.
버들 같은 허리로 말에 올라 자줏빛 띠가 너울거리고
가녀린 몸에는 붉은 노을빛 수놓은 옷이 감싸네.
얼굴엔 삼월의 복숭아꽃이 피었고 눈썹은 초봄 버들잎 같으니
주머니 속에 돌을 숨긴 열여섯 살 어린 여장군이라.

여장군의 말 앞에 걸린 깃발에는 '평남선봉장 군주 구영'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남쪽 진영의 장수들이 이를 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환호성을 질렀다. 양 진영에서는 화려한 악기 소리와 북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고, 형형색색의 수놓은 깃발들이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가득했다.

'왜각호' 왕영은 상대가 미모가 뛰어난 여인인 것을 보고는 즉시 말을 몰아 진영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구영을 향해 들이닥쳤고, 양쪽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구영 또한 말을 몰아 창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장수가 십여 합을 겨루는 동안, 왕영은 마음이 들떠서 창술이 갈수록 어지러워졌다. 구영은 속으로 '이놈, 가증스럽구나!'라고 생각하며 빈틈을 노려 창을 내질렀고, 단번에 왕영의 왼쪽 다리를 찔렀다. 왕영은 허공을 발로 휘저으며 투구가 눈앞으로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호삼낭은 남편이 다치는 것을 보고는 "이 천하고 무례한 도둑년 같으니라고!"라고 크게 욕설을 퍼부으며, 왕영을 구하기 위해 말을 몰아 달려 나갔다. 구영은 창을 세워 그 싸움을 받아냈다. 땅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왕영을 잡으려고 북쪽 군사들이 몰려들자, 이번에는 손신과 고대수가 동시에 나서서 죽을 힘을 다해 왕영을 구해 진영으로 퇴각시켰다. 고대수는 호삼낭이 구영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쌍도를 휘두르며 말을 몰아 전투를 돕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세 여장군이 여섯 개의 팔과 네 자루의 강철 칼, 그리고 한 자루의 화극을 휘두르며 각자 말 위에서 맞붙으니,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옥가루 같고 눈이 꽃 위로 흩뿌려지는 듯했다. 양 진영의 군사들은 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 여장군이 스무 합 넘게 싸우던 중, 구영이 빈틈을 노려 창을 한 번 내찌르고는 창을 끌며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호삼낭과 고대수가 일제히 뒤를 쫓았다.

구영은 왼손으로 화극을 붙잡아 버티며 오른손으로 돌맹이를 쥐었다. 그녀는 허리를 비틀고 눈을 부라리며 호삼낭의 움직임을 살피더

니, 호삼낭을 향해 돌맹이 하나를 날렸다. 돌맹이는 정확히 호삼낭의 오른쪽 손목을 맞혔다. 고통을 느낀 호삼낭은 얼른 칼 한 자루를 내던져두고 말을 몰아 본진으로 돌아갔다. 고대수는 호삼낭이 맞은 것을 보고는 구영을 뒤로한 채 호삼낭을 구하러 갔다.

구영이 말을 몰아 쫓아오자, 이번에는 손신이 크게 노하여 채찍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그러나 채 무기를 맞부딪치기도 전에, 구영이 날린 돌맹이가 '깡!' 소리를 내며 손신의 구리 사자 투구를 정면으로 때렸다. 손신은 깜짝 놀라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급히 본진으로 돌아가 왕영과 호삼낭을 보호하며 군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구영이 막 군사를 몰아 추격하려는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포성 소리가 들려왔다. 때는 2월의 끝자락이라 버드나무 가지에 걸린 깃발이 어지럽게 휘날리고, 꽃밭 너머로 말들이 연신 울부짖고 있었다. 그때 산비탈 뒤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돌진해 나왔는데, 바로 임충과 손안, 그리고 보군두령(步軍頭領) 이규 등이 송강의 명령을 받들어 지원하러 온 것이었다. 양쪽 군대가 충돌하자 북소리와 깃발이 요동쳤고, 양 진영에서는 연달아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저쪽에서는 '표자두' 임충이 장팔사모를 치켜들고 말 앞머리에 서서 위용을 떨쳤고, 이쪽에서는 '경시축' 구영이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앞으로 나섰다. 임충은 상대가 여인인 것을 보고 크게 꾸짖었다. "이 천한 계집이 어찌 감히 천병(관군)에 맞서려 하느냐!" 구영은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화극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임충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임충 역시 창을 내질러 맞섰다. 두 말이 맞부딪치며 무기가 허공을 갈랐다. 수없이 합을 겨루던 중, 구영은 공격을 막아내기가 역부족

이라 판단하고는 일부러 빈틈을 보인 뒤 창을 허공으로 내찌르는 척하며 말을 돌려 동쪽으로 달아났다. 임충도 말을 몰아 뒤를 쫓았다.

남쪽 진영 앞에 있던 손안이 구영의 깃발을 보고는 크게 외쳤다. "임장군, 추격하지 마시오! 암습을 당할까 두렵소!" 그러나 무예가 뛰어난 임충이 어찌 그 말을 듣겠는가. 그는 말을 몰아 바짝 뒤쫓아갔다. 푸른 풀이 무성한 초원 위로 여덟 개의 말발굽 소리가 마치 쟁반을 뒤엎는 듯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말들은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거세게 달렸다. 구영은 임충이 코앞까지 쫓아오자, 왼손으로 화극을 들어 방어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수놓은 주머니 속에서 돌맹이를 꺼냈다. 그녀는 몸을 틀어 임충의 얼굴이 가까워진 것을 확인하고는 돌맹이 하나를 날렸다. 임충은 눈이 밝고 손이 빨라 창대로 돌맹이를 쳐냈다.

구영은 돌이 맞지 않자 곧바로 두 번째 돌맹이를 집어 들었다. 손을 휘두르는 기세가 마치 유성이나 번개가 치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 느낄 정도였다. 그녀는 다시 임충을 향해 돌을 날렸다. 임충이 급히 피하려 했으나, 돌맹이는 그만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렸다. 얼굴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오자 임충은 창을 끌며 급히 진영으로 돌아갔다. 구영은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뒤를 쫓았다.

손안이 막 앞으로 나서려는데, 본진의 군사들이 갈라지며 길을 열더니 그 사이로 보병 오백 명이 튀어나왔다. 앞장선 이들은 보병 전투에 능한 맹장인 이규, 노지심, 무송, 해진, 해보 다섯 명이었다. 이규는 손에 판부(板斧, 넓직한 도끼)를 들고 크게 외치며 달려들었다. "이 계집년아, 무례하게 굴지 마라!" 구영은 그가 매우 흥분하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는 돌맹이를 집어 이규를 향해 날렸고, 돌은 정확히 그의 이마를 맞혔다. 이규 역시 깜짝 놀랐으나, 다행히 뼈가 단단하고 몸이 튼튼한 덕분에 통증만 느꼈을 뿐 다치지는 않았다.

구영은 이규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 같자 말을 돌려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 이규는 크게 노하여 호랑이 수염을 바짝 세우고 눈을 부릅뜬 채, 괴성을 지르며 그대로 돌진했다. 노지심, 무송, 해진, 해보도 이규가 위험해질까 봐 일제히 달려들었다. 손안이 어찌 그들을 다 막아낼 수 있겠는가? 구영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돌을 날려 해진을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해보, 노지심, 무송이 급히 그를 구하러 달려갔다. 이쪽에서 이규는 오로지 돌진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구영은 그가 코앞까지 다가온 것을 보고 재빨리 돌을 날려 또다시 이규의 이마를 맞혔다. 두 번이나 맞은 뒤에야 이규의 얼굴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이규는 역시 강철 같은 사내였다. 검은 얼굴에 선명한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기세등등하게 쌍도끼를 휘두르며 진영 속으로 들이닥쳐 북쪽 군사들을 마구 베어 넘겼다.

저쪽에서 손안은 구영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자 병사들을 불러 모아 싸우려 했으나, 마침 우려가 서위 등 편장수 여덟 명과 함께 대군을 거느리고 도착하면서 양쪽 군대가 뒤엉켜 난전을 벌였다. 한편 노지심과 무송은 해진을 구해내어 몸을 돌려 북쪽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해보는 형을 부축하느라 제대로 싸우지 못하다가 북쪽 군사들에게 가로막혔다. 북쪽 군사들이 밧줄을 던져 해진과 해보를 한꺼번에 낚아채어 진영 안으로 끌고 갔다. 보병들은 대패하여 도망쳤다.

그 와중에 손안이 용맹하게 싸우며 검을 휘둘러 북쪽 장수 당현을 말에서 떨어뜨렸다. 한편 우려는 손안의 부하 병사가 쏜 화살에 목덜미를 맞고 말에서 떨어졌으나, 서위 등이 죽을 힘을 다해 그를 구해 말 위로 올렸다.

구영의 장수들은 우려가 화살에 맞은 것을 보고 급히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이때 남쪽에서 송강의 군대가 다시 도착했는데, 앞장 서서 말을 타고 온 장수는 바로 '몰우전' 장청이었다. 그는 진영에 있다가 전령으로부터 북쪽 진영에 돌을 날리는 여장수가 있어 호삼낭 등을 다치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청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송선봉(송강)에게 보고한 뒤 급히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타 그 여선봉이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지원하러 온 것이었다. 저쪽에서는 구영이 이미 군사를 거두어 우려를 보호하며 울창한 숲을 지나 양원 쪽으로 떠나 버린 뒤였다. 장청은 말을 세우고 아쉬운 듯 멀어져 가는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미인이 말 돌리니 수놓은 깃발 휘날리고,
병사들과 장수들은 저마다 분주하구나.
깊은 숲으로 이끌었으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만발한 꽃더미 속에 붉은 화장만 가려졌네.

그때 손안은 해진과 해보가 붙잡힌 것을 보고, 노지심, 무송, 이규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이닥쳐 추격하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병사들을 불러 모아 뒤쫓으려 했으나 날이 이미 저물어 버린 탓에, 결국 장청과 함께 임충을 보호하며 군사를 거두어 대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송강은 막 장막에 올라 앉아, 안도전에게 왕영을 치료하라고 명했다. 장수들이 앞으로 나아가 왕영의 상태를 살피니, 발만 다친 것이 아니라 머리와 얼굴까지 피가 터져 있었다. 안도전이 치료를 마친 뒤에는 다시 임충을 돌보러 갔다. 송강은 해진과 해보, 그리고 이규 등 세 사람이 적진에 갇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며 답답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송과 이규가 온몸에 피와 오물을 뒤집어쓴 채 살기를 띠며 진영으로 들어와 송강을 알현했다. 무송이 사정을 아뢰기를, "이규가 살육에 눈이 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저도 형님을 도와 함께 싸우며 혈로를 열어 북쪽 군대를 뚫고 성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가보니 북쪽 군사들이 해진과 해보를 포박한 채 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기에, 저희 둘이 군사들을 죽이고 해진과 해보를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서위 등이 이끄는 대군이 몰려오는 바람에 다시 해진과 해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혈로를 뚫고 빈손으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다만 노지심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사람을 사방으로 보내 노지심의 행방을 수소문하게 하고 안도전에게 이규를 치료하도록 명했다. 이때는 이미 황혼이 질 무렵이었다. 송강이 병사들의 수를 세어보니 삼백여 명이나 손실된 상태였다. 그는 즉시 진영의 문을 굳게 닫고 방울을 울리며 병사들에게 경계를 명하게 한 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병사들이 노지심의 종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소식을 보고했다. 송강의 근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다시 악화, 단경주, 주귀, 육보사에게 명하여 빠르고 날랜 병사들을 거느리고 네 갈래길로 나누어 노지심을 찾아 나서게 했다. 송강은 병력을 이끌고 성을

공격하려 했으나, 장수들이 모두 부상을 입은 탓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움직이지 못한 채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성 안에서는 성문을 굳게 닫아걸고 싸우려 나오지도 않았다.

이들이 연달아 지나갔는데, 옥보사가 첩자 한 명을 붙잡아 진영으로 데려왔다. 손안이 그자를 살펴보니, 뜻밖에도 북쪽 군대의 총관 엽청이었다. 손안이 송강에게 말했다. "제가 듣기로 이 자는 평소 기개가 있는 자인데, 홀로 성 밖으로 나온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송강은 병사들에게 명해 결박을 풀게 하고 그를 앞으로 불러냈다. 엽청은 송강을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부디 원수께서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신 뒤 제가 자세히 아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우리 쪽 형제들은 모두 마음을 같이하는 사이니, 아무 걱정 말고 말해보시오."

그제야 엽청이 입을 열었다. "성 안의 우려가 며칠 전 진영에서 독화살을 맞아 독이 퍼지는 바람에 정신을 잃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 안의 의원들이 치료하려 했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틈을 타서 의원을 구하고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몰래 성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송강이 곧 물었다. "며칠 전 우리 장수 두 명을 잡아간 것은 어떻게 처치했소?"

엽청이 대답했다. "소인이 두 장군님께 해가 갈까 두려워, 우려가 혼미한 틈을 타 장수의 명령을 사칭하여 두 분을 잠시 구금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무사히 잘 있습니다."

이어 엽청은 구신 부부가 전호에게 살해당하고 약탈당한 일과 경영에 관한 앞서의 사정들을 상세히 늘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마친 엽청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송강은 이 사정을 듣고 매우 처참하다고 느꼈다. 엽청이 북쪽 군의 장수였기에 혹시 속임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망설이고 있을 때, 안도전이 앞으로 나서며 송강에게 말했다.

"정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안도전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장청 장군께서 지난겨울, 어떤 선비가 나타나 여인에게 비석술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선비는 또 장군께 이것이 전생의 인연이라고 말했지요. 장청 장군은 꿈에서 깨어난 뒤 그 생각에 사로잡혀 병이 났습니다. 그때 형님께서 저를 보내 장청 장군과 함께 고평에서 그를 돌보게 하셨지요. 제가 장청 장군의 맥을 짚어보니 일곱 가지 감정의 기운이 엉켜 생긴 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거듭 캐물은 끝에 장군께서 병의 근원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처치하자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엽청의 말을 들으니, 장청 장군의 꿈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송강은 이 말을 듣고 항복해 온 장수 손안에게 다시 물었다. 손안이 대답했다. "소장이 듣기로 경영은 우려의 친딸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부하인 아장 양방이 우려의 측근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 경영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엽청의 말은 결코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엽청이 다시 말을 이었다. "아가씨 경영은 평소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겠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소인이 보니 그녀가 싸움터에서 연거푸 위세를 무릅쓰고 있으니, 혹여 성이 함락되는 날에 옥과 돌이 함께 불타듯 그녀까지 무고하게 희생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으니, 부디 원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용은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엽청을 찬찬히 살펴보다니 송강에게 말했다. "안색과 표정이 참으로 진실하니, 참된 의사(義士)입니다! 하늘이 형님의 성공을 돕고, 효녀가 원수를 갚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송강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의 병력이 비록 세 갈래로 나뉘어 함께 토벌하고 있으나, 만약 전호가 금나라와 손을 잡는다면 우리 병력 중 두 갈래는 협공을 받을 것입니다. 설령 금나라가 나서지 않더라도 전호가 궁지에 몰려 반드시 금나라에 항복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적을 소탕하고 평정하는 공을 이루겠습니까? 저는 지금 계책을 짜며 내응할 사람을 구하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하늘이 그 편의를 빌려주어 장청 장군과 경영의 이 인연이 생겼으니, 다만 이러이러하게만 하면 전호의 목은 경영의 손에 달려 있게 됩니다. 이규의 꿈에 나타난 신인(神人)도 이미 예조를 보였으니, 형님께서는 '전호의 일족을 멸하려면 모름지기 <경시축(瓊矢鏃)>을 들어맞게 해야 한다'는 그 두 구절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송강은 그 말에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곧이어 장청, 안도전, 엽청 세 사람을 불러 비밀리에 계책을 전했다. 세 사람은 계책을 받들어 물러갔다.

한편, 양원성을 지키던 장수와 병사들은 엽청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가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어서 성문을 열어라! 나는 우려 대감의 편장 엽청이다. 의원 전영과 전우를 데려왔다!" 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즉시 막부로 달려가 북을 쳐서 보고했다. 잠시 후 명령이 내려지자 성문이 열렸다. 엽청은 전영, 전우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국구 우려의 막부 앞에 이르자, 안에서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엽청은 곧 전영과 함께 부 안으로 들어갔다. 수행하던 군사 중 시중을 드는 일꾼들이 군주 경영에게 보고한 뒤, 전영을 안쪽으로 인도하여 경영을 뵈게 했다.

전영이 경영을 뵈고 난 뒤 우려의 침상 곁에 이르니, 우려는 입안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다. 전영은 먼저 맥을 짚어보고 곁에는 약을 붙이고 안으로는 약물을 복용하게 했다. 사흘이 지나자 점차 피부에 생기가 돌고 음식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닷새가 지나자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으나 식사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려는 크게 기뻐하며 엽청에게 의원 전영을 불러 뵈게 하라고 일렀다.

우려가 전영에게 말했다. "그대의 신통한 의술 덕분에 상처가 점차 나아지고 있소.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그대와 함께 나누겠소."

전영이 절하며 답했다. "저의 비천한 기술이 어찌 말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게는 친동생 전우가 있는데, 오랫동안 저를 따라 강호를 떠돌며 무예를 익혔습니다. 지금은 저를 따라 이곳에 와서 약을 조제하며 상공의 발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려가 명령을 내려 전우를 불러 뵙게 했다. 우려는 전우를 보고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마음속으로 무척 마음에 들어 하며, 전우에게 부 밖에서 대기하며 부릴 때를 기다리라고 일렀다.

전영과 전우는 절을 올리고 부를 나섰다. 그로부터 나흘이 더 지나자, 갑자기 송강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엽청이 부 안으로 들어가 우려에게 보고하며, "송강 일행의 군사가 강하고 장수들이 용맹하니, 반드시 군주 경영 아가씨께서 나서셔야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려는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경영을 데리고 연무장으로 나가 병마를 정비했다.

이때 전우가 연무청(演武廳)으로 올라가 이렇게 아뢰었다. "은인께서 저를 곁에 두고 부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지금 적군이 성에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주 없는 소인이지만, 부디 성 밖으로 나가 적들이 단 한 조각의 갑옷도 돌아가지 못하게 박살 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총관 엽청이 짐짓 크게 화를 내며 전우에게 말했다. "네가 감히 큰소리를 치다니, 나와 무예를 겨루어 볼 배짱이라도 있느냐?"

전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여덟 가지 무예를 익혔으니, 오늘 바로 당신과 겨루어 보겠습니다."

엽청이 이 사실을 우려에게 아뢰자, 우려는 허락하며 그들에게 창과 말을 내주었다. 두 사람은 각자 창을 잡고 말에 올라 연무청 앞에서 서로 오가며 치고받았다. 한 차례, 두 차례, 몇 번이고 뒤엎겨 한 덩어리가 되었다. 말 위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말들이 서로 부딪치며 사오십 합을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곁에서 시중을 들던 경영은 전우의 얼굴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의아해하며 생각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창법도 나와 같구나.' 잠시 생각에 잠겼던 경영은 문득 깨달음을 얻고 속으로 외쳤다. '꿈속에서 비석술을 가르쳐 준 이가 바로 이 얼굴이었구나! 혹시 비석술도 할 줄 아는 것일까?'

경영은 즉시 화극(畫戟)을 쥐고 말을 몰아 앞으로 다가가, 화극을 휘둘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는 경영이 엽청이 전우를 다치게 할까 염려해서였지, 엽청이 이미 자기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경영은 화극을 곧게 세워 전우를 곧장 몰아붙였고, 전우 역시 창을 들어 맞서면서 두 사람은 다시 신 합 넘게 격투를 벌였다. 경영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연무청 위로 달아나자, 전우도 그 기세를 몰아 뒤쫓아갔다.

경영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고 몸을 돌려 전우의 옆구리 빈틈을 겨냥하더니, 돌 하나를 확 던졌다. 전우는 이미 이를 알아채고 오른손을 뻗어 가볍게 낚아챘다. 경영은 그가 돌을 받아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며 두 번째 돌을 다시 던졌다. 전우는 경영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방금 손에 쥔 돌을 그대로 맞받아 던졌다. 그러자 쟁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경영이 던진 돌에 정면으로 맞았다. 두 돌은 마치 눈송이처럼 부서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날 성안의 장수 서위 등은 모두 네 성문을 나누어 지키고 있었다. 연무장에는 아장(牙將, 하급 장교)과 교위(校尉, 군관)들뿐이었는데, 그들 중에도 이 사람(전우)이 간첩이 아닐까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하지만 군주 경영이 금지옥엽의 귀한 신분으로 그와 무예를 겨루었고, 또

우려의 측근 장수인 엽청이 데려온 사람이라, 그들이 어찌 감히 입을 열어 말을 꺼낼 수 있었겠는가? 성의 형세가 글렀음을 직감한 이들은 저마다 바람 부는 대로 키를 돌리듯 처신할 궁리만 했다.

이 또한 전호가 패망할 운수라, 하늘이 우려의 녀를 빼앗아 그를 혼미하게 만든 것이었다. 우려는 즉시 전우를 불러들여 갑옷과 말을 내리고, 군사 이천 명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라 명했다. 전우는 절을 올리고 명을 받들어 성 밖으로 나갔다. 그는 송강의 군사를 물리치고 성으로 돌아와 승전보를 전했다. 우려는 크게 기뻐하며 그날 전우에게 상을 내리고 쉬게 했으니, 그날 밤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다음 날, 송강의 군사가 다시 들이닥치자 우려는 또다시 전우에게 군사 삼천 명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라 명했다. 진시(辰時, 오전 7~9시)부터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까지 격렬한 전투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전우가 던지는 돌에 송강의 장수들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달아나며 도망쳤다. 전우는 군사들을 몰아치며 오음산까지 추격해 나갔고, 송강 일행은 막아내지 못하고 소덕으로 퇴각했다. 전우는 승전보를 들고 성으로 돌아왔고, 우려는 매우 기뻐했다.

엽청이 말했다. "오늘 주인님께 이 전 장군과 경영 아가씨가 생겼으니, 송강의 군사가 아무리 맹렬한들 무엇이 걱정이겠으며, 대업을 이루지 못할까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어 엽청이 덧붙였다. "경영 아가씨께서 전부터 비석술을 할 줄 아는 이를 만나야만 혼인하겠다고 서원하셨는데, 이제 전 장군처럼 영웅적인 분을 만났으니 아가씨께도 욕되지 않습니다."

엽청이 이토록 거듭 권유하니, 이는 경영과 전우의 인연이 하늘이 정해준 듯 붉은 실로 묶여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 우려도 이를 허락하여 길일을 택해 삼월 열엿새날로 정하고, 갖가지 예물과 잔치를 준비하여 장청을 데릴사위로 삼았다. 이날은 생황과 노래, 고운 풍악이 울리고 비단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으며, 잔칫상의 풍성함과 신혼방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침내 의식을 돕는 빈상(賓相)이 예를 진행하였고, 전우와 경영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함께 신령께 절을 올린 뒤 가짜 장인인 우려에게 절을 올렸다. 북소리와 악기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고 기이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두 사람은 신혼방으로 들어가 영원한 사랑을 굳게 맹세했다. 등불 아래서 바라본 경영의 모습은 연무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달랐다. <원화령(元和令)> 이라는 사(詞)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손가락은 연못 속 연근처럼 보드랍고,
 허리는 장안의 버들가지처럼 가냘프네.
 물결을 가르며 걷는 걸음마다 황금이 흐르고,
 복숭아 빛 뺨에는 길게 뻗은 눈썹이 비치네.
 오늘 밤 등불 아래 슬쩍 돌아보는 그 모습,
 마치 무산의 신선이 내려온 듯한 옥 같은 모습이네.

그날 밤 전우와 경영은 물과 물고기처럼, 혹은 옷과 아교처럼 서로에게 찰떡같이 달라붙어 떨어질 줄 몰랐으니, 그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날 밤 전우는 베갯머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본명을 밝히니, 그는 본래 송강의 군대에서 '몰우전(沒羽箭)'이라 불리는 정장(正將) 장청이었다. 또한 의원 전영은 바로 '신의(神醫)' 안도전 그

사람이었다. 경영 역시 그동안 겪어온 원통하고 괴로운 사연을 하나하나 자세히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소곤소곤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틀을 더 버티다 두 사람이 안팎에서 호응하여 우려를 짐독(鴆毒)으로 죽였다. 이어 서위를 몰래 부중(府中)으로 불러들여 일을 의논하게 한 뒤 그 또한 죽여버리니,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은 모두 항복하였다. 장청과 경영은 성안에 소식을 새어 나가게 하는 자가 있으면 같은 오(伍)의 사람들까지 함께 참수하고, 범인은 군인이든 백성이든 가리지 않고 삼족을 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성안은 물 썰 틈 없이 삼엄해졌다. 또한 해진과 해보를 풀어 장청, 엽청과 함께 네 성문을 나누어 지키게 했다. 안도전은 엽청과 함께 군졸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소덕까지 가서 송 선봉에게 소식을 전했다. 오용은 또 이규와 무송에게 명하여, 밤중에 '성수서생(聖手書生)' 소량을 보호하여 양원으로 데려가 경영과 장청을 만나게 했다. 그곳에서 우려의 필체를 찾아내어 우려의 글씨를 똑같이 흉내 내어 공문과 서찰을 작성하게 한 뒤, 엽청이 이를 지니고 위승으로 가게 했다. 그 글에는 우려가 군주의 부마(郡馬)를 데릴사위로 들인 일을 전호에게 알리고, 그 가운데서 형편을 보아 일을 처리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엽청은 서신을 받아 들고 장청과 경영에게 작별을 고한 뒤 위승을 향해 떠났다.

한편, 송강은 소덕 성안에서 소량과 안도전을 보낸 뒤, 삭초와 서녕 등이 노성을 함락시켰다는 승전보를 전하러 온 전령의 보고를 받았다. 전령이 말했다.

"삭초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노성을 포위하자, 적장 지방(池方)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감히 나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녕이 여러 장수와 함께 계책을 세워, 군사들에게 옷을 벗게 한 뒤 크게 욕설을 퍼부어 성안의 군사들을 격분시켰습니다. 성안의 사람들이 모두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나자, 지방은 더는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성문을 열고 나와 싸웠습니다. 이때 북쪽 군사들이 용맹하게 네 성문으로 쏟아져 나오자, 우리 군사들은 싸우는 척하며 뒤로 물러나 북쪽 군사들을 성에서 멀리 사방으로 흩어지게 유인했습니다. 그사이 당빈이 동쪽 길로 군사를 이끌고 돌격해 나왔고, 탕룡이 서쪽 길로 병력을 이끌고 들이쳤습니다. 동쪽과 서쪽 두 성문의 수비병들이 미처 문을 닫지 못한 사이, 탕룡과 당빈 두 장수가 이끄는 병사들이 성안으로 쳐들어가 성을 빼앗았습니다. 서녕이 지방을 찢러 쓰러뜨렸으며, 나머지 장수들은 죽거나 도망쳤습니다. 북쪽 군사 오천여 명을 죽이고 전마 삼천여 필을 탈취했으며, 만여 명의 군사를 항복시켰습니다. 삭초 등이 성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안무하였기에, 특별히 이 승전보를 먼저 보내옵니다. 나머지 군민의 호구와 창고에 쌓인 금은보화는 따로 명부를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송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이 내용을 진안무에게 보고하게 하고 삭초 등의 공적을 기록하여 전령에게 상을 내렸다. 이어 군첩(軍帖)을 써서 전령에게 가져가 회답을 전하게 한 뒤, 각로의 병마가 도착하면 일제히 진격하기로 했다. 전령은 노성을 향해 회보하러 돌아갔으니, 이는 더 말하지 않겠다.

한편, 위승에서 전호의 휘하 관원이 탐마(探馬, 정찰병)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교도청과 손안이 모두 항복했습니다."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다.

"소덕과 노성이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관원은 즉시 이 사실을 전호에게 보고했다. 전호는 크게 놀라 여러 장수와 함께 대책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원의 성을 지키던 편장 엽청이 국구(國舅)의 서신을 가지고 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전호는 즉시 그를 불러들여 들게 했다.

바로 이 엽청이 들어옴으로 인해, 위승 성안에서는 무리지어 모여든 강도 떼를 소탕하고, 무향현에서는 왕을 도모하려는 반역자를 산 채로 사로잡게 되었다. 과연 전호가 오리(鄔梨)의 보고문(申文)을 읽고 어떻게 대답할지는, 다음 회를 들으면 알게 될 것이다.

제99회 — 화화상 노지심이 인연의 굴레 에서 벗어나고, 혼강룡 양지연이 태원성 을 물로 뒤덮다

花和尚解脫緣纏井 混江龍水灌太原城

이야기는 이러하다. 전호는 엽청이 올린 상소문을 받아 들고는, 글을 아는 근시를 불러 "이것을 읽어 보아라" 하고 일렀다.

상소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신 우려는 전우를 사위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매우 용맹하여 송나라 군사들을 물리쳤으며, 그로 인해 송강 일행은 소덕부로 물러나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 우려는 즉시 딸인 군주 경영과 전우를 함께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소덕성을 탈환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관 엽청을 보내 승전보를 전함과 동시에 혼인 사실을 보고하오니, 대왕께서는 신이 독단적으로 혼인을 결정한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호는 이 글을 다 읽고 나니 걱정이 칠 할은 가신 듯했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려 전우를 중흥평남선봉군마(中興平南先鋒郡馬, 선봉 사위

라는 뜻의 직책)로 봉하고, 엽청과 두 명의 위지휘사(僞指揮使, 임시 지휘관)에게 명을 내렸다. 이들에게 교지와 함께 포상금인 화홍, 비단, 은자를 챙겨 양원현으로 가서 전우를 포상하도록 했다. 엽청은 전호에게 작별 인사를 올린 뒤, 두 명의 위지휘사와 함께 양원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멈춘다.

한편, 전날 '신행태보' 대종은 송강의 명을 받들어 각 부와 주, 현에 군첩(군사 명령서)을 두루 돌리는 일을 모두 마친 뒤, 분양부의 노준의를 찾아가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떠났다. 각 부와 주현에 새로 부임한 관리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각 지역의 성을 지키던 장수와 부관들은 즉시 새 관리에게 관할권을 넘겨주었고, 여러 장수는 군마를 이끌고 차례차례 소덕부로 모여들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무리는 위주의 수장인 관승과 호연작, 그리고 호관의 수장인 손립, 주동, 연순, 마린, 그리고 포독산의 수장인 문중용과 최야였다. 군마가 도착하자 이들은 성안으로 들어가 진(陳) 안무사와 송강을 뵙고 이렇게 보고했다. “수군 두령 이준이 노성을 이미 탈환했다는 소식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이준은 장횡, 장순,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 동위, 동맹과 함께 수군 함대를 이끌고 위하를 거쳐 황하로 나간 뒤, 황하를 따라 노성현 동쪽의 노수(潞水)에 모여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강은 즉시 술을 베풀어 이들을 환대하며 회포를 풀었다.

다음 날, 송강은 관승, 호연작, 문중용, 최야에게 군마를 이끌고 노성으로 가라고 명하며, 수군 두령 이준 일행에게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너희는 색초 등의 군사와 협력하여 유사와 대곡 등 여러 현을 공

격하라. 적의 근거지인 위승주의 배후를 쳐서 적이 빈틈을 보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혹여 적이 궁지에 몰려 금나라 군사에게 투항할지도 모르니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관승 일행은 명을 받들어 떠났다.

이후 능천현의 수비 장수인 이응과 시진, 고평현의 수비 장수인 사진과 목홍, 개주의 수비 장수인 화영, 동평, 두흥, 시은도 각각 새로 부임한 관리에게 군마를 인계하고 알현을 마친 뒤 보고를 올렸다. “화영 등이 개주를 지키고 있을 때, 북군의 산사기가 호관에서 패한 뒤 잔존 병력을 이끌고 부산현의 군사를 모아 개주를 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화영 등이 양쪽에서 매복 공격을 가해 산사기를 생포하고 이천여 명을 사살하였으며, 이에 산사기가 항복하였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화영 일행은 산사기를 끌고 송강을 찾아가 보고했고, 송강은 술을 차려 이들을 환영하며 격려했다.

송강의 군대는 소덕성에 머물며 마치 장청과 경영의 기세에 겁을 먹은 듯 위축된 모습을 보여, 전호가 방심하도록 유도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멈춘다.

한편, 노준의 일행이 이미 분양부를 탈환하자, 전표는 패하여 효의현으로 도망치던 중 마침 마령의 군사와 마주쳤다. 마령은 탁주 사람으로 평소 요술을 부리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발밑에 풍화(風火)의 두 바퀴를 굴리며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어, 사람들이 그를 '신구자'라 불렀다. 또한 금전(金磚)을 다루는 법이 있어 사람을 타격하는 위력이 매우 대단했는데, 전장에 나설 때마다 이마에 요사스러운 눈 하나가 나타나기에 사람들은 그를 '소화광'이라고도 불렀다. 그의 요술은 도사 교도청 다음가는 수준이었다. 마령의 수하에는 편장 두 명이 있었는데

데, 바로 무능과 서근이었다. 이 두 장수 또한 마령의 요술을 함께 익혔다.

마침 마령은 전표와 군사를 합쳐 무능, 서근, 색현, 당세룡, 능광, 단인, 묘성, 진선과 함께 삼만 명의 용맹한 군사를 거느리고 분양성 북쪽 십 리 밖에서 진을 쳤다. 남군의 장수와 부관들은 연일 마령 일행과 싸웠으나 번번이 승리하지 못했다. 결국 노준의는 군사를 이끌고 분양성 안으로 퇴각하였으니, 감히 적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오직 북군이 성을 공격해 올까 봐 근심할 뿐이었다.

노준의가 이리저리 고민하며 근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동문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송강 선봉이 특별히 공손승과 교도청을 보내 군사 이천 명과 함께 전투를 돕게 했다는 소식이었다. 노준의는 서둘러 성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다. 인사를 마친 뒤 노준의는 공손승을 상석에 모시고 교도청을 그 다음 자리에 앉힌 후, 술을 베풀어 극진히 대접했다.

노준의가 말했다. “마령의 요술이 워낙 대단하여 뇌횡, 정천수, 양웅, 석수, 초정, 추연, 추윤, 공왕, 정득손, 석용 등 여러 장수가 그에게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 노준의가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마침 두 도사님께서 이곳에 와 주셨군요.”

그러자 교도청이 말했다. “소도가 저희 스승님과 함께 이 일을 논의하다가 송 선봉께 보고를 드리고, 마령을 잡기 위해 특별히 이곳으로 왔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다시 달려와 보고했다. 마령이 군사를 이끌고 동문으로 들이닥쳤고, 무능과 서군은 서문으로 쳐들어왔으며, 전표는 색현, 당세룡, 능광, 단인과 함께 북문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고를 들은 공손승이 말했다. “빈도가 동문으로 나가 마령을 상대하겠습니다. 교 현재는 서문으로 나가 무능과 서군을 잡으시오. 노 선봉은 군사를 이끌고 북문으로 나가 전표를 맞이하십시오.”

노준의는 즉시 황신, 양지, 구팽, 등비 네 장수에게 군마를 거느리고 일청(一淸, 곧 공손승) 선생을 돕게 했다. 한편 대종은 마령이 신행법을 쓴다는 말을 듣고 공손승과 함께 나가겠다고 청하였고, 노준의가 이를 허락했다. 이어 진달, 양춘, 이충, 주통에게 군마를 주어 교 선생을 돕게 했다. 노준의는 진명, 선찬, 학사문, 한도, 팽기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남문으로 나가 전표를 맞이하러 나갔다.

그날 분양성 밖 동, 서, 북 세 방향에서는 깃발이 하늘을 가리고 북소리와 징소리가 하늘을 진동시키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인 격전이 벌어졌다.

노준의와 교도청이 이끄는 두 갈래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동안, 한편으로는 '신구자' 마령이 군사를 거느리고 깃발을 흔들며 북을 치고 징을 울리며, 옥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어왔다. 성문이 열리고 현수교가 내려지자, 남군의 장수와 부관들이 성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군마를 일렬로 늘어세우니 그 모습이 마치 긴 뱀처럼 늘어선 장사진(長蛇陣)과 같았다.

마령이 말을 몰아 창을 치켜들고 크게 외쳤다. “이 패배자 놈들아, 어서 우리 성을 돌려주지 못할까!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너희 중 살아남는 놈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구팽과 등비가 두 마리 말을 나란히 몰아 달려 나오며 크게 호통쳤다. “네놈의 제삿날이 왔다!”

구팽은 철창을 움켜쥐고 등비는 철쇄를 휘두르며, 두 사람이 말을 달려 마령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자 마령 또한 창을 내밀며 맞서 싸웠다. 세 장수가 열 합 넘게 싸우던 중, 마령이 금전(金磚)을 꺼내 들어 구팽을 향해 막 던지려던 찰나였다.

이때 공손승이 이미 말을 몰아 앞으로 달려 나와 검을 들고 법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마령이 손을 움직이는 순간, 공손승이 검을 가리키자 마치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붉은 빛이 사방을 뒤덮더니 공손승의 검 전체가 불꽃으로 뒤덮였다. 마령이 던진 금전은 땅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한 번 구르더니 순식간에 (불에 타) 소멸해 버렸다.

공손승의 법술은 참으로 신통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남군의 장졸들과 병기들까지 온몸에 불꽃을 휘감았으니, 마치 긴 뱀 같던 진영이 순식간에 불을 뿜는 화룡(火龍)처럼 변했다. 마령의 금전법이 공손승의 신비로운 불꽃에 제압당한 것이다. 공손승이 도사의 의식용 도구인 주미(塵尾, 먼지털이)를 휘두르자, 남군의 군마들이 앞뒤로 합세하여 몰아치기 시작했다. 북군은 대패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군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세 명 가운데 두 명꼴로 목숨을 잃었다.

전투에서 패한 마령은 겨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신행법을 써서 발밑에 풍화의 두 바위를 굴리며 동쪽을 향해 날아가듯 달아났다. 이때 남군의 '신행태보' 대종 역시 이미 신행법용 갑마(甲馬)를 단단히 매어두고 신행법을 펼치며 박도를 들고 뒤를 쫓았다. 마령이 순식간에 이십여리를 달아났으나, 대종은 십육, 칠 리 정도밖에 따라가지 못해 어느새 마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앞서 날아가던 마령은 갑자기 마주친 덩치 크고 살집 있는 스님과 부딪혔다. 그 스님이 정면에서 달려들어 석장으로 마령을 내리치니 마령은 그대로 뒤집어졌고, 스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령을 단숨에 붙잡아 버렸다.

그 스님이 마령을 추궁하고 있을 때, 대종이 이미 도착했다. 대종이 보니 스님이 마령을 붙잡고 있었다. 대종이 다가가 그 스님을 확인하니, 바로 '화화상' 노지심이었다. 대종이 깜짝 놀라 물었다. “스승님,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노지심이 물었다. “여기가 대체 어디냐?”

대종이 대답했다. “이곳은 분양부 성 동쪽 외곽입니다. 이 자는 북군의 장수 마령인데, 방금 공손 일청 선생께 전장에서 요술을 깨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뒤쫓아 왔으나, 저놈이 워낙 빨라 잡지 못하던 차에 스승님께서 마침 나타나 붙잡으셨으니,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격입니다!”

노지심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 몸이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나, 땅에서 나온 것은 맞다.”

두 사람은 즉시 명령을 결박했다. 세 사람은 발을 땅에 딛고 곧장 분양부로 향했다. 대중이 노지심의 내력을 다시 묻자, 노지심은 걸어가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며칠 전 전호가 어떤 계집년 하나를 양원성 밖으로 보내 싸우게 하더구나. 그년이 돌멩이를 날려 여러 장수를 다치게 하기에, 이 몸이 전장에서 적을 베며 그 계집년을 잡으려 했지. 그런데 미처 살피지 못한 채 풀숲에 숨겨진 구멍에 발을 헛디뎠더니 그 안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구멍 바닥에 닿았는데, 다행히 다치지지는 않았지. 구멍 안을 살펴보니 옆에 또 다른 구멍이 있고 그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더구나.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참으로 기이했다. 마치 하늘과 달이 있고 마을과 집들이 있는 세상 같더구나. 그곳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이 몸을 보고도 그저 웃기만 하더군. 묻지도 않고 그저 사람들을 쫓아갔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을 지나니 앞에는 고요한 황야가 나타나 사람이 살지 않더구나. 한참을 가다 보니 초가집 하나가 보이는데, 안에서 목어 치는 소리가 푹푹탁탁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나처럼 스님 한 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경을 읽고 있더구나. 내가 나가는 길을 묻자,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온 곳에서 오고, 갈 곳으로 가라' 하더구나. 그 말로도무지 무슨 뜻인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더니, 그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이곳이 어디인지 아느냐?' 내가 '그딴 곳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고 했더니, 그 스님이 다시 웃으며 말하더구나. '위로는 비비상천(非非想)에 이르고 아래로는 무간지옥에 이르니, 삼천대천세계가 이토록 넓고 멀어 사람이 알 길이 없다'고 말이다. 그러더니 또 이르기를, '범인은 누구나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생각이 생기니, 지옥과 천당도 모두 수많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며 만법은 오직 식(識)에 달려 있다. 한 생각도 생기지 않으면 육

도(六道)가 모두 사라지고 윤회 또한 끊어지는 법이다'라고 하더구나. 이 말이 참으로 명쾌하게 들려, 내가 그 스님을 향해 크게 읊하며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그 스님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인연의 우물에 빠져 욕망의 미망에 갇혔으니, 내가 네 갈 길을 일러주마.'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초가집 밖으로 나가더니, 서너 걸음도 못 가 멈춰 서서 말했다. '여기서 헤어지자, 나중에 다시 만나게나.'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앞으로 가면 신구(神駒)를 얻을 것이다'라고 하더구나. 고개를 돌려보니 그 스님은 간데없고,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데, 거기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것이지. 그가 가는 모습이 워낙 기이하여 내 석장으로 내리쳤더니, 어찌 된 영문인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은 계절이 소덕부 쪽과는 또 다르더구나. 복숭아와 오얏나무 잎은 저리 큰데, 꽃봉오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대종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이미 3월 하순이라 복숭아와 오얏꽃이 다 졌기 때문입니다.”

노지심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투며 말했다. “지금은 분명 2월 하순이다! 방금 구멍에 빠졌을 때 겨우 한 번 멈췄을 뿐인데, 어찌 벌써 3월 하순이란 말이나?”

대종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워했다. 두 사람은 마령을 압송하여 곧장 분양성으로 향했다.

이때 공손승은 이미 북군을 물리치고 군사를 거두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노준의, 진명, 선찬, 학사문, 한도, 팽기 등은 색현, 당세룡, 능광

세 장수를 베어 넘기고 전표와 단인 등을 십 리 밖까지 추격하여 북군을 흩어놓았다. 전표는 단인, 진선, 묘성과 함께 패잔병을 이끌고 북쪽으로 도망쳤다.

노준의가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교도청이 무능과 서근을 물리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교도청은 진달, 양춘, 이충, 주통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왔으니, 남군의 두 갈래 군대가 합세하여 몰아치자 북군은 대패하였고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무능은 양춘의 큰 칼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고, 서근은 학사문에게 찔려 죽었다. 이로써 말과 갑옷, 금북(金鼓)과 말안장, 고삐 등 수많은 전리품을 빼앗았다. 노준의와 교도청은 군사를 하나로 합쳐 승전보를 울리며 성 안으로 입성했다.

노준의가 막 부치(府治, 관청)에 도착하니, 마침 노지심과 대종이 마령을 압송해 오고 있었다. 노준의는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물었다. “노지심,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송 형님과 우려 그놈이 싸우고 있다는데, 승패가 어떠한가?”

노지심은 방금 전 구멍에 빠졌던 일과 송강이 우려와 싸웠던 일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노준의와 그 아래 장수들은 그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노준의가 직접 마령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마령은 오는 길에 이미 노지심의 이야기를 들은 데다, 노준의의 기세가 워낙 당당한 것을 보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청했다. 노준의는 삼군 장병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며 노고를 치하했다.

다음 날, 진녕부의 성을 지키던 장수와 관리들이 새로운 관직을 명 받아 모두 분양으로 와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준의는 대종과 마령에게 송강의 선봉 부대로 가서 승전보를 전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그 날 바로 부군사 주무와 함께 적을 정벌할 계획을 세우며 논의에 들어갔다.

한편, 마령은 대종에게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법을 전수하였고, 두 사람은 하루 만에 송강의 선봉 부대에 도착했다. 그들은 진영으로 들어가 송강을 알현하고 승전의 소식을 상세히 보고했다. 송강은 노지심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송강은 직접 진(陳) 안무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알현하고 승전을 보고하였으니, 이 일은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전표는 단인, 진선, 묘성과 함께 패잔병들을 이끌고 급히 달려왔다. 그 모습이 마치 집 잃은 개처럼 허둥대고 그물에서 빠져나간 물고기처럼 분주하게 위승에 도착하여 전호를 만나더니, 군사를 잃고 땅을 빼앗긴 일을 울며 하소연하였다. 이때 가짜 추밀원 관리가 급히 안으로 들어가 아뢰기를, “대왕님, 이들 사이에 전령들이 눈송이처럼 설새 없이 군서를 전해왔습니다. 통군대장 마령이 붙잡혔으며, 관승과 호연작의 군마는 이미 유사현을 포위하였고, 노준의 등의 군마는 이미 개휴현 성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다만 양원현의 우 국구(鄔梨) 쪽에서는 연달아 승전보가 들려오니, 송나라 군사들이 감히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전호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문무 백관들이 논의한 결과, 북쪽으로 가서 금나라에 항복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때 가짜 우승상 태사인 변상이 여러

관리를 물러가게 한 뒤 아뢰기를, “송나라 군사가 비록 세 갈래라 하나, 이곳 위승은 만 겹의 산이 둘러싸고 있고 군량은 2년은 충분히 버틸 만하며, 어림위 등 정예병도 20여만 명이나 됩니다. 동쪽에는 무향, 서쪽에는 심원 두 현이 있는데 각각 5만 명의 정예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뒤로는 태원현, 기현, 임현, 대곡현이 있어 성벽이 견고하고 군량이 풍족하니 충분히 싸우며 버틸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차라리 닭의 부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전호가 주저하며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총관 엽청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전호가 즉시 그를 불러들였다. 엽청은 춤추듯 절을 올린 뒤 말하기를, “군주와 군마(전우)께서 연달아 적을 베어 승리를 거두니 군사들의 기세가 크게 떨쳐 병마가 소덕부까지 직행했습니다. 막 성을 포위하려 하는데, 우 국구께서 마침 고뿔에 걸려 병마를 통솔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대왕께서 유능한 장수와 정예병을 더 보내 군주와 군마를 도와 소덕부를 되찾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때 가짜 도둑 범권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 군주와 군마가 매우 용맹하여 송나라 군사들이 감히 정면으로 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만약 대왕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가 웅장한 군사와 맹장을 보태주신다면 반드시 중흥의 큰 공을 이룰 것입니다. 신은 태자를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일(감국)을 맡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전호가 이를 허락하였다. 알고 보니 범권의 딸은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미인이었는데, 범권이 이를 전호에게 바치자 전호가 매우 총애하였다. 그리하여 범권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전호가 따랐다. 오늘 범권은 엽청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은 데다 송나라 군사의 기세가 강한 것을 보고, 기회를 틈타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것이었다.

그 즉시 전호는 변상에게 장수 10명과 정예병 3만 명을 붙여 노준의와 화영 등의 군마를 맞이하게 하였다. 또한 가짜 태위 방학도에게도 장수 10명과 정예병 3만 명을 거느리게 하여 유사로 가서 관승 등의 군마를 막게 하였다. 전호는 직접 가짜 상서 이천석, 정지서, 추밀 설시, 임흔, 도독 호영, 당현 및 전수, 어림호가교두, 단련사, 지휘사, 장군, 교위 등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정예병 10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리고 날을 택해 제사를 지내고 군사를 일으키며, 소와 말을 잡아 삼군을 포상하였다. 이어 전령을 보내 형제인 전표(田豹)와 전표(田彪), 그리고 도독 범권과 문무 백관들에게 태자 전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게(감국) 하였다. 엽청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심복을 비밀리에 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양원성으로 달려가 장청과 경영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장청은 해진과 해보로 하여금 밧줄로 그들을 성 밖으로 매달아 내려보낸 뒤, 밤을 도와 송강 선봉 부대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게 하였다.

한편, 변상은 병부를 기다리며 군마를 선발하고 사흘 동안 머물다가, 비로소 번옥명, 어득원, 부상, 고개, 구침, 관염, 풍익, 여진, 길문병, 안사룡 등 편아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군마 3만 명을 이끌고 위승주의 동문으로 나섰다. 군사는 두 부대로 나누었는데, 앞 부대는 번옥명, 어득원, 풍익, 고개가 이끌었으며 병마는 5천 명이었다. 이들이 막 심원현의 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산비탈 아래에 커다란 숲이 하나 있었는데, 전군이 그 숲을 막 지나가려는데 어디선가 징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숲 뒤쪽 산비탈 아래에서 군사 한 무리가 돌진해 나왔다.

알고 보니 송강이 장경의 소식을 듣고, 비밀리에 화영, 동평, 임충, 사진, 두홍, 목홍에게 명하여 정예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것이었다. 군사들은 갑옷을 갖춰 입고 말의 방울을 떼어 소리를 죽인 채 이곳까지 질주해 왔다. 군사 중 한 장수가 말을 몰아 앞장서며 양손에 강철 창 두 자루를 치켜들었다. 이 장수는 송나라 군에서 늘 선봉에 서는 '쌍창장' 동평이었다. 동평이 크게 외쳤다. "어느 쪽 군사냐? 어서 항복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번옥명이 크게 욱하며 맞받아쳤다. "이 못된 도적놈들아, 어찌하여 우리 성을 침범하느냐!" 동평이 크게 노하여 호통쳤다. "천병(天兵)이 여기 왔거늘, 감히 저항하려 드느냐!" 그러고는 말을 몰아 두 자루의 창을 휘두르며 번옥명을 향해 곧장 돌격했다. 번옥명도 말을 몰아 창을 휘두르며 맞섰다. 두 장수가 스무 합 넘게 싸웠으나, 번옥명은 힘이 부쳐 방어하지 못하고 동평의 창에 목을 찔려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이를 본 풍익이 크게 노하여 쇠창을 들고 말을 몰아 동평을 공격하려 했다. 이때 '소이광' 화영이 말을 몰아 싸움에 끼어들었다. 두 장수가 열 합 넘게 싸우더니, 화영이 말을 돌려 본진을 향해 도망치려 했다. 풍익이 말을 몰아 뒤쫓아오자, 화영은 화창을 휘둘러 그를 붙잡아두고는 활을 들어 화살을 먹였다.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화영이 몸을 비틀어 풍익을 겨냥하더니, 단 한 발의 화살로 풍익의 얼굴을 명중시켰다. 풍익은 투구가 벗겨지며 두 발이 허공을 짓더니 쿵 하고 말에서 떨어졌다. 화영은 말을 돌려 다시 창을 휘둘러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았다.

동평, 임충, 사진, 목홍, 두홍이 병마를 몰아 일제히 몰아치며 공격해 들어왔다. 고개는 이미 임충의 창에 찔려 쓰러졌고, 어득원은 말에

밟혀 죽고 말았다. 북군은 대패하여 군사 5천 명 중 태반이 죽거나 나머지는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화영과 병사들이 금고와 말들을 빼앗아 북군을 추격하여 5리쯤 나아갔을 때, 마침 변상의 대군이 도착하는 것을 만났다.

변상은 농가 출신이라 두 팔에 물소 같은 힘이 넘쳤고 무예 또한 정통하여, 적군 중에서도 뛰어난 장수였다. 마침 양군이 서로 마주하여 깃발과 북이 서로 보이고, 양 진영에서는 뿔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며 북소리가 둥둥 이어졌다. 북군의 장수 변상은 말을 앞세워 서 있었는데, 머리에는 봉황 날개 모양의 금빛 투구를 쓰고 몸에는 물고기 비늘 같은 은빛 갑옷을 걸쳤으며, 키는 아홉 자에 달했다. 세 갈래로 갈라진 수염이 입가를 덮었고 얼굴은 각지고 어깨는 넓었으며, 눈은 둥글고 눈썹은 치켜 올라가 있었다. 그는 파도를 가르는 전마를 타고 산을 가르는 커다란 도끼를 치켜들고 있었다. 좌우 양옆에는 부상, 관영, 구침, 여진 네 명의 가짜 통제관이 줄지어 섰고, 그 뒤로 가짜 통군, 제할, 병마방어, 단련 등의 관원들이 뒤따랐다. 군사들의 대열과 말들은 매우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남군 진영에서는 '구문룡' 사진이 말을 몰아 진영 밖으로 나서며 크게 외쳤다. "오는 장수는 누구냐!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여 칼과 도끼에 죽는 수모를 면하라!" 변상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병이든 항아리든 다 귀(손잡이)가 두 개씩은 달려 있는 법이다. 네놈은 이 변상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사진이 호통을 쳤다. "역적을 돕는 무지렁이 놈 같으니, 천병이 여기 왔거늘 어찌 저항하려 하느냐!" 사진은 말을 몰아 세 갈래 날에 고리 여덟 개가 달린 삼첨양인팔환도를 휘두르

며 변상을 향해 곧장 돌격했다. 변상 역시 커다란 도끼를 휘두르며 맞섰다. 두 마리의 말이 맞부딪치고 병기가 허공을 가르며 도끼와 칼이 종횡무진 교차하니,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화영은 변상의 무예가 뛰어난 것을 보고 화살을 쏘아 해치고 싶지 않아, 그저 말을 몰아 창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 싸움을 도왔다. 변상은 두 장수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내며 다시 서른 합을 더 싸웠으나 여전히 승패는 나지 않았다. 북군의 장병들은 변상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서둘러 북을 쳐서 군사를 물렸다. 화영과 동평은 날이 이미 저물고 적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고 추격하지 않은 채 군사를 거두어 남쪽으로 물러났다. 양군은 각자 십여 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그날 밤 남풍이 거세게 불어닥치더니 먹물을 뿌린 듯 짙은 구름이 몰려왔고, 한밤중이 되자 거센 비와 함께 천둥번개가 몰아쳤다. 이때 전호는 수많은 관리와 장수, 군마를 거느리고 위승성을 떠나 백여 리쯤 떨어진 곳에 밤이 깊어 진을 치고 있었다. 장막 안에서는 수행해 온 군중의 내시와 기첩들, 그리고 범미인이 함께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밤에 큰비가 내린 것이다.

이때부터 장마가 시작되어 닷새 동안이나 비가 그치지 않았다. 위로 는 쳐놓은 차양(천막)마저 모두 비가 새고, 아래는 온통 물이 흥건하였다. 군사들은 불을 피워 밥을 짓기도 어렵고 발을 붙이고 서 있기도 힘들었으며, 뽕활은 물러져 늘어지고 화살 깃은 떨어져 나갔다. 각 영의 군사와 말들은 모두 진영 안에서 그저 머물러 지킬 뿐이었으니, 이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색초, 서녕, 단정규, 위정국, 탕륵, 당빈, 경공 등의 장수들은 관승, 호연작, 문중용, 최야의 육병과 수군 두령 이준이 이끄는 수군 함대를 접선하였다. 장수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단정규와 위정국을 남겨 노성을 지키게 하고, 관승을 비롯한 장수들은 수륙 양면에서 함께 진격하여 배와 기병이 나란히 움직이며 유사현을 격파하기로 하였다. 또한 색초와 탕륵을 다시 남겨 성을 지키게 하였다. 관승 일행은 승세를 몰아 대나무를 쪼개듯 거침없이 진격하여 대곡현까지 함락시켰고, 성을 지키던 장수들을 베었으니 항복하는 나머지 아장과 군사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관승은 군사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장졸들에게 포상을 내린 뒤, 사람을 보내 송강 선봉에게 승전보를 전하게 하였다.

다음 날, 관승 일행도 마침 큰비를 만나 성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되어 더는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노준의 선봉이 선찬, 학사문, 여방, 광성을 남겨 병마를 거느리고 분양부를 지키게 했습니다. 노준의 일행은 이미 개휴(介休)와 평요 두 현을 함락시켰으며, 한도와 팽기에게는 개휴현을, 공명과 공량에게는 평요현을 지키게 하고, 노준의 선봉은 수많은 장수와 군마를 거느리고 태원성을 포위했으나 마침 비가 내려 공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성 안에 있던 수군 두령 이준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관승에게 말했다. "노준의 선봉 일행이 지금 끊임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 물이 크게 불어나 삼군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군이 죽기를 각오한 결사대를 뽑아 성 밖으로 돌격해 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제게 계책이 하나 있으니, 노준의 선봉에게 가서 상의하고 싶습니다." 관승이 허락하였다.

이때 '혼강룡' 이준은 즉시 관승에게 작별을 고하고 성을 나섰다. 그는 동위와 동맹에게 수군 함대를 맡긴 뒤, 자신은 이장(二張)과 삼완(三阮)과 함께 수군 이천 명을 거느리고, 샷갯을 쓰고 도롱이를 걸친 채 거센 비바람을 무릅쓰며 셋길로 질주하여 노준의의 진영 앞에 이르러 들어가 인사를 올렸다. 이준은 안부도 채 나누지 못한 채 곧바로 노준의와 잠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준의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 빗속에서도 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게 하였다. 이준 일행은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흩어졌으니, 이후의 이야기는 생략한다.

한편, 태원성을 지키던 장웅은 (전호의) 가짜 조정에서 전수(殿帥, 고위 무관직)의 직위를 받았고, 항충과 서악은 도통제(都統制)의 직위를 받았는데, 이 세 사람은 적군 중에서도 가장 살생을 즐기는 자들이었다. 그 수하 군졸들 또한 하나같이 흉악하고 잔인하며 음탕하기 이데 없었다. 성 안의 백성들은 그들의 폭압을 견디지 못해 가산을 버려둔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으니, 열 중 일고여덟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장웅 일행은 지금 대군에게 포위되어 험지를 밟고 성을 굳게 지키며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장웅은 항충, 서악과 함께 계책을 논의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 송나라 군사들도 약탈할 것이 없고 물기 많은 땅이라 움직이기 불리하다. 군량과 땔감도 바닥나고 있으니, 저들이 머물 마음이 없을 때 급히 출격한다면 반드시 대승을 거둘 수 있다."

때는 마침 4월 상순이었다. 장웅이 막 군사를 나누어 사방의 성문으로 송나라 군사에게 돌격하려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징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며 울려 퍼졌다. 장웅이 놀라 적루에 올라 성 밖을 살피니, 송나라 군사들이 빗속에서도 나막신을 신고 높은 언덕과 산등성이에 모두 올라가 있었다. 장웅이 경악하며 의구심에 빠져 있을 때, 지백거 쪽과 동·서 세 곳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이 들려왔으니, 이는 마치 수천수만의 군마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와 같았다.

순식간에 거센 물결과 노도 같은 파도가 밀려왔는데, 마치 한가을 팔월의 밀물이 굽이쳐 일고 하늘에서 황하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참으로 이러하니, 그 공적은 지백(智伯)이 진양성을 물에 잠가 성벽이 세 판자(三板)만 남게 했던 것을 능가하고, 그 계책은 회음후(淮陰侯) 한신이 몇 자루 모래주머니로 강물을 막아 적을 무찌른 것보다 뛰어났네.

결국 이 거센 물결이 어디서 멈출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장청경과 영쌍이 공을 세우고, 진관과 송강이 함께 승전보를 올리다

張清瓊英雙建功 陳瓘宋江同奏捷

이야기는 이러하다. 태원성의 성곽이 혼강룡 이준의 계략에 휘말렸다. 이준은 큰 비가 내려 물살이 거세게 불어난 틈을 타, 장횡, 장순,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과 함께 수군을 이끌었다. 그들은 약속한 시간이 되자 각자 지백거와 진수의 물길을 돌려 태원성을 수몰시키기로 했다.

순식간에 물살이 무섭게 몰아쳤다. 갑자기 거센 물줄기가 솟구치더니 이내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 군졸들은 뗏목을 타고 밀려들었고, 장수들은 배를 몰아 거세게 돌진했다. 귀신이 곡하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고 흐릿한 햇빛조차 빛을 잃었으며, 산이 무너지는 듯한 물소리는 마치 분노한 듯했다.

성벽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성 안의 집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깃발들은 물결에 휩쓸려 사라졌고, 푸른색과 붉은색의 군복을 입은 병사들의 무기는 물결 속에서 뒤엉켰다. 거센 파도는 좀처럼 가라

앉지 않았고, 하얀 포말이 눈보라처럼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시체들은 물고기나 자라처럼 물 위아래로 떠올랐으며, 뜨거운 피가 물결과 함께 끓어올랐다. 잠시 사이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나갔고, 곧이어 집의 서까래와 기와조차 물 위를 떠다니며 휩쓸려 갔다.

당시 성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끓는 솥처럼 소란스러웠다. 군사와 백성, 장수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물을 보고는 모두 물에 젖은 채로 성벽을 기어오르거나 지붕 위로 올라갔다. 나무를 붙잡고 서까래를 꺼안기도 했으며, 노약자나 몸집이 큰 이들은 그저 탁자나 선반 위로 올라갈 뿐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탁자와 의자마저 물 위로 떠올랐고, 무너져 내린 집들은 모두 물속의 물고기와 자라처럼 변해버렸다.

성 밖에서는 이준과 장횡, 장순, 그리고 완씨 삼형제가 빠른 배와 물에 뜨는 배를 타고 성 쪽으로 바짝 다가왔는데, 그 높이가 성벽과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 군사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와 날카로운 무기를 휘두르며 성을 지키던 병사들을 베어 넘겼다. 또한 군사들이 뗏목을 타고 돌진해오니, 성벽은 부딪히는 대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장웅은 성루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장횡과 장순이 배를 타고 성으로 올라와 박도를 치켜들고 외치며 성루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단숨에 군졸 열댓 명을 베어 넘겼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장웅은 피할 겨를도 없이 장횡의 박도에 맞아 쓰러졌고, 뒤따라온 장순이 단칼에 그의 목을 베어 버렸다.

물살이 잦아들며 사방으로 흩어지자, 성 안에는 물에 빠져 죽거나 무너진 건물에 깔려 죽은 군민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서까래와 문짝, 창틀과 각종 살림살이, 그리고 시체들이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 남쪽 성문을 가로막았다. 성 안에서 피서궁(避暑宮)만이 복제 신무제가 세운 곳이라 지반이 높고 견고했는데, 근처에 있던 군민들이 한꺼번에 그곳으로 몰려들어 서로 밀치고 짓밟는 바람에 이로만 이천여 명이 죽었다. 결국 높은 언덕과 성벽 위에 겨우 살아남은 군민은 천여 명뿐이었다.

반면 성 밖의 백성들은 노준의 선봉장이 미리 마을의 책임자들에게 명을 내려 대비하게 한 덕분에, 징소리가 울리자마자 즉시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게다가 성 밖은 탁 트인 넓은 벌판인 데다 물살도 빠르게 빠져나간 덕분에, 성 밖 백성들은 물에 휩쓸려 죽는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그때 혼강룡 이준이 수군을 이끌고 서문을 점령했고, 선화아 장형과 낭리백조 장순은 북문을 빼앗았다. 입지태세 완소이와 단명이랑 완소 오는 동문을 차지했으며, 활염라 완소칠은 남문을 점령했다. 네 곳의 성문에는 모두 송나라 군대의 깃발이 높이 세워졌다.

저녁이 되어 물이 빠지고 평지가 드러나자, 이준 일행은 성문을 활짝 열어 노준의 선봉장 일행의 군마를 성 안으로 맞이했다. 성 안은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고, 시체는 산처럼 쌓여 있었다. 비록 장웅 등의 죄악이 차고 넘쳐 죽어 마땅하다 할지라도, 이준이 쓴 계책은 실로 너무나 참혹하고 독했다. 살아남은 천여 명의 사람은 진흙탕 바닥에 흩어져 무릎을 꿇고, 마치 촛불을 켜 세운 듯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했다.

노준의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그들 중 군졸은 겨우 열댓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백성이었다. 향충과 서악은 장수 관저 뒤편 결방 옆의 커다란 회나무(노송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있다가, 물이 빠지는 것을 보고 슬그머니 내려오려다 남군에게 붙잡혀 노준의에게 끌려왔다. 노준의는 그들의 목을 베어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게 했다. 이어 현의 창고에 있는 은량을 내어 성 안팎의 수해 백성들을 구제하게 했고, 사람을 보내 송강 선봉장에게 승전보를 전하게 했다. 한편으로는 군사들에게 시체를 매장하게 하고, 무너진 성벽과 집들을 수리하여 백성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준의가 태원현에서 백성들을 달래고 수습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태원성이 함락되기 전의 상황이 이러하였다. 전호가 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을 때, 비가 오는 탓에 동제산(銅鞮山)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 탐마(探馬, 정찰병)가 급히 보고하기를, 오국구(鄒國舅)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에 군주(郡主) 경영(瓊英)과 군마(郡馬) 전우는 즉시 군대를 물려 양원으로 가서 오국구의 시신을 거두었다. 전호는 크게 놀라 양원성 안으로 사람을 보내 전지를 내렸다. 경영에게는 성을 지키며 진수하라고 명하고, 전우에게는 앞으로 나와 명을 받들라고 하였다. 또한, 왜 양원으로 사람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보고가 돌아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다음 날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무렵, 탐마가 급히 달려와 보고하기를, 송강이 손안과 마령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적을 막으러 오라고 명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전호가 이 보고를 듣고 크게 노하며 말했다.

"손안과 마령은 모두 나로부터 높은 관직과 두터운 녹봉을 받았거늘, 오늘 이토록 반역을 꾀하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직접 가서 그들을 따져 물으리라. 경들은 힘을 다하라. 만약 저 둘을 사로잡는 자가 있다면 천금을 상으로 내리고 만호후(萬戶侯)로 봉하겠다."

전호는 즉시 친히 군사를 몰아 앞으로 나아가 송나라 군대와 대치했다. 북쪽 군대가 송나라 군대의 깃발을 살펴보니, 다름 아닌 '병위지' 손립과 '철적선' 마린의 깃발이었다. 북쪽 진영 앞에는 금과(金瓜)가 뺑뺑하게 늘어서 있고, 철도끼와 칼, 창이 줄을 지었으며 깃발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구국비룡이 그려진 자황색 우산 아래, 옥 굴레와 금 안장, 은빛 갈기의 백마 위에 앉은 초두대왕 전호가 진영 앞으로 나와 직접 전투를 감독했다. 남쪽 진영 뒤편에서는 송강이 오용, 손신, 고대수, 왕영, 호삼낭, 손립, 주동, 연순의 병마를 거느리고 다시 도착했다. 송강 역시 친히 전투를 독려했다.

전호는 상대가 송강이라는 말을 듣고는 즉시 장수를 보내 출전시켜 송강을 사로잡으려 하였다. 그런데 그때 탐마가 급히 달려와 보고하기를,

"관승 등이 유사와 대국 두 성을 연달아 함락시켰습니다! 서로(西路)의 노준의 군마가 평요와 개휴 두 현을 다시 격파하였으며, 물길을 끌어들여 태원성을 통째로 침수시키는 바람에 성 안의 병사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니다! 우승상 변상은 면산에 진을 치고 화영 등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노준의가 태원에서 병사를 이끌고 뒤에서 들이닥쳤습니다. 변상은 양쪽에서 협공을 당해 어찌할 도리가 없자 대패하여 달

아났고, 결국 노준의에게 생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이제 노준의가 관승과 군사를 합쳐 심원현(沁源縣)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전호는 이 보고를 듣고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급히 전지를 내려 군사를 거두고 위승성 안으로 퇴각하여 성을 지키라 명하였다.

이때 이천석 등이 진영의 발을 붙들고 버티는 사이, 설시, 임흔, 호영, 당창이 전호를 보호하며 앞장서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동제산(銅鞮山) 북쪽에서 포성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더니, 송강의 밀명을 받은 노지심, 유당, 포옥, 향충, 이곤(李袞)이 정예 보병을 거느리고 동제산 북쪽을 가로질러 두 갈래 길로 몰려와 들이닥쳤다. 전호가 급히 어림군(御林軍)의 기마병을 몰아 맞서 싸우려 했으나, 돌연 마령과 손안이 병마를 이끌고 동쪽에서 비스듬히 파고들며 습격해 왔다. 마령은 마치 바람과 불의 바퀴를 탄 듯 기세 좋게 금전(金磚)을 휘둘러 북쪽 군대를 난타했고, 손안은 쌍검을 휘두르며 베어 넘겼다. 두 장수가 이끄는 군사들이 북쪽 진영으로 돌입하니 마치 빈집을 드나드는 듯하여, 북쪽 군대를 두 토막으로 갈라놓았다. 북쪽 군대가 비록 십만 대군이라 하나, 오용이 짜놓은 이 세 갈래 병마가 사방에서 들이받고 종횡무진하며 살육을 벌이니, 북쪽 군대는 별이 떨어지고 구름이 흩어지듯 대패하여 군사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다. 이때 위상서(僞尙書) 이천석 등이 전호를 보호하며 동쪽으로 돌파해 도망치려 했으나, 노지심 등이 창과 방패, 비도수(飛刀手)를 앞세워 혈로를 뚫고 달려와 이천석, 정지서, 설시, 임흔 등의 군마를 흠뜨려 서쪽으로 몰아냈다. 전호의 수하들이 비록 가장 정예한 어림군 기마병들이라 해도, 그들은 평소 관군과 싸워

본 적은 많았으나 이토록 맹렬한 적은 본 적이 없었으니, 오늘 어찌 이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때 전호의 좌우에는 도독 호영, 당창, 총관 엽청 및 금오교위(金吾校尉) 등의 장수들이 패잔병 오천 명을 이끌고 그를 호위하며 도망치고 있었다. 바로 그 위급한 순간, 돌연 또 한 무리의 군마가 동쪽에서 급히 달려왔다. 전호가 이를 보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북쪽 군대가 살펴보니, 그 군마의 선두에는 용모가 준수한 젊은 장수가 서 있었다. 그는 푸른 수건을 머리에 쓰고 초록색 전투복을 입었으며, 손에는 이화창을 들고 키가 큰 백색 곱슬털 말을 타고 있었다. 깃발에는 '중흥평남선봉군마 전우'라고 명확히 쓰여 있었다. 이때 전호의 뒤를 바짝 따르던 엽청이 깃발을 보고 전호에게 보고했다. 전호가 즉시 전지를 내려 군마 전우에게 어서 어가(자신)를 구하라고 명하였다. 전우가 가까이 다가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대왕께 아뢰입니다. 갑옷을 입고 있어 몸을 굽혀 절을 올리지 못하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

전호가 말했다.

"그대의 죄를 사하노라."

전우가 다시 아뢰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하오니, 대왕께서는 우선 양원성 안으로 들어가 적의 기세를 피하소서. 신이 군주와 함께 송나라 군사들을 물리친 뒤에, 다시 대왕을 모시고 위승성 대내로 들어가 좋은 계책을 세워 가업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전호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양원성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호는 뒤에 남아 추격해 오는 병사들을 막아섰다. 전호 일행이 양원성 아래에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는 끊임없이 함성과 칼날 소리가 들려오며 추격군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양원성의 수비 장병들은 이를 보고 서둘러 성문을 열고 도개교(吊橋)를 내렸다. 호영이 앞장서서 군사를 이끌었는데, 병사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군사들이 무서워 대왕이 누구인지는 안중에도 없이 앞다투어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호영이 막 성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양옆에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그들은 호영과 삼천여 명의 군사를 한꺼번에 함정 속으로 몰아넣었고, 군사들이 장창으로 마구 찔러대니 가련하게도 삼천여 명 중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성 안에서는 "전호를 생포하라!"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전호는 성 안의 상황이 변한 것을 보고서야 이것이 계략임을 깨닫고, 급히 말의 고삐를 잡아 북쪽으로 도망쳤다. 장청과 엽청이 말을 몰아 뒤쫓았으나, 전호의 말이 워낙 빨라 장청과 엽청이 이끄는 군사들은 화살 한 발 거리만큼이나 뒤처지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전호의 말 앞에서 회오리바람이 일더니, 그 바람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 크게 외쳤다.

"간악한 도적 전호야! 내 원수 부부가 모두 네놈에게 해를 입었다. 오늘 네놈이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여인이 외침과 동시에 그녀의 곁에서 또 다른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 전호의 얼굴을 향해 들이닥쳤고, 그 여인은 홀연히 사라졌다. 전호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놀라 울부짖자 전호는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굴렀다. 이때 장청과 엽청이 따라붙어 말에서 뛰어내린 뒤 군사들과 함께 달려들어 전호를 단번에 붙잡았다. 당창이 군사를 거느리고 창을 앞세워 급히 구하러 왔으나, 장청은 당창이 달려드는 것을 보고 재빨리 말에 올라타 돌맹이 하나를 튕겨 날렸다. 돌맹이는 정확히 당창의 안면을 맞혔고, 당창은 말에서 떨어졌다. 장청이 크게 외쳤다.

"나는 전우 따위가 아니다! 대송 제국의 선봉 부대 소속 '물우전' 장청이다!"

이때 이규와 무송이 오백 명의 보병을 이끌고 성 안에서 튀어나왔다. 두 사람이 크게 호통을 치자, 전수사(殿帥)와 금오교위 등 이천여 명의 군사들은 벌이 떨어지고 구름이 흩어지듯 대패했다. 장청은 당창을 죽이고 전호를 묶은 뒤,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았다. 송나라 선봉군이 북쪽 군사를 물리친 뒤에야 성문을 열어줄 작정이었다. 뒤이어 노지심이 쫓아왔으나 전호가 이미 성 안으로 압송된 것을 보았다. 노지심 일행은 다시 서쪽으로 향해 동제산(銅鞮山) 측면으로 살육을 이어가며 나아갔다.

이때는 이미 유패(酉牌, 오후 5시~7시 사이) 무렵이었다. 송강 일행의 세 갈래 군마는 북쪽 군사들과 하루 종일 혈전을 벌여, 북쪽 군사 이만여 명을 베어 넘겼다. 북쪽 군대는 지휘관을 잃고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에 바빴다. 범미인(范美人)과 희첩들은 모두 난전 중에 병사들에게 살해당했다. 이천석, 정지서, 설시, 임흔이 삼만여 명

의 군사를 이끌고 동제산(銅鞮山)에 올라 진을 쳤고, 송강은 군사를 거느리고 사방에서 적을 포위했다. 이때 노지심이 달려와 전호가 이미 장청에게 붙잡혔음을 보고했다. 송강은 손을 이마에 얹어 다행으로 여기며, 급히 장령을 내려 명령을 전했다. 우선 군사들을 밤낮없이 달려 양원성으로 보내 무송 등이 성문을 굳게 닫고 전호를 감시하게 하였다. 또한 장청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신속히 위승으로 가서 경영(瓊英) 일행을 돕도록 하였다.

알고 보니 전영은 이미 오용의 밀계를 받들어 해진, 해보, 악화, 단경주, 왕정육, 육보사, 채복, 채경과 함께 오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북쪽 군대의 깃발을 내걸고 무향현 성 밖 석반산 측면에 매복해 있었다. 전영 일행은 전호와 송나라 군대가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없이 달려 위승성 아래에 이르렀다. 그날 저녁은 이미 노을이 잿아들고 초승달이 갈고리처럼 걸린 늦은 시각이었다. 전영은 성 아래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군주다! 대왕을 모시고 이곳에 왔으니, 어서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지키던 군졸들이 즉시 왕궁 안으로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전표와 전표가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남성(南城)에 이르러 성루 위에서 살펴보니, 과연 황색 우산 아래, 은빛 안장을 얹은 백마 위에 대왕이 앉아 있었다. 말 앞에는 한 여장수가 있었는데 깃발에는 '군주 전영'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고, 그 뒤로는 상서와 도독 같은 관리들이 멀찍이 따르고 있었다. 전영이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호 도독 등이 송나라 군대에게 패하였기에, 내가 특별히 대왕을 모시고 이곳에 왔다. 관리들은 어서 성 밖으로 나와 대왕을 맞이하라!"

전표 일행은 전호를 보고 즉시 성문을 열고 마중을 나갔다. 그들이 막 말 앞에 이르렀을 때, 말 위에 있던 대왕이 크게 호통을 쳤다.

"무사들은 과인을 도와 저 두 도적을 잡아라!"

그러자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두 사람을 붙잡았다. 전표와 전표가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크게 외치며 벗어나려 발버둥 쳤으나, 이미 군사들이 그들을 밧줄로 꼼꼼 묶어버린 뒤였다. 사실 이 전호는 오용이 손안을 시켜, 전호와 생김새가 비슷한 남군(南軍) 병사를 골라 전호의 차림새를 흉내 내게 한 것이었다. 뒤를 따르던 상서와 도독들 역시 해진과 해보 등이 변장한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각자 무기를 뽑아 들었고, 왕정육, 육보사, 채복, 채경이 오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표와 전표를 밤을 도와 양원성으로 압송해 갔다.

성 위에서 전표와 전표가 붙잡혀 남쪽으로 압송되는 것을 본 수비병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이 급히 성 밖으로 뛰어나가 저지하려 했으나, 전영이 전정을 죽이려 들자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해진, 해보와 함께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성문을 지키던 장병들이 적과 맞서 싸우려 했으나, 전영이 날린 돌맹이에 연달아 대여섯 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진과 해보가 전영을 도와 성 안에서 싸우는 동안, 성 밖에서는 악화와 단경주가 급히 군사들에게 북쪽 군대의 옷을 벗게 하고 모두 남군(南軍)의 옷으로 갈아입힌 뒤 일제히 성 안으로 들이닥쳐 남문을

탈취했다. 악화와 단경주는 박도를 휘두르며 성루 위로 올라가 수비병들을 물리치고 송나라 군대의 깃발을 세웠다.

성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직 남아 있던 가짜 문무백 관들과 왕실 친척들이 급히 병사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어왔다. 전영의 군사 사천여 명만으로는 이 적들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다행히 장청이 팔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여 성 안으로 진격했다. 장청은 전영과 해진, 해보가 북쪽 군사들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 돌을 날려 북쪽 장수 네 명을 연달아 맞혔으니 북쪽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장청이 전영에게 말했다.

"적진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적으로도 너무 불리합니다."

전영이 대답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설령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진다 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장청이 말했다.

"전호는 이미 제가 양원성에서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전영은 기뻐하며 안도했다.

전영이 막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려 할 때, 하늘이 도적 떼의 악행을 멸하려 했는지 마침 노준의가 침원성을 함락시키고 대군을 거느리고 도착했다. 노준의는 남문의 깃발을 보고 급히 군마를 몰아 성

안으로 진격하여 장청의 군사와 합류한 뒤 북쪽 군사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진명, 양지, 두천, 송만은 군사를 이끌고 동문을 탈취했고, 구팽, 등비, 뇌횡, 양림은 서문을 탈취했다. 황신, 진달, 양춘, 주통은 군사를 이끌고 북문을 탈취했으며, 양웅, 석수, 초정, 목춘, 정천수, 추연, 추윤은 보병을 거느리고 대도를 휘두르며 왕궁 앞쪽으로 거침없이 돌진해 들어가 베어 넘겼다. 공왕, 정득손, 이립, 석용, 도종왕은 보병을 이끌고 후재문(後宰門)을 통해 들어가 살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왕궁 안뜰의 빈비와 첩들, 내시 등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정은 변고를 듣고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했다.

장청, 전영, 장청, 손이낭, 당빈, 문중용, 최야, 경공, 조정, 설영, 이충, 주부, 시천, 백승은 각기 나누어 가짜 상서와 가짜 전수, 가짜 추밀 이하의 무리와 가짜 작위를 받은 왕실 친척 등 도적 떼를 소탕하러 나섰다. 시로 이르되.

금빛 계단 전각 아래엔 사람들의 머리가 굴러다니고 옥섬돌 궁궐 문엔 더운 피가 뿜어지네 옥과 돌을 가리지 않는다 말하지 마라 경사가 될지 재앙이 될지 스스로 가슴에 손 얹어 살필 일이라

그 무렵 위승성 안에 들어온 송나라 군사들이 벌인 살육으로 인해, 시가지에는 시체가 즐비하고 도랑마다 피가 가득했다. 노준의는 즉시 명령을 내려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게 엄히 다스렸다. 이어 서둘러 사람을 보내 송나라 선봉장에게 승전보를 전하게 했다. 송나라 군사들이 소

란을 피우며 몰아붙인 것은 그날 밤부터 이른 새벽 다섯 시경이 되어서야 겨우 잤아들었는데, 이때 항복하는 군사들이 매우 많았다.

날이 밝자 노준의는 장수들의 피해를 점검했다. '신기군사' 주무를 침원성에 남겨 성을 지키게 한 것 외에는 다른 장수들 중 다친 이가 없었다. 다만 항복했던 장수 경공만이 아군의 사람과 말(병마)에 짓밟혀 죽었을 뿐이었다. 장수들이 모두 모여 공을 보고할 때, 초정이 전정의 시체를 등에 짊어지고 나타났다. 전영은 이를 보고 이를 갈며 허리에 찬 칼을 뽑아 전정의 머리를 베어낸 뒤, 그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때 오리의 아내 예씨는 이미 죽은 상태였기에, 전영은 엽청의 아내 안씨를 찾아내어 노준의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장청과 함께 양원으로 가서 전호 일행을 압송하여 송나라 선봉장에게 데려갔다. 노준의가 군무를 돌보고 있을 때, 갑자기 탐마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북쪽 장수 방학도가 색초와 탕룡을 유사현에 가두고 있다고 했다. 노준의는 즉시 관승, 진명, 뇌황, 진달, 양춘, 양림, 주통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색초 일행을 구출하러 가게 했다.

다음 날, 송강은 동제산에서 이천석 일행을 격파했다. 한편, 사람을 보내 안무사에게 '적의 근거지를 파괴하고 우두머리를 생포했으니, 안무사께서는 위승성으로 오셔서 뒷수습을 해 주십시오'라고 보고하게 했다. 송강이 대군을 거느리고 위승성 밖에 도착하자, 노준의 등이 그를 맞이하여 성안으로 안내했다. 송강은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노준의가 변상을 데려왔다. 송강은 변상의 우람하고 위풍당당한 풍채를 보고 직접 포박을 풀어주며 예우를 갖추어 대접했다. 변상은 송강의 이러한 의기 있는 모습에 감격하여 스스로 항복했다.

다음 날, 장청과 전영, 엽청은 전호, 전표, 전표 일행을 수레에 가두어 압송해 왔다. 전영은 장청과 함께 송강을 찾아가 큰절을 올리며 인사를 드렸다. 전영은 왕영 등에게 과거에 무례를 범했던 죄를 사과하며 감사를 표했다. 송강은 전호 일행을 한쪽에 감시하며 세워두고, 대군이 회군할 때 함께 동경으로 압송하여 포로를 바치기로 했다. 이어 술 자리를 마련하여 장청과 전영의 공을 축하했다. 그날 위승성의 관할 현인 무향의 수성 장수 방순 등이 군민의 호구 명부와 창고의 군량미, 재물을 가져와 바쳤다. 송강은 노고를 치하한 뒤, 방순에게 예전처럼 성을 지키라고 명했다. 송강이 위승성에서 이들을 보내고 있을 때, 탐마가 달려와 보고하기를, 관승 등이 유사의 색초와 탕류를 구출하기 위해 안팎에서 공격하여 북방 장수 방학도를 죽였다고 했다. 북군 중 죽은 자는 5천여 명에 달했고, 나머지 병사들은 모두 항복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모두 형제들이 힘을 합쳐준 덕분에 반란군을 평정하는 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러고는 장수들의 공로를 세세히 기록하게 했으며, 특히 적의 우두머리를 생포하고 근거지를 파괴한 장청과 전영의 큰 공을 특별히 기록하게 했다.

또 삼사 일이 지나자 관승의 병마가 도착했고, 진안무의 병마도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송강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성안으로 안내했다. 인사를 마친 뒤, 진안무가 찬사를 보내며 말했다. '장군들께서 다섯 달 안에 세상에 길이 남을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소관은 적의 우두머리를 생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표문을 작성하여 사람을 시켜 말을 달려 경사(京師, 수도)로 급히 보내 승전보를 올렸으니, 조정에서 반드시 관직과 작위를 높여 봉할 것입니다.' 송강은 다시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다음 날, 전영이 찾아와 태원 석실산으로 가서 어머니의 유해를 찾아 매장하고 싶다고 청했다. 송강은 즉시 장청과 엽청에게 함께 가도록 명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두고 더 말하지 않는다.)

송강은 진안무에게 아뢰 뒤, 전호의 궁전과 전각들, 구슬로 꾸민 처마와 비취빛 집들을 모두 불태워 없애게 했다. 또한 진안무와 함께 창고를 열어 곳곳에서 전쟁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구휼하기로 논의했다. 이어 숙태위(宿太尉)에게 보낼 서신을 작성하고 조정에 올릴 표문도 써서, 대종을 즉시 파견하여 이를 전하도록 했다.

대종은 표문과 서신을 품에 안고 진안무가 보낸 주청 관원을 서둘러 따라잡아 함께 동경으로 들어갔다. 먼저 숙태위의 부저(府邸) 앞에 도착한 대종은 예전처럼 양 우후(虞候)를 찾아가 서신을 전달했다. 숙태위는 크게 기뻐했다. 이튿날 아침 조회에서 진안무의 표문과 함께 황제께 전달되자, 도군황제(道君皇帝)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며 송강 일행에게 뒷일을 정리하고 후임자와 교대를 기다린 뒤 군대를 거두어 경성으로 돌아오라고 명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관직과 작위를 내리기로 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대종은 즉시 숙태위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동경을 떠났으며, 이튿날 미시(未時, 오후 1~3시) 무렵 위승성에 도착하여 진안무와 송강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진관과 송강은 한편으로 생포한 도적 무리와 가짜 관리 등을 끌어내, 전호·전표(田豹)·전표(田彪)만은 따로 남겨 동경으로 압송하게 하고, 나머지 도적들은 모두 위승의 저잣거리 형장(市曹)에서 참수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직 수습하지 못한 지역은 진녕이 관할하는 포주·해주 등의 주현이었다. 도적질하던 관리와 탐관오리들은 전호가 붙잡혔

다는 소식을 듣고, 절반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고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 자수해 왔다. 진안무는 그들의 자수를 모두 받아들여 다시 양민으로 삼아주었다. 또한 곳곳에 방을 붙여 백성들을 불러 위무하여 안정시켰다. 그 밖에 도적을 따랐던 무리 중 사람을 해치지 않은 자들도 스스로 자수해 항복하면 다시 향민으로 받아주고 그들의 재산과 전원(논밭)을 돌려주게 했다. 이렇게 주현을 모두 탈환하고 나서, 각지에 수비 관군을 배치하여 경계를 지키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였으니, 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도군황제(道君皇帝)께서 이미 조칙을 내리시어 관원에게 그것을 받들고 하북으로 가서 진관 등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튿날, 황제께서 무학(武學)에 친히 거둥하셨다. 백관이 먼저 모여든 가운데, 채경이 상석에 앉아 병법에 대해 늘어놓자 모두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경청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관원이 고개를 치켜든 채 방 구석만 쳐다보며 채경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채경은 크게 노하여 즉시 그 관원의 성명이 무엇인지 조사하라고 명했다.

바로 한 사람이 구석을 향해 있으니 온 좌중이 즐겁지 못한 격이었다. 채경이 이 관원의 성명을 캐물은 일이, 곧장 천강성·지살성 호걸들이 軫·翼 분야(초 땅)에 임하고 맹장과 용맹한 군사들이 초나라 도읍 영(郢)을 평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채경이 조사한 그 관원이 과연 누구인지는, 다음 회를 들어 풀어보기로 한다.

제100회 — 무덤터를 도모함이 음험하여 역적이 나고, 춘양을 밟음이 요염하여 간 사한 자가 태어나다

謀墳地陰險產逆 蹈春陽妖艷生奸

이야기는 이러하다. 채경은 무학(武學) 자리에서 자신의 병법 이야기를 듣지 않고 천장의 구석만을 올려다보는 관원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 관원은 성이 나, 이름은 전이며, 본적은 운안군(雲安軍) 달주 사람으로 무학유(武學諭, 무예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 직책을 맡고 있었다. 채경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마침 황제의 행차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려왔다. 채경은 결국 이 일을 접어두고 백관을 거느린 채 황제를 맞이하여 성가(聖駕)를 무학으로 모시고, 춤추며 절하고 만세삼창을 올렸다.

도군황제(휘종)가 무예 강습을 모두 마치자, 무학유 나전이 채경이 입을 열기도 전에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먼저 아뢰었다.

"무학유 소신 나전,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회서의 강적 왕경이 반란을 일으킨 상황을 황제 폐하께 삼가 아뢰입니다. 왕경이 회서에서 난을 일으킨 지 벌써 5년이 지났으나, 관군은 도저히 적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관과 채유가 폐하의 명을 받들어 회서를 정벌하러 갔으나 군대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두려워 이를 숨기고 폐하를 속이며, 군사들이 현지의 물과 토질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잠시 군대를 거둔다 하였으니, 이로 인해 큰 화근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왕경의 기세는 더욱 창궐하여, 지난달에는 신의 고향인 운안군마저 함락시키고 백성을 약탈하며 음행과 살육을 저질렀으니 그 참혹함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합쳐 8개 군주(軍州)와 86개 주현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채경은 재상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황제를 보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아들 채유는 이처럼 군대를 거둬 잃고 장수를 죽게 하여 나라를 욕보이고 군사를 망쳤습니다. 더욱이 오늘 폐하께서 납시기 전까지도 저들은 여전히 버젓이 높은 자리에 앉아 병법을 논하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소리를 치니, 미쳐 날뛰며 정신이 나간 자들이 옅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채경 등 나라를 그르치는 역신들을 속히 처단하시고, 훌륭한 장수를 뽑아 군사를 일으켜 재빨리 토벌하여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고 사직을 영원히 보존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신하와 백성이 더없이 다행이요, 천하가 더없이 다행이겠나이다!"

도군황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채경 등이 사실을 숨긴 죄를 엄중히 꾸짖었다. 그러나 채경 일행이 교묘한 말로 황제에게 둘러대며 아뢰자, 황제는 즉시 죄를 묻지 않고 가마를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박주(亳州) 태수 후몽이 조정에 들어와 명을 기다리던 중, 상소문을 올려 동관과 채유가 군대를 잃고 나라를 욕보인 죄를 직언으로 논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천거하였다.

"송강 등은 재능과 지략이 남달라 여러 차례 기이한 공을 세웠습니다. 요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온 데 이어 하북까지 평정하여, 이제 막 승전보를 올리고 회군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경의 기세가 창궐하니, 부디 폐하께서는 조칙을 내려 송강 등에게 먼저 포상을 내리시고, 즉시 그 군마를 동원하여 회서를 정벌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반드시 큰 공을 이룰 것이옵니다."

휘종 황제는 이 건의를 허락하고 즉시 성원(省院)에 명을 내려 송강 등의 관작을 봉할 것을 논의하게 했다. 성원의 관리들이 채경 등과 상의한 끝에 다시 이렇게 아뢰었다.

"왕경이 완주를 함락시킨 데 이어, 어제는 우주, 재주, 래현 세 곳에서 급박함을 알리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세 곳은 동경이 관할하는 주현으로 신경(神京)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진관과 송강 등에게 조칙을 내려, 군이 회군하여 경성으로 돌아올 필요 없이 즉시 군마를 거느리고 밤낮없이 달려 우주 등지를 구원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는 후몽을 행군참모로 천거합니다. 나전은 평소 지략이 뛰어나니 그를 후몽과 함께 진관의 군중으로 보내 부리게 하소서. 송강 등은 현재 토벌 중이라 당장 승진시켜 관작을 내리기는 적절치 않으니, 회서에서 승전보가 오면 그때 다시 헤아려 봉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채경은 왕경 쪽의 군사가 강하고 장수가 사납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동관·양전·고구와 함께 계책을 꾸며 일부러 후몽과 나전을 진관의 군중으로 보낸 것이었다. 송강 등이 패전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면 후몽과 나전인들 설령 하늘로 달아난들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면 한 그물로 모조리 잡아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속셈이었다. 이야기는 길게 늘어놓지 않겠다.

한편 그 네 역신이 올린 안건을 도군황제가 하나하나 허락하여 조칙을 써 내리니, 후몽과 나전이 황제의 조칙과 하사품인 금은, 비단, 포복(袍服), 의복과 갑옷, 말, 어주(御酒) 등을 받들어 들고 그날로 길을 떠나 하북으로 달려가 송강 일행에게 황제의 뜻을 전하게 되었다. 또한 해당 부서에는 하북의 새로 수복한 각 부·주·현에서 결원이 생긴 정·좌(正佐) 관원을 신속히 추천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밤낮없이 달려가 부임하도록 명하였다. 도군황제가 이렇게 결단을 모두 마치자, 다시 왕부와 채유 두 사람이 황제를 꼬드겨 간악(艮嶽)으로 유흥을 즐기러 가게 하였으니, 이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후몽은 황제의 조칙과 장수들에게 줄 하사품을 서른다섯 수레 가득 실은 채 동경을 떠나 하북을 향해 출발했다. 길을 가는 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으나, 하루가 지나 호관산을 지나고 소덕부를 거쳐 위승주에 이르렀을 때였다. 성에 도착하기까지 아직 이십여 리가 남은 지점에서, 송나라 군사가 반란군 수괴들을 압송해 오는 것을 마주쳤다.

당시 송강은 이미 승전 보고를 위한 조칙을 받은 상태였으며, 마침 경영이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때였다. 송강은 경영 모자의 효행과 정절, 그리고 엽청의 충절, 더불어 반란군 수괴들을 사로잡은

공로와 조도청, 손안 등이 조정에 항복한 사실을 상세히 적어 조정에 보고할 준비를 마쳤다. 이를 위해 장청과 경영, 엽청에게 군사를 주어 반란군 수괴들을 먼저 압송하도록 명하였다.

이때 장청이 앞으로 나아가 후몽 참모와 나전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장청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 진관 안무와 송강 선봉에게 보고하게 했다. 진관과 송강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후몽 일행은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성 안으로 들어간 뒤, 용정(龍亭)에 향안을 차려 놓았다. 진관 안무와 송강을 비롯한 여러 장수는 정연하게 줄을 서서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후, 후몽은 남쪽을 향해 서서 용정의 왼편에 선 채 조서를 낭독하였다.

조서에 이르기를,

"짐은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의 법도를 받들어 큰 기틀을 이어받았으나, 이는 오로지 걸출한 인재들이 짐의 팔다리가 되어 대업을 도왔기 때문이다. 근래 변방에 경보가 잦아 나라의 안녕이 적으니, 너희 선봉사 송강 등은 산천을 누비고 험난한 곳을 넘으며 먼저 오랑캐를 평정한 공을 이루고, 이어 도적을 가라앉힌 공적을 아뢰었으니, 짐은 참으로 이를 가상히 여겨 의지하노라.

이제 특별히 참모 후몽을 보내 조서를 받들어 가게 하며, 안무 진관과 송강, 노준의 등에게 금은과 비단 도포, 명마, 의복과 갑옷, 어주(御酒) 등을 내려 너희의 공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번에 강적 왕경이 회서에서 난을 일으켜 우리 성지를 무너뜨리고 우리 백성을 베어 죽이며 우리 변경을 노략하고 우리 서경을 뒤흔들고 있다. 이에 다시금 진관을 안무로, 송강을 평서도선봉(平西都先鋒)으로, 노준의를 평서부선봉(平西副先鋒)으로, 후몽을 행군참모로 삼노라. 조서가 도착하는 즉시 군마를 거느리고 밤낮없이 달려 우선 완주를 구원하라. 너희 장졸이 힘을 합쳐 충성을 다하여 평정의 공을 아뢴다면 반드시 봉작과 포상을 행할 것이다.

삼군(三軍)의 두목들 중 아직 포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가 있거든, 진관으로 하여금 하북의 주현에 있는 넉넉한 창고에서 헤아려 상을 주고 명부를 작성하여 아뢰게 하라. 너희는 이를 공경히 받들지어다! 특별히 이같이 알리노라."

선화 5년 4월 어느 날

후몽이 붉은 조서를 다 읽자, 진관과 송강 등이 세 번 만세를 외치고 다시 절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예로써 예를 마쳤다. 후몽은 금은보화와 비단 등을 가져와 명단에 따라 차례대로 나누어 주었다.

안무 진관과 송강, 노준의에게는 각각 황금 500냥, 비단 10필, 비단 도포 한 벌, 명마 한 필, 황제의 술 두 병을 내렸고, 오용 등 34명에게는 각각 백은 200냥, 비단 4필, 황제의 술 한 병을 주었다. 또한 주무 등 72명에게는 각각 백은 100냥과 황제의 술 한 병을 나누어 주었다. 남은 금은보화는 진관이 적절히 모아 군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으로 모두 마쳤다.

송강은 다시 장청, 경영, 엽청에게 명하여 전호, 전표, 전표를 압송하여 개봉으로 가서 포로를 바치게 하였다.

공손승이 찾아와 형님께, 오룡산 용신묘에 있는 다섯 마리 용상(龍象)을 새로 만들기를 청하였다. 송강이 이를 허락하여 장인을 보내 용상을 만들어 모시게 하였다.

송강은 대종과 마령을 보내 각 지방의 성을 지키는 장수와 병사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새로 부임하는 관리가 도착하는 대로 즉시 직무를 인계하고,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왕경을 토벌하라는 내용이었다. 송강이 며칠 동안 일을 정리하는 사이 각지의 신임 관리들이 모두 도착하였고, 각 지방에서 성을 지키던 장수와 부하들도 차례로 모여들었다. 송강은 황제에게 하사받은 은자를 나누어 주는 일까지 모두 마쳤다. 이어 송강은 소양과 금대견에게 명하여 비석을 새기게 하고 그간의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마침 때는 5월 5일 단오절이었다. 송강은 송청에게 명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태평성대를 축하하게 하였다. 안무 진관을 상석에 모시고, 새로 부임한 태수들과 후몽, 나전 및 본주의 좌우관들을 그 다음 자리에 앉혔다. 송강을 비롯하여, 개봉으로 떠난 장청을 제외한 107명과 하북에서 항복해 온 교도청, 손안, 변상 등 17명의 장수들은 양옆으로 정렬하여 가지런히 앉았다. 잔치 자리에서 진관, 후몽, 나전은 송강 일행의 공훈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송강과 오용 등은 자신들을 알아주는 세 사람에게 깊이 감격하여, 어떤 이는 조정의 일을 논하고 어떤 이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술잔과 술잔이 끊임없이 오

가고 등불이 환하게 빛나는 가운데,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지다 끝이 났다.

다음 날, 송강은 오용과 함께 계획을 세워 병마를 정비했다. 그리고 주궁에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위승을 떠나, 진관 등과 함께 남쪽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전혀 없었다. 백성들은 꽃과 향, 등불을 가져와 길목마다 가득 채우며 송강 일행이 도적들을 소탕해 준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 백성들이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편, 송강 일행이 남쪽으로 진군하는 동안, '몰우전' 장청은 경영, 엽청과 함께 함거에 전호 등을 가두어 압송하여 이미 동경에 이르렀다. 장청은 먼저 송강이 보낸 서신을 숙태위(宿太尉)에게 올리고, 아울러 금은과 진주, 진귀한 노리개를 보냈다. 숙태위가 이를 상황(上皇, 천자)께 전달하자, 천자는 경영 모자의 정절과 효행을 크게 가상히 여겨, 칙령을 내려 경영의 어머니 송씨를 '개휴정절현군(介休貞節縣君)'으로 특별히 추증하고, 그 지역 관청에 명하여 정문(旌門)과 사당을 세워 정절을 표창하고 봄가을로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또한 경영은 '정효의인(貞孝宜人)'으로 봉하고, 엽청은 정배군(正排軍)으로 삼아 백은 50냥을 상으로 내려 그 의로움을 표창하였다. 장청은 예전의 본래 관직으로 복귀하였다. 아울러 세 사람에게 송강을 도와 회서를 토벌하되 공을 세우면 승진시켜 상을 주겠다고 명하였다.

도군황제의 칙령이 법사(法司)에 내려오자, 반역의 무리 전호, 전표(田豹), 전표(田彪)를 저잣거리 형장으로 끌어내 능지처참하게 하였다. 이때 경영은 부모의 작은 영정을 지니고 가서 감참관(監斬官)에게 아뢰니, 원수 구신과 어머니 송씨의 영정을 형장에 걸어두고 그 앞에 탁자를 하나 차려 놓았다. 오시 삼각(午時三刻)이 되어 전호가 칼을 받고 능지처참을 당하자, 경영은 전호의 머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를 뿌려 부모께 제사를 올리며 목 놓아 통곡하였다. 이때 경영의 사연은 이미 동경 시내에 두루 퍼져 있었기에, 그날 구경꾼이 담을 쌓은 듯 빼곡히 모여들었고, 경영이 비통하게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경영은 제사를 마친 뒤 장청, 엽청과 함께 대궐을 향해 절하며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였다. 세 사람은 동경을 떠나 곧장 완주로 향하여 송강을 도와 왕경을 토벌하러 갔으니, 더 말하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제 왕경이 어릴 때부터 자라기까지의 일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래 왕경은 동경 개봉부의 부배군(副排軍, 하급 군인)이었다. 그의 아버지 왕획(王晫)은 동경의 큰 부자였는데, 관아에 손을 써 소송을 부추기고, 악행을 일삼아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곤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한 발씩 양보하며 꺼렸다. 그러던 어느 날, 왕획은 한 풍수사를 믿게 되었는데, 그 풍수사가 어떤 음택(陰地)을 보고 "이곳에 묘를 쓰면 크게 귀해질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땅은 원래 왕획의 친척 집안이 묘를 썼던 곳이었는데, 왕획은 풍수사와 짜고 그 집안을 해치기로 계획했다. 왕획이 앞장서서 그 집안

을 거짓 고소장으로 무고했고, 수년간 이어진 소송에 그 집안의 재산이 모두 탕진되자, 결국 그 집안은 왕획을 당해내지 못하고 동경을 떠나 먼 곳으로 이주했다. 훗날 왕경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씨(왕경) 집안의 삼족이 모두 멸문지화를 당했으나, 오직 이 집안만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데다, 관청에서 조사해 보니 왕획에게 해를 입은 집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홀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왕획은 그 묘지를 빼앗아 자신의 부모를 묻었고, 그때 그의 아내는 임신하여 산달(만삭)에 이른 상태였다. 어느 날 밤, 왕획은 꿈을 꾸었는데 호랑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대청 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자 같은 짐승이 들이닥쳐 그 호랑이를 입에 물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마침 아내가 왕경을 낳았다.

왕경은 어려서부터 방탕하게 자랐다. 열여섯, 일곱 살쯤 되자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장사였는데, 공부는 뒷전이고 싸움닭을 키우거나 말을 달리는 데만 몰두하며 창술과 봉술을 익히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왕획 부부는 외아들인 왕경 하나만을 애지중지 키웠기에, 자식의 허물은 무조건 감싸주며 버릇없이 굴어도 눈감아주곤 했다. 그러니 왕경이 자라면서 어찌 통제가 되겠는가. 왕경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기생집에서 밤을 지새우며, 술을 마시는 데만 빠져 있었다. 왕획 부부가 때때로 훈계도 해보았으나, 왕경은 오히려 성질을 부리며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왕획은 어쩔 도리가 없어 그저 내버려 둘 뿐이었다.

그렇게 6~7년이 흘러 집안 재산을 모조리 탕진한 왕경은, 오로지 제 몸 하나의 재주만 믿고 본부의 부배군 자리에 들어갔다. 그는 수중에

돈만 생기면 패거리 형제들을 불러 모아 온종일 고기와 술을 잔뜩 차려 놓고 먹어댔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먹부터 휘둘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를 따르곤 했다.

어느 날, 왕경은 오경(새벽 5시경)에 관아에 들어가 아침 업무를 시작했다. 간사(幹辦, 하급 관리)로서 맡은 일을 다 마친 그는 한가로이 성 남쪽으로 걸어 나가 옥진포에 이르러 유람을 즐겼다. 이때는 휘종 정화 6년이였다. 한창 봄기운이 완연한 때라 나들이 나온 사람들은 개미 떼처럼 많았고, 말을 타고 다니는 군사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니, 그 풍경은 이러하였다.

상원에는 꽃이 피고 제방에는 버들이 잠들었으며, 나들이객 무리 속엔 아리따운 여인들도 섞여 있네. 금빛 굴레 쓴 말은 꽃밭에서 울음소리 높이고, 옥루의 사람들은 살구꽃 핀 봄날에 취해 있구나.

왕경은 홀로 한참을 한가롭게 놀다가, 연못가에 있는 수양버늘 나무에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고 앉았다. 아는 사람이라도 나타나면 함께 주막에 가서 술이라도 몇 잔 나누며 성안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못 북쪽에서 간사, 우후(虞候, 하급 무관), 하인, 유모 등 열댓 명이 한 무리를 지어 가마 한 채를 에워싸고 오는 것이 보였다. 가마 안에는 꽃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타고 있었다. 그 여인은 풍경을 구경하고 싶었는지 대나무 발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여색을 밝히는 왕경은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을 보자마자 났을 잃고 말았다. 그는 그 무리의 간사와 우후들이 추밀사 동관의 부하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왕경은 즉시 멀찍이서 가마를 뒤쫓았고, 그 무리를 따라 간악(艮嶽)에 이르렀다.

간악은 경성 동북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도군황제(道君皇帝, 황제를 높여 부르는 말)가 세운 곳으로 기이한 봉우리와 괴석, 오래된 나무와 진귀한 새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정자와 연못이 가득한 곳이었다. 바깥쪽은 금지된 구역인 금문(禁門)처럼 붉은 담장과 붉은 대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상금군(內相禁軍, 황제의 친위대)이 지키고 있어 일반인은 감히 문 앞까지 발을 들여놓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무리가 가마를 멈추자, 유모가 여인을 부축해 가마에서 내리게 했다. 여인은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며 곧장 간악의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지키던 금군 내시들도 길을 비켜주어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동관의 동생인 동세(童貰)의 딸이자 양전(楊戩)의 외손녀였다. 동관은 그녀를 친딸처럼 키우며 채유의 아들과 혼인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면 채경의 손주며느리가 되는 셈이었다. 그녀의 아명은 교수(嬌秀)로, 이제 막 열여섯 살이 된 꽃다운 나이였다. 교수는 동관에게 허락을 구한 뒤, 천자(황제)가 이사사(李師師)의 집에서 이틀간 즐겁게 노는 틈을 타 자신도 간악에 가서 구경하고 오려 하였다. 동관이 미리 금군과 일꾼들에게 일러두었기에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교수가 안으로 들어간 지 두 시진(時辰), 곧 네 시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왕경 그놈은 멍하니 밖에서 기다리다 배가 고파져 동쪽 거리의 주막으로 향했다. 그는 술과 고기를 사서 급히 예닐곱 잔을 들이켰다. 혹시나 여인이 떠나버려 계산할 겨를도 없을까 봐, 그는 전대 속에서 두 돈(二錢) 무게의 은자 한 덩이를 꺼내 점소이에게 던지며 말했다. "조금

있다 다시 와서 계산하겠네." 왕경이 다시 간악 앞으로 돌아와 잠시 기다리니, 마침 여인이 유모와 함께 사뿐한 걸음걸이로 간악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가마에 바로 올라타지 않고 간악 밖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왕경이 가까이 다가가 본 그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에 <혼강룡>이라는 사(詞)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풍요로운 자태에 빼어난 기품까지 갖췄으니,
어느 화려한 저택이 그대를 다 담을 수 있으랴?
앵두 같은 작은 입술에
가을 호수 같은 맑은 두 눈이 머무네.

어젯밤 맑게 뜬 초승달이 저토록 밝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 아침 이토록 애끓는 마음으로 소량주(小梁州)에 머물겠는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자태는 난초와 같고, 우아하고 고운 모습은 연꽃 소매처럼 향기가 날리는데, 두 사람의 마음은 달빛에 이끌리고 꽃갈고리에 걸린 듯 서로에게 빠져버렸구나.

왕경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의 힘이 풀려버렸다. 마치 눈사자가 불길을 만난 듯 순식간에 몸이 흐물흐물해질 정도였다. 인파 속에 있던 교수는 왕경의 얼굴을 슬쩍 훑쳐보았다. 봉황 같은 눈매와 그림처럼 짙은 눈썹, 가느다란 수염에 하얀 얼굴과 붉은 입술을 가진 사내였다. 이마는 평평하고 넓어 복이 가득해 보였으며, 키는 칠 척에 체격이 건장했다. 여인의 마음을 훑치는 법을 잘

알고 교태를 부리는 데 익숙해 보이는 그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조차 한없이 잘생기고 풍류가 넘쳐흘렀다.

교수 또한 왕경의 풍류 넘치는 모습을 한눈에 보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그때 마침 간판과 우후(虞候)가 나서서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고, 유모가 교수를 부축해 가마에 태웠다. 사람들이 그 뒤를 에워싸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다 보니 산조문 밖 악묘(嶽廟)에 이르러 향을 피우게 되었다. 왕경도 그 뒤를 따라 악묘로 들어갔으나, 인산인해라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사람들은 동관 추밀의 부하인 우후와 간판이 온 것을 보고 길을 터주었다. 교수가 가마에서 내려 향을 피우려 하자 왕경도 틈을 타 앞으로 다가갔으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수행원들이 호통을 칠까 두려웠던 그는 사당지기와 친한 척을 하며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면서도 두 눈은 쉴 새 없이 교수를 훑쳐보았고, 교수 또한 자꾸만 눈길을 돌려 그를 살폈다.

사실 채유의 아들은 태생적으로 어리석고 둔한 자였다. 교수는 집에서 중매쟁이들이 전하는 말이 사실임을 몇 번이나 듣고는 밤낮으로 억울해하며 원망해 왔는데, 오늘 왕경의 잘생기고 풍류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이 어린 계집아이의 마음에도 춘심(春心)이 일어버린 것이다.

한편, 동관 저택의 동우후(董虞候)는 이미 눈치를 채고서, 그가 배군(排軍) 왕경임을 알아보았다. 동우후는 왕경의 얼굴을 향해 손바닥으로 매섭게 후려치며 꾸짖었다. "네놈은 어느 집안의 권속을 넘보느냐! 개봉부의 일개 군졸 주제에 간도 크구나. 어찌 감히 여기서 사람들과

뒤섞여 비비고 있느냐! 내가 상공께 말씀드리면, 네놈의 그 당나귀 같은 대가리가 목 위에 성히 붙어 있지 못하리라!" 왕경은 감히 대꾸도 못하고 머리를 감싸 쥔 채 쥐새끼처럼 도망쳐 사당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침을 튕 뱉으며 내뱉었다. "제기랄! 내가 어찌 이리도 멍청했을까! 두꺼비 주제에 어찌 백조(고니) 고기를 먹으려 탐냈단 말인가!" 그날 밤 그는 억울함을 꺾 참은 채 부끄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교수는 집으로 돌아온 뒤 오히려 밤낮으로 왕경을 그리워했다. 심지어 시중드는 하녀에게 후하게 돈을 쥐여주며 동우후를 찾아가 왕경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시키기까지 했다. 그 하녀는 설(薛) 씨 할멈과 친분이 있었는데, 둘이 두쟁이 노릇을 하여 몰래 왕경을 뒷문으로 끌어들였고, 아무도 모르게 왕경과 교수를 맺어주었다. 왕경 그놈은 뜻밖의 횡재에 기뻐하며 온종일 술을 마셔댔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석 달이 지났다.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찾아온다고 했던가. 어느 날 왕경이 술에 만취해 진흙탕처럼 널브러져 있다가, 본부의 정배군(正排軍) 장빈 앞에서 그 행실이 탄로나고 말았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결국 동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동관은 크게 노하여 그에게 죄를 물어 내쫓을 궁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편, 왕경은 이 일이 발각되자 감히 다시는 동관의 저택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한가로이 앉아 있는데 마침 5월 하순이라 날씨가 무척 더웠다. 왕경은 마당 한가운데에 긴 걸상을 가져다 놓고 더위를 식히다가, 부채를 가지러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몸

을 일으키는데, 갑자기 그 걸상의 네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더니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왕경이 소리쳤다. "해괴한 일이다!" 그러고는 오른발을 번쩍 들어 걸상을 향해 냅다 걷어찼다.

왕경이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큰일 났네!"

차지 않았더라면 만사가 무사했겠지만, 한번 걷어차자 재앙이 곧바로 들이닥쳤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에는 아침저녁으로 화와 복이 있다는 격이라.

결국 왕경이 이 걸상을 걷어찼다가 어찌하여 이토록 비명을 지르게 되었는지는, 다음 회를 들어 풀어보시라.

제100회 — 왕경인이 간통으로 관재에 휘말리고, 공단이 매를 맞아 군사 범죄를 저지르다

王慶因姦喫官司 龔端被打師軍犯

이야기는 이러하다. 왕경은 의자가 말썽을 부리는 것이 못마땅해 발로 뺨 찼는데, 힘을 너무 세게 주는 바람에 그만 옆구리를 빼끗하고 말았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나 죽네! 죽겠어!" 하며 괴로워했다. 한참 동안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찢찢맸다.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밖으로 나와 보니, 의자는 옆으로 쓰러져 있고 남편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아내는 왕경의 뺨을 한 대 갈기며 말했다. "이 망할 양반아, 맨날 밖으로만 돌고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더니, 이제 겨우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무슨 난리예요?"

왕경이 말했다. "여보, 놀리지 말아요. 옆구리를 크게 빼끗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니까!"

아내는 왕경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왕경은 아내의 어깨에 팔을 걸친 채, 고개를 저으며 이를 악물고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아파라! 너무 아파!"

그러자 아내가 욕을 퍼부었다. "이 망할 인간아, 맨날 주먹질에 발길 질만 하더니, 결국 오늘 이 사달을 내는군요." 말을 내뱉고 보니 아내 스스로도 말이 좀 심했다 싶었는지, 비단 저고리 소매로 입을 가리고 쿡쿡 웃었다. 왕경은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아내가 "이 사달을 내다"라고 말한 게 웃겨서 참지 못하고 "하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는 다시 왕경의 뺨을 한 대 더 때리며 말했다. "이 망할 것아, 또 어디로 엉뚱한 판생각이 빠진 거예요?"

아내는 왕경을 부축해 침상에 눕히고는, 호두 알맹이를 한 접시 깨 놓고 따뜻한 술 한 병을 데워 왕경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문단속을 하고 모기를 쫓으며 휘장을 내린 뒤 남편 곁에서 잠을 청했다. 왕경은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몸을 조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밤새 별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도 왕경의 통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관아에 가서 대체 뭐라고 변명하고 대답해야 하나' 하는 걱정뿐이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아내가 고약을 사 오라고 재촉했다. 왕경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관아 앞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타박상 치료로 유명하며 북향으로 가게를 차려 고약을 파는 의원 전노아를 만나 고약 두 덩이를 사서 옆구리에 붙였다.

전노아가 말했다. "빨리 나으려면 피를 돌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을 두 첩은 달여 드셔야 합니다." 말을 마친 전노아는 즉시 약 두

첩을 챙겨 왕경에게 건넸다. 왕경은 주머니에서 은 한 덩이를 꺼냈다. 무게는 대략 두세 푼(分) 정도 되어 보였다. 그는 종이 한 장을 달라고 하여 은을 싸서 건넸다. 전노아는 은을 싸는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짐짓 모르는 체하며 고개를 동쪽으로 돌렸다.

왕경이 종이 꾸러미를 내밀며 말했다. "선생님, 보잘것없는 것이라 미안합니다만, 나중에 참외라도 한 통 사 드십시오."

전노아가 말했다. "여보게, 친구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건 안 될 말이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오른손은 이미 종이 꾸러미를 낚아채듯 받아 들었다. 그러고는 약 상자 뚜껑을 열어 그 꾸러미를 쓱 집어넣었다.

왕경은 약을 챙겨 들고 막 몸을 일으키려는데, 마침 관아 서쪽 거리에서 점술가 한 명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머리에 얇은 비단 수건을 두르고 갈포로 된 옷을 입었으며, 햇볕을 가리는 양산을 받쳐 들고 있었다. 양산 아래에는 종이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선천신수'라는 네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양옆에는 다음과 같은 작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다.

"형남의 이조가 점을 칩니다. 한 번에 십 문이며, 글자마다 정확하여 그 술법이 (삼국시대의 이름난 점술가) 관로(管輅)보다 뛰어납니다."

왕경은 점술가라는 것을 보고, 이미 교수와 얽힌 일로 마음이 무거운 데다 어제의 괴이한 일까지 겹친 터라 그를 불러 말했다. "이 선생, 이리 와서 앉으시오."

점술가가 말했다. "나으리, 무엇을 물으려 하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의 두 눈은 번뜩거리며 왕경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살이 훑어 내렸다.

왕경이 말했다. "점괘를 하나 보고 싶소."

이조는 양산을 접고 고약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와 전노아에게 포권하며 인사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삼베옷 소매 안에서 자단 나무로 만든 점괘 통을 꺼내 뚜껑을 열더니, 큼지막한 구리 동전 하나를 꺼내 왕경에게 건네며 말했다. "나으리께서는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 보십시오."

왕경은 점괘용 동전을 받아 들고,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다. 그런데 통증 때문에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해 마치 여든이나 아흔은 된 노인처럼, 허리를 곳곳이 편 채 반쯤 굽히고 반쯤 손을 들어 겨우 예를 갖춘 뒤 다시 똑바로 서서 기도를 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조가 전노아에게 나직이 속삭였다. "선생님의 고약을 썼으니 분명 금방 나을 겁니다. 어디 좀 세게 맞은 모양이군요."

전노아가 대답했다. "무슨 의자 따위가 말썽을 부렸는지, 발로 차다가 옆구리를 빼끗한 모양입니다. 방금 걸어올 때도 숨을 헐떡이기에 내 고약 두 덩이를 붙여주었더니, 이제야 겨우 허리를 좀 굽히는 것 같습니다."

이조가 말했다. "제 눈에는 어디 부딪혀서 다친 것처럼 보입니다만."

왕경은 기도를 마치고 이조에게 동전을 건넸다. 이조는 왕경의 이름을 묻은 뒤 점괘 통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날은 길하고 때는 좋으니, 천지가 활짝 열렸도다. 성인이 역서를 만드니, 그 오묘함이 신명과 통하도다. 만물을 포괄하고 건곤의 도를 합하였으니, 천지의 덕과 합하고 일월의 밝음과 합하며, 사계절의 질서와 합하고 귀신의 길흉과 합하도다. 이제 동경 개봉부의 왕 씨 성을 가진 군자가 하늘에 점을 청하노니, 갑인순 가운데 을묘일에 주역의 문왕선사, 귀곡의 선사, 원천강 선사께 간청하나이다. 지극히 신령하고 지극히 성스러우며 지극히 복되고 지극히 영험하시어, 의심스럽고 미망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과응보를 밝게 보여 주소서."

이조가 점괘 통을 두 번 흔들어 하나의 괘를 뽑아내더니, 그것이 수뢰둔괘임을 확인하고는 여섯 효의 움직임을 살핀 뒤 물었다. "나으리, 무엇을 점치려 하십니까?"

왕경이 말했다. "집안일을 물으려 하오."

이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으리, 소인이 직언을 하더라도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둔(屯)'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뜻하니, 곧 재앙이 닥칠 징조입니다! 몇 가지 예언이 있으니 나으리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이조는 대나무 살로 만든 접이식 기름종이 부채를 흔들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집안은 어지러이 뒤섞이고, 온갖 괴이한 일이 생겨 재앙이 닥치니 집안이 편안할 날 없으리라. 오래된 사당이 아니면 위태로운 다리라. 백호의 흉한 기운이 들이닥쳐 관청의 병을 겪으리니.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으니 어찌 구제받으랴, 귀한 자를 만나도 흉한 일과 소송에 휘말리리라. 식구들은 불안하여 발을 헛디디고, 사지는 기운이 없어 절뚝거리게 되리라.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아야 시비가 사라지리니, 호랑이·용·닭·개·의 날을 만나면 수많은 번뇌와 화근이 몰려오리라."

왕경은 그 자리에서 이조를 마주 보고 앉았다. 이조가 흔들어대는 기름종이 부채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겨와, 왕경은 검은 비단 저고리 소매로 코를 막은 채 그의 말을 경청했다.

이조가 읊조림을 마치고 왕경에게 말했다. "소인이 이치에 따라 직언을 올리자면, 집안에 또 다른 괴이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거처를 옮겨야만 비로소 무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병진일이니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왕경은 점괘가 너무나 흉악한 것을 보고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돈을 꺼내 이조에게 사례했다. 이조는 약방을 나와 양산을 받쳐 들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때 관아의 공인과 아전 대여섯 명이 왕경을 보고는 말했다. "어찌하여 여기서 한가하게 빈둥거리고 계십니까?"

왕경이 어제 겪은 괴이하고 불운한 일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왕경이 말했다. "여러분, 혹시 부운 나으리께서 몰으신다면, 형제처럼 서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모두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각자 흩어졌다.

왕경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약을 달이라고 일렀다. 왕경은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 시진(약 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약 두 첩을 다 먹어 치웠다. 또한 약효가 잘 돌기를 바라는 마음에 술도 몇 잔 들이켰다. 그런데 그 약들이 피를 돌게 하는 성질은커녕 모두 뜨거운 성질의 약이었던 탓인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자 아내가 곁에서 몸을 비비며 만져대니 욕정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다만 허리가 아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내는 왕경이 교수와 눈이 맞아 밤낮으로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오랫동안 욕구를 채우지 못해 마음이 타들어 가던 차였다. 아내가 어찌 그를 그냥 두겠는가. 아내는 왕경의 몸 위로 올라타 마치 '세류영을 뒤엎듯' 격렬하게 몸을 섞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진시(오전 7~9시)가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세수를 마친 왕경은 배가 출출하여 술을 조금 데워 마셨다. 아침 식사를 채 마치기도 전이었는데,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배(왕경)가 집에 있는가?"

아내가 벽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관아 사람들이 왔어요."

왕경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입을 닦으며 밖으로 나가 손을 모아 쥐고 물었다. "두 분께서 어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공인이 말했다. "도배께서 정말 호강을 하시는군요! 이른 아침부터 얼굴에 생기가 아주 넘치십니다! 오늘 아침 태야(부운)께서 명단을 점검하시는데 도배가 없자 크게 노하셨습니다. 저희가 형제처럼 도배

가 겪은 괴이한 일을 대신 설명해 드렸지만, 태야께서 어찌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침(명령장)을 하나 뽑아 저희 두 사람을 보내 도배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침을 왕경에게 보여주었다. 왕경이 말했다. "지금 얼굴이 이렇게 붉게 달아올랐는데 어찌 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 공인이 말했다.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태야께서는 즉시 대답을 원하십니다. 늦게 가면 저희가 매를 맞게 되니, 어서 갑시다! 어서요!"

두 사람은 왕경을 부축해 서둘러 길을 나섰다. 왕경의 아내가 황급히 나와 물었을 때는 이미 남편이 집을 떠난 뒤였다.

두 공인이 왕경을 부축하여 개봉부로 들어서니, 부윤은 대당 한가운데 호랑이 가죽을 씌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공인이 왕경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 보고했다. "나으리의 명을 받들어, 왕경을 데려왔습니다." 왕경은 억지로 위를 향해 머리를 네 번 조아렸다.

부윤이 꾸짖었다. "왕경, 너는 군졸인 주제에 어찌 그리 게으름을 피우며 모시러 오지 않았느냐?"

왕경은 다시 그 괴이하고 불운했던 일을 상세히 아뢰며 말했다. "실은 옆구리가 너무 아파 앉아 있지도 눕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정도라, 결코 게으름을 피우려 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나으리께서 헤량하여 주십시오."

부윤은 그 말을 듣고도 왕경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는 크게 노하여 외쳤다. "이놈이 술만 마셔대며 법도에 어긋난 짓을 일삼더니, 오늘은 요사스러운 말까지 지어내어 상관을 속이려 드는구나!" 그러고는 당장 끌어내어 매질하라고 명령했다.

왕경이 어찌 변명할 수 있겠는가. 결국 왕경은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흐를 정도로 호되게 매를 맞았다. 부윤은 왕경에게 요사스러운 책을 조작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하고 불순한 꾀를 꾸몄다는 죄를 자백하라고 몰아붙였다. 왕경은 어젯밤 아내에게 기력을 다 빠리고, 오늘 관아에서 매질까지 당하니 그야말로 양쪽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히는 듯한 험공의 고통이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매질을 견딜 재간이 없었기에, 결국 억지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부윤은 왕경의 자백을 기록하게 한 뒤, 금자(관아의 포졸)들에게 명하여 왕경에게 형구와 칼(枷)을 채워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 옥에 가두라고 했다. 요사스러운 책을 조작하고 불순한 꾀를 꾸민 사형 죄목을 물을 요량이었다. 금자들은 왕경을 짊어지고 매질하며 옥으로 끌고 들어갔다.

알고 보니 동관이 몰래 사람을 보내 부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부윤이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어 그를 처벌하려던 차에, 마침 이런 괴이한 사건이 터진 것이었다. 당시 관아의 상하 관리들 중 교수와 관련된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모두가 입을 모아 떠들어댔다. "왕경이 그 일로 죄를 지었으니, 이제 분명 목숨을 부지하기는 어렵겠구나."

한편, 채경과 채유 부자는 이 소문이 자기들의 귀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 부자는 상의 끝에, 만약 왕경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이 일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추문이 널리 퍼질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윤과 친분이 있는 심복 관리들을 몰래 불러, 왕경을 멀리 떨어진 험한 군주(군사 행정 구역)로 유배 보내어 사건의 흔적을 지워버리라고 일렀다.

채경과 채유는 날을 잡아 교수를 채유의 아들에게 시집보내 혼인을 치렀다. 이는 첫째로 동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사람들의 입방아를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채유의 아들이 워낙 어리석은 자라, 교수가 처녀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했으나, 이 또한 더 말할 것이 없다.

한편, 개봉부 부윤은 채 태사의 심복이 전한 밀지를 받들고 즉시 집무실로 올라갔다. 그날은 마침 신유일이었다. 부윤은 옥에서 왕경을 끌어내게 한 뒤, 채워져 있던 긴 칼(長枷)을 벗기고 척장(脊杖) 스무대를 치게 했다. 이어 문필장(글씨 쓰는 기술자)을 불러 그의 뺨에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게 한 뒤, 거리를 계산하여 그를 서경 관할의 섬주(陝州) 뇌성으로 유배 보내기로 결정했다. 부윤은 대당에서 십 근 반(十斤半) 무게의, 단두(團頭)가 달린 철엽호신가(鐵葉護身枷, 몸을 보호하는 철판이 달린 형구)를 채워 못질하게 하고, 봉인지를 붙였다. 그리고 압송 공문(牒文) 한 통에 서명한 뒤, 손림과 하길이라는 두 명의 방송공인(防送公人, 죄수를 압송하는 관리)을 붙여 그를 감시하며 압송하게 했다.

세 사람은 개봉부를 나와, 왕경의 장인인 우대호가 마중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왕경, 손림, 하길과 함께 관아 앞 남가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대호가 주모를 불러 술과 고기를 가져오게 한 뒤, 몇 잔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 그리고 나서 우대호는 품 안에서 은전 한 꾸러미를 꺼내 왕경에게 건네며 말했다.

"여기 은자 서른 냥이니, 가는 길에 쓰게나."

왕경이 손을 뻗어 받으려 하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그러자 우대호가 왕경의 손을 밀어내며 말했다.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평소 같으면 은자 따위는 주지도 않았을 것이네. 그런데 자네는 이제 섬주로 유배를 가는데, 거리가 천여 리나 되는 먼 길이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 않은가? 남의 집 딸을 희롱해 놓고 정작 제 처는 돌보지 않으니, 자네가 없는 동안 내 딸은 누가 거두겠는가? 게다가 자식 하나 없으니 전답과 가산을 지킬 사람도 없지 않은가. 그러니 반드시 휴서를 한 장 써주게. 자네가 떠난 뒤에 내 딸이 재가하더라도 나중에 아무런 분쟁이 없도록 말일세. 그래야만 이 돈을 주겠네."

평소 돈을 꽤 쓰던 왕경은 생각에 잠겼다. '주머니에 은자 열 냥 반도 없는데, 이 먼 섬주까지 어떻게 가란 말인가?' 이리저리 계산해 보아도 그 돈이 없으면 갈 길이 막막했다. 왕경은 한숨을 두 번 내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휴서를 쓰지요."

우대호는 한 손으로는 종이를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은자를 건네준 뒤 곧장 돌아갔다.

왕경은 두 공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우대호가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였고, 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왕경은 이웃집에서 도끼와 정을 빌려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아내가 입던 옷이며 머리에 꽂았던 장신구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리고 없었다. 왕경은 화가 치밀면서도 처량한 마음이 들었다. 왕경은 옆집의 주 노파에게 부탁하여 집으로 불러 술과 음식을 좀 차리게 한 뒤, 그것을 공인들에게 대접했다. 그리고는 은자 열 냇을 손림과 하길에게 건네며 말했다.

"소인이 매 맞은 곳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며칠만 쉬었다가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손림과 하길은 돈을 받고는 그러마고 응낙했지만, 채유 쪽에서 심복을 보내 공인들에게 어서 출발하라 재촉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왕경은 남은 살림살이를 되는데로 헐값에 팔아치우고, 호 원외의 집에 빌려 쓰던 셋집도 돌려주었다.

이때 왕경의 아버지 왕획은 아들 때문에 눈이 멀어 다른 곳에 따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때리거나 욕을 퍼붓곤 했다. 그러다 오늘 아들이 관아에 끌려가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에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왕경의 방으로 걸어 들어와 외쳤다.

"아들아,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구나!"

말을 마친 그의 눈먼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왕경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왕획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으나,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 가족이 흩어지는 이 처량한 상황에 맞닥뜨리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와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억울한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우대호 그 노인이 예의도 없이 저더러 아내와 헤어지겠다는 휴서를 쓰라고 협박한 뒤에야 은자를 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왕획이 말했다.

"너는 평소에 아내를 아끼고 장인에게 효도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어찌 너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나?"

왕경은 이 따가운 말에 화가 치밀어 아버지를 상대하지 않고, 그대로 두 공인을 따라 성 밖으로 떠나버렸다. 왕획은 발을 구르며 가슴을 쳤다.

"내가 저 불효자식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고는 다시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갔다.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한편, 왕경은 손림, 하길과 함께 동경을 떠났다. 그들은 한적한 곳을 빌려 열흘 남짓 머물며 상처를 다스렸고, 매 맞은 자리가 조금 나아지자 공인들의 재촉에 따라 길을 떠나 섬주로 향했다. 때는 마침 6월 초

순이라 날씨가 무척 더웠다. 하루에 겨우 마흔에서 쉰 리 정도를 걸을 수 있을 뿐이었고, 길 위에서는 잠자리가 불편해 깊이 잠들기도 어려웠으며 뜨거운 국물 음식도 넘기기 힘들었다. 세 사람이 길을 떠난 지 십 오육 일이 지나 승산을 넘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손림이 손으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산은 북망산이라고 하는데, 서경 관할 구역이라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늘한 기운이 돌 때까지 걷기를 스무여 리쯤 했다. 북망산 동쪽을 보니 어느 시장 마을이 보였는데, 사방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시장 동쪽의 인가가 드문 곳에 '丁'자 모양으로 커다란 측백나무 세 그루가 늘어서 있었다. 나무 아래는 그늘이 저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한 사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사내는 상체를 드러낸 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기합을 넣고 있었다.

세 사람이 더위를 식히러 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왕경은 땀을 비 오듯 흘려 온몸이 젖은 채, 목에 죄수용 칼(護身枷)을 쓴 상태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그는 까치발을 들고 그 사내가 몽둥이를 휘두르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한참을 지켜보던 왕경이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저 사내가 휘두르는 건 꽃몽둥이(花棒)로군."

한창 기세를 올리던 사내가 이 말을 듣고 몽둥이를 거두며 돌아보았다. 그는 바로 배군(配軍, 유배된 죄수병)이었다. 사내가 크게 노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 배군 놈이! 내 창봉술은 근방에 이름이 자자하거늘, 감히 그 주둥이를 놀려 내 몽둥이를 비웃다니! 어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작 그것뿐이냐!"

사내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며 왕경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 사내 둘이 나타나 가로막으며 말했다.

"손을 쓰지 마시오!"

그러고는 왕경에게 물었다.

"귀하께서는 분명 고수이신 모양이구려."

왕경이 대답했다.

"아니오, 괜히 그 사내의 화를 돋웠을 뿐입니다. 저도 창봉술을 조금 알 뿐입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던 사내가 다시 욕을 하며 소리쳤다.

"이 배군 놈아, 감히 나와 겨루어 보겠다는 말이냐?"

두 사내가 왕경에게 말했다.

"저 사내와 몽둥이 시합을 해 보시오. 만약 이긴다면 여기 모인 돈이 관(貫)을 모두 귀하께 드리겠소."

왕경이 웃으며 말했다.

"그 정도라면 해보겠습니다."

왕경은 사람들을 물리고 하길에게서 몽둥이 하나를 빌려왔다. 땀에 젖은 윗옷을 벗고 치마를 걷어붙인 뒤 몽둥이를 손에 쥐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목에 칼을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몽둥이를 휘두르겠소?"

왕경이 대답했다.

"그게 바로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 칼을 쓴 채로 이겨야 진짜 실력이라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일제히 외쳤다.

"만약 칼을 쓰고도 이긴다면, 이 이 관은 반드시 귀하에게 드리겠소!"

사람들이 길을 터주어 왕경이 들어갈 수 있게 했다. 몽둥이를 든 사내도 몽둥이를 잡고 자세를 잡으며 기합을 넣었다.

"자, 오너라! 어서 와라!"

왕경이 말했다.

"여러분, 부디 저를 비웃지 마십시오."

사내는 왕경이 목에 칼을 쓰고 있어 움직임이 불편한 것을 이용해, '구렁이가 코끼리를 삼키는 형세(蟒蛇吞象勢)'라는 초식을 펼치며 몰아붙였다. 왕경 역시 '잠자리가 물 위를 스치는 형세(蜻蜓點水勢)'라는 초식으로 맞섰다. 사내가 크게 기합을 넣으며 몽둥이로 덮쳐오자, 왕경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사내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몽둥이를 높이 들어 왕경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쳤다. 왕경이 몸을 왼쪽으로 휩 피하자, 사내의 몽둥이는 허공을 갈랐고 사내는 미처 몽둥이를 거두지도 못했다. 그 찰나에 왕경은 피한 기세를 몰아 사내의 오른손을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다. 정확히 오른쪽 손목을 타격하자 사내의 몽둥이가 힘없이 떨어졌다. 다행히 힘을 조절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손목이 부러졌을 판이었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왕경은 앞으로 나아가 사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례를 범했으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사내는 오른손이 아픈 듯 왼손을 뻗어 이 관을 가져가려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떠들어댔다.

"저놈의 실력이 형편없구먼! 아까 말했듯이, 이 돈은 당연히 시합에서 이긴 자의 것이어야지!"

그때 아까 앞장섰던 두 사내가 쥘쥘하게 사내의 손에서 이 관을 낚아채더니 왕경에게 말했다.

"귀하, 저희 장원으로 오셔서 함께 나누어 가집시다."

몽둥이를 휘두르던 사내는 사람들의 성화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결국 사내는 짐을 챙겨 들고는 마을 쪽으로 올라가 버렸다. 구경꾼들도 모두 흩어졌다.

두 사내는 왕경을 정중히 모시고, 두 공인과 함께 모두 샷갓을 눌러 쓴 채 남쪽으로 숲 두세 개를 지나 어느 마을에 다다랐다. 숲속에는 커다란 장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방이 흙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담장을 따라 커다란 버드나무 이삼백 그루가 늘어서 있었다. 장원 밖에서는 매미가 버드나무에서 울어대고, 장원 안에서는 제비가 서까래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두 사내는 왕경 일행 세 사람을 장원으로 안내하여 초당으로 들였다. 서로 예를 갖춘 뒤, 각자 땀에 젖은 옷과 삼베 신을 벗고 주인과 손님의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장주가 물었다.

"여러분 모두 동경(개봉부) 사람 같은 말투를 쓰시는구려."

왕경은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부윤에게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된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마친 왕경이 두 사람의 성함을 여쭙니, 두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대답했다.

"제 성은 공(龔)이고 이름은 단(端)이라 합니다. 이쪽은 제 아우 정(正)이고요. 저희 조상 대대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기에 이곳을 공가촌이라 부릅니다. 여기는 서경 신안현 관할 구역입니다."

말을 마친 공단은 하인에게 시켜 세 사람의 땀에 젖은 옷을 빨도록 하고, 먼저 시원한 물을 떠다 갈증을 풀게 한 뒤 상방(上房, 안채)으로 안내하여 씻게 했다. 그리고 나서 초당에 상을 차려내어 먼저 준비된 다과를 먹게 한 뒤, 닭과 오리를 잡고 콩을 삶고 복숭아를 따서 술과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다. 하인은 상을 다시 차리며 먼저 껌질을 벗긴 마늘 한 접시와 찢어놓은 파 한 접시를 내온 뒤, 채소와 과일, 생선과 고기, 닭과 오리 등을 차례로 내왔다.

공단은 왕경을 상석에 앉혔고, 두 공인은 차례로 앉았다. 공단과 그의 아우는 아래쪽에 앉아 술상을 준비하고 하인은 술을 따랐다. 왕경이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소인은 죄를 지어 유배 가는 죄인일 뿐인데, 두 분께서 이토록 과하게 대접해 주시니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공단이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누군들 아무 탈 없이 살리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길을 떠나면서 술과 음식을 제 손으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즉석에서 주사위 놀이를 하며 흥을 돋웠고, 술기운이 적당히 올랐을 때 공단이 입을 열었다.

"저희 마을은 앞뒤 좌우로 이백여 가구가 있는데, 다들 저와 제 아우를 우두머리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도 권법과 몽둥이술을 조금 할 줄 알아 사람들을 다스려 왔지요. 그런데 지난 봄 이월에 동쪽 마을에

서 신을 모시는 축제가 열려 무대를 세우고 연극을 하기에 저희 형제도 구경을 갔습니다. 거기서 황달이라는 자와 도박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놈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저희 형제 둘이 덤벼도 그놈을 당해낼 수가 없더군요. 황달 그놈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힘이 세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저희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참고 지낼 뿐입니다. 방금 귀하께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솜씨가 매우 정교하고 빈틈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형제는 귀하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으니, 부디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반드시 두둑이 보답하겠습니다."

왕경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으나, 한차례 겸손하게 사양했다. 그러자 공단과 그의 아우는 즉시 왕경을 스승으로 모시며 절을 올렸다. 그날 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며 취기가 한껏 오른 뒤에야 더위를 식히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왕경은 이른 아침의 서늘한 기운을 빌려 타작마당에서 공단에게 권법과 발차기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한 사내가 뒷짐을 진 채 느릿느릿 걸어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꾸짖었다.

"어디서 온 배군(유배된 죄수병) 따위가 감히 여기까지 와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냐?"

그런데 이 사내가 나타난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왕경에게는 커다란 화근이 될 징조였고, 공단에게는 깊은 원한을 맺게 될 사건이었다. 참으로 화는 방탕한 행동에서 일어나고, 욕됨은 도박으로 인해 불러들이는 법이다.

결국 공단의 장원으로 들이닥친 이 사내는 과연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장 관영이 첩의 동생 때문에 목숨을 잃고, 범절급이 사촌 형의 얼굴을 고쳐주다

張管營因妾弟喪身 范節級為表兄醫臉

이야기는 이러하다. 왕경은 공가촌 공단의 집 마당에서 해가 막 떠오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아침, 보리 타작마당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공단 형제에게 권법과 발차기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두건도 쓰지 않은 맨머리에 머리카락을 상투처럼 틀어 올렸고, 뇌주(雷州) 지방의 고운 갈포(葛布)로 만든 짧은 저고리에 얇은 사(紗) 치마를 두르고 짚신을 끌고 있었다. 손에는 세모난 부들부채를 들고는, 턱을 치켜들고 뒷집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오더니, 배군인 왕경이 권법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어제 망동진에 창봉을 잘 쓰는 배군이 하나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공단 형제가 그 기술을 배워 (자신이 더는 휘어잡지 못할

까) 봐 겁이 났다. 그래서 왕경을 향해 이렇게 욕을 퍼부었다. “이 죄인놈아, 길에서 빠져나와 여기까지 와서 남의 집 자제들을 속이고 있느냐?”

왕경은 그저 공씨 집안 친척인 줄로만 알고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사실 이 사람은 동촌의 황달이었다. 그 역시 이른 아침 바람을 쐬러 공가촌 서쪽 끝에 사는 유대랑에게 도박 빚을 받으러 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공단네 마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평소 공단 형제를 괴롭히던 버릇대로 앞뒤 재지 않고 불쑥 들어온 것이었다.

공단은 황달을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짐승만도 못한 도둑놈아! 옛그제는 내 도박 돈을 떼먹더니, 오늘은 아예 내놓고 남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구나!”

황달은 크게 화가 나서 맞받아쳤다. “이런 빌어먹을 놈!” 그는 들고 있던 부채를 내던지고 주먹을 치켜든 채 달려들어 공단의 얼굴을 후려치려 했다.

왕경은 두 사람이 서로 욕설을 내뱉는 것을 듣고 황달임을 짐작했다. 그는 짐짓 말리는 척 다가가, 자신이 쓰고 있던 칼(행가)로 황달의 팔을 후려쳤다. 황달은 중심을 잃고 발이 하늘로 향하도록 꼴사납게 나자빠져 일어나지도 못했다. 그 틈에 공단과 공정, 그리고 두 명의 하인이 일제히 달려들어 황달을 눌러버렸다. 그들은 주먹과 발길질로 황달의 등, 가슴, 어깨, 옆구리, 팔, 뺨, 이마, 그리고 사지까지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두들겨 팼다. 오직 허끝만 겨우 성할 정도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황달을 셀 수 없이 두들겨 패는 바람에, 그가 입고 있던 갈포 저고리와 사 치마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황달은 매를 맞으면서도 “잘한다! 아주 잘한다!”라고 외쳐댔다. 결국 그는 몸에 실 한 오라기 걸치지 못한 알몸이 되었다. 그제야 호송 공인인 손림과 하길이 몇 번이고 말린 뒤에야 공단 일행은 손을 멈췄다.

황달은 만신창이가 되어 땅바닥에 쓰러져 혈떡거릴 뿐, 도저히 몸을 가누지 못했다. 공단은 하인 서너 명을 시켜 황달을 떠메다가 동촌으로 가는 길목의 풀밭에 내팽개쳐 두니,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반나절이나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러다 황달네 쪽 이웃 농가 사람들이 풀을 베러 나왔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부축해 집으로 데려가 침상에 눕혀 쉬게 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소장(狀詞)을 써서 신안현에 제출해 상해 사실을 고발(報稟)하게 했으니, 이는 더 말하지 않는다.

한편, 공단 일행은 아침부터 한바탕 소동을 피운 뒤, 하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가져오게 하여 왕경 일행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했다.

왕경이 말했다. “저놈이 나중에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자 공단이 말했다. “저 도둑놈은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집에는 아내 하나뿐인 놈입니다. 이웃 사람들도 그저 저놈의 완력이 두려워 참아왔을 뿐인데, 오늘 저놈이 저렇게 얻어맞는 걸 보았으니 분명 그를 위해 힘을 보태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그놈이 죽기라도 한다면 하인 하나를 내주어 목숨을 갚게 하고, 그래서 관아에 불려가 재판을 받는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죽지 않는다면 그저 서로 치고받

고 싸운 정도의 송사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은 모두 스승님께서 복수를 해주신 덕분이니, 우선 술 한 잔 시원하게 드시고 마음 놓고 여기 계십시오. 스승님께서 창봉과 권법을 저희 형제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다면, 반드시 그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각각 무게가 다섯 냥씩 되는 은자 두 덩이를 꺼냈다. 그는 공인들에게 이 돈을 건네며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다. 손림과 하길은 돈을 받은 뒤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이후 열흘 남짓 머물며 창봉과 권법의 요령을 공단과 공정에게 남김 없이 전수했다. 그러다 공인들이 재촉하며 일어날 때가 되었고, 황달이 현청에 고발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공단은 은자 쉼냥을 꺼내 왕경에게 건네며 섬주에 가서 쓰라고 했다. 왕경은 한밤중에 일어나 짐을 꾸려 날이 밝기도 전에 마을을 떠났다. 공단은 형제를 시켜 은자를 얼마간 챙겨 와 배웅까지 하게 했다. 길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고, 하루도 안 되어 왕경은 섬주에 도착했다.

손림과 하길은 왕경을 데리고 주 관아로 가서 대청에서 개봉부에서 내려온 문서를 제출했다. 주윤(州尹)이 내용을 확인하고 왕경을 받아들인 뒤, 회답 문서를 받아 공인들에게 돌려보내니 더 말할 것이 없었다. 주윤은 즉시 왕경을 그곳 뇌성영(牢城營)으로 보내라고 명령했고, 공인들이 인계하고 보고를 마쳤으니 이 또한 더 말할 것이 없었다.

그사이 공정은 아는 사람을 찾아가 그 은자를 가지고, 왕경을 위해 관영(管營)과 차발(差撥)에게 위아래로 두루 손을 써(뇌물을 바쳐)두었다. 그 관영은 성이 장(張)이요, 이름은 두 글자로 세개(世開)였는

데, 공정의 뇌물을 받고는 왕경에게 씌워져 있던 행가(行枷)를 벗겨 주었다. 또한 살위봉(殺威棒)도 치지 않았고, 굶은일을 시키지도 않았으며, 그저 왕경을 혼자 쓰는 방에 배정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게 해주었다.

어느덧 두 달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왕경이 홀로 쓰는 방에서 한가로이 앉아 있는데 한 군졸이 다가와 말했다. “관영 상공께서 너를 부르신다.”

왕경은 군졸을 따라 점시청(點視廳, 검열하는 곳)으로 가서 머리를 조아렸다. 관영 장세개가 말했다. “네가 여기 온 지 꽤 되었는데 아직 시킨 일도 없구나. 내가 진주에서 건너온 좋은 각궁(角弓)을 하나 사고 싶다. 진주는 도성(개봉부) 관할이니 너도 도성 사람으로서 그 값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알 것 아니냐.”

말을 마친 장세개는 소매 속에서 종이 꾸러미 하나를 꺼내더니 왕경에게 직접 건네며 말했다. “은자 두 냥이다. 가서 사 오고 보고하거라.”

왕경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은자를 받아 방으로 돌아왔다. 종이 꾸러미를 풀어보니 은자는 정말 깨끗한 은덩어리였고, 저울에 달아보니 오히려 무게가 서너 분(分)이나 더 나갔다.

왕경은 관영을 나와 부(府) 북쪽 저잣거리에 있는 활 가게로 갔다. 그는 은자 한 냥 일곱 돈을 주고 진짜 진주 각궁 한 장을 샀다. 활을 가지고 돌아오니 장세개는 이미 대청에 없었다. 왕경은 관영의 안채에서 시종드는 심부름꾼에게 활을 전달하게 했는데, 덕분에 은자 세 돈을 남길 수 있었다.

다음 날, 장세개가 다시 왕경을 점시청으로 불러 말했다. “일을 아주 잘 해냈구나. 어제 산 각궁이 아주 좋다.”

왕경이 말했다. “상공, 활통에 불을 지퍼 끊임없이 쬔어 주어야 활이 더 좋아집니다.”

장세개가 말했다. “그건 나도 안다.”

그 뒤로 장세개는 매일 왕경을 시켜 먹을거리와 필요한 물건들을 사 오게 했다. 하지만 처음처럼 은자를 넉넉히 주는 법이 없었다. 대신 장부 하나를 건네주며 매일 사는 물건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시켰다. 하지만 저잣거리 가게 주인들 중 어느 누가 단돈 반 문(文)이라도 외상으로 주려 하겠는가? 왕경은 결국 자기 돈을 꺼내 물건을 사서 관아에 갖다 바칠 수밖에 없었다. 장세개는 물건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거나 욕을 하며 몰아세웠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 장부를 바치며 물건값을 달라고 청해도, 장세개는 눈곱만큼의 돈도 내주지 않았다. 이런 일이 한 달 넘게 이어지자, 장세개에게 다섯 대, 열 대, 스무 대, 서른 대씩 맞으며 왕경이 맞은 매가 앞뒤로 모두 삼백 대를 넘어가게 되었다. 결국 왕경은 두 다리가 다 짓이겨졌고, 공단이 보내주었던 은자 쉼냥도 물건값을 치르고 매를 맞는데 다 써버려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왕경은 관영 서쪽 무공패방(武功牌坊) 동쪽 끝에 있는 약방을 찾아갔다. 그곳은 알약과 환약을 만들고 내외과 진료를 하며, 약재를 달이거나 매 맞은 상처에 바르는 고약을 파는 장 의사의 약방이었다. 왕경은 고약 몇 장을 사서 매 맞은 상처에 붙였다.

장 의사는 왕경의 상처에 고약을 붙여주며 한마디 덧붙였다. “장 관영의 처남(舅爺)뻘 되는 방 대랑(龐大郎)이라는 사람이 엇그제도 여기서 고약을 사 가더니 오른쪽 손목에 붙이더군. 망동진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하던데, 내가 보기엔 어디 맞아서 다친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들은 왕경이 급히 물었다. “제가 관영 안에 있는데, 어찌 그분을 한 번도 뵈지 못했습니까?”

장 의사가 대답했다. “그분은 장 관영의 작은 부인과 친남매 사이인데, 이름에 ‘원(元)’ 자를 쓰네. 그 방 부인이 장 관영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방 대랑이라는 친구는 도박을 좋아하고 창봉 무예를 부리는 걸 즐긴다네. 다행히 누이가 있어서 늘 뒤를 봐주고 있지.”

왕경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엇그제 측백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때려눕혔던 그놈이 분명 방원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과연 장세개가 까닭을 만들어 나를 괴롭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다.

왕경은 장 의사와 작별하고 관영으로 돌아와, 관영의 측근 심부름꾼(小廝)에게 술과 고기를 사 대접하고 돈까지 쥐여주며 방원에 대해 은밀히 자세히 물었다. 그 심부름꾼의 말은 앞서 장 의사가 한 말과 같았으나, 좀 더 상세한 두어 마디가 덧붙여졌다.

“그 방원이라는 자가 엇그제 망동진에서 당신에게 맞아 크게 다친 뒤로, 관영 상공 앞에서 매일같이 당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무서운 매질을 끝내 면치 못할 것 같군요!”

정히 이러하니:

이기기를 탐하고 강함을 뿜내는 것은 재앙의 씨앗이니,
겸손히 화합하며 제 분수를 지키면 재앙이 없으리라.
단 한 번의 몽둥이질로 원한의 골이 깊어졌으니,
이제 그 대가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구나.

왕경은 소사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다 듣고는, 방으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관아의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관리의 횡포가 더 무섭구나. 엇그제 무심코 그놈을 건드려 매질을 이겨냈더니, 그놈이 관영이 가장 아끼는 사람의 형제일 줄이야. 만약 그가 나를 정말로 죽이려 든다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도망쳐서 다시 살길을 찾아야겠다.”

그러고는 남모르게 저잣거리에 나가 급할 때 쓸 수 있는 날카로운 단도 한 자루를 사서 몸에 숨겨두었다.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또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다행히 장세개가 더는 그를 불러내지 않았고, 매 맞은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세개가 또 그를 불러 비단 두 필을 사 오라고 시켰다. 왕경은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하여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고, 서둘러 가게로 달려가 비단을 사서 관영으로 돌아왔다. 장세개는 점시정(點視廳)에 앉아 있었고, 왕경은 그 앞으로 가서 보고했다.

장세개는 비단의 색깔이 좋지 않고, 길이도 짧으며, 무늬까지 낡았다며 왕경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 대담한 놈! 너는 죄수 신분이라 마땅히 물을 길어 나르거나 돌을 나르고, 아니면 굶은 쇠사슬에 묶여 있

어야 할 놈이다. 오늘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너를 크게 대접해 주는 것인데, 이 도둑놈 같은 녀석이 도통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왕경은 그 호통에 말문이 막혀, 촛대를 꺾듯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을 봐달라고 빌었다. 장세개가 소리쳤다. “우선 매질은 외상으로 달아두마! 그러니 속히 좋은 비단으로 바꿔 오너라. 오늘 밤까지 답을 가져오라 했으니, 조금이라도 늦으면 네놈의 그 천한 목숨이 어찌 될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왕경은 어쩔 수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전당포(解庫)에 잡히고 돈 두 관(貫)을 빌린 뒤, 돈을 더 얹어 좋은 비단으로 바꾸어 안고 돌아왔다. 먼 길을 다녀오느라 이미 등불이 켜진 밤이었는데, 관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당직을 서던 군사가 말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책임 지겠다고 너를 들여보내 주겠느냐?”

왕경이 간곡히 설명했다. “장 관영 상공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하지만 당직 군사가 들을 리 있겠는가? 왕경은 남은 돈을 당직 군사에게 찢어주고 나서야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시달려야 했다. 비단 두 필을 받쳐 들고 내택(內宅) 문 앞까지 갔더니, 문을 지키던 이가 말했다. “관영 상공께서는 큰 부인과 다투시고 뒤풀이에 있는 작은 부인 방으로 가셨네. 큰 부인의 성깔이 워낙 무서워서, 누가 감히 자네 말을 전했다가 화를 자초하겠나?”

왕경은 생각했다. ‘오늘 밤까지 답을 가져오라 명해놓고 어찌 이리 나를 가로막는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나를 해치려는 속셈이로구나.’

내일 닥쳐올 매질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내 목숨은 필시 저 도둑놈 같은 놈의 손에 끊어지겠구나. 이미 그놈에게 매를 삼백 대 넘게 맞았으니 그 한 대의 원한을 갚기에도 충분하거늘, 게다가 그놈은 전에 공정에게서 은자도 많이 받아먹었으면서, 오늘 어찌 이리 갑자기 낮을 바뀌 나를 괴롭힌단 말인가!’

왕경은 어릴 적부터 성질이 거칠고 모질어, 친부모조차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였다. 마침 그 거꾸로 된 성질이 한번 치밀어 오르자, 그는 ‘원한을 작게 품으면 군자가 아니요, 모질지 않으면 대장부가 아니다(恨小非君子, 無毒不丈夫)’라 되뇌며, 이왕 시작한 일 끝장을 보자는 심산으로 나섰다.

밤이 깊어 일경(一更)이 지날 무렵, 관영의 사람들과 죄수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왕경은 몰래 내택 뒤편으로 돌아가 담을 넘었다. 그는 뒷문 빗장을 조용히 뽑아 한쪽에 숨겨두었다. 별빛 아래를 보니 담 안쪽 동쪽에는 마구간이 있고, 서쪽에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변소였다. 왕경은 마구간에 있는 나무 울타리(木柵) 한 짝을 가져다가 이중문 담벼락에 세운 뒤, 그것을 딛고 담 위로 올라갔다. 담 위에서 다시 그 울타리를 끌어올려 안쪽에 세우고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먼저 이중문의 빗장을 뽑고 울타리를 숨긴 뒤 보니 안쪽에 또 담이 있었는데, 담 너머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경이 담벼락에 바짝 붙어 귀를 기울여 보니, 장세개의 목소리와 여인의 목소리,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거기서 술을 마시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왕경이 한참을 숨죽여 엿듣고 있자니, 문득 장세개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남, 그놈이 내일 답을 가져오러 오면 그놈 목숨은 매질 아래 달린 것이나 다름없네.”

이어 그 남자가 말했다. “제가 그놈 곁에 있는 재물을 헤아려 보니 벌써 칠팔 할은 거덜 난 셈입니다. 자형(姐夫)께서는 결단코 저와 손을 잡고 이 분을 풀어 주셔야 합니다!”

장세개가 대답했다. “내일이나 모레쯤 자네를 아주 즐겁게 해주겠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들 그만 좀 두세요!”

남자가 다시 말했다. “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상관 마세요!”

왕경은 담 밖에서 그들이 한마디씩 주고받는 말을 하나하나 또렷이 들었다. 가슴속에서 견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마치 거대한 업화(業火)가 삼천 장 높이로 치솟는 듯하여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금강역사 같은 신통한 힘을 얻어 저 담벼락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달려 들어가 저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히 이러하니:

입에 달콤한 음식은 결국 병이 되고,
마음이 즐거운 일은 반드시 재앙이 된다.

가을바람 불기도 전에 매미가 먼저 깨닫듯,
변하기 쉬운 운명은 어찌 막아낼 수 있으랴!

왕경은 건잡을 수 없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장세개가 크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놈아, 등불을 켜서 내가 뒤쪽 동쪽 변소로 가는 길을 비추어라!'

그 말을 듣자마자 왕경은 품속에서 급히 날카로운 단도(解手尖刀)를 꺼내 들고, 매화나무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다. 곧이어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안쪽의 문 두 짝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지켜보니, 매일같이 소식을 전해주던 바로 그 하인(小廝)이 행등을 들고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장세개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앞만 보고 걷던 장세개가 이중문 곁에 이르자 욕설을 내뱉었다. '이놈의 종놈들이 하나같이 조심성이 없구나. 어찌 이 밤중에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았단 말이나?'

하인이 문을 열어 장세개가 이중문을 막 빠져나오자, 왕경은 조용히 그 뒤를 따라붙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장세개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왕경이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왼손은 다섯 손가락을 펼친 채 쥘쥘 달려들었다. 장세개는 간담이 서늘해져 정신이 아득해지며 비명을 질렀다. '도둑이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경의 칼이 먼저 장세개의 귀밑을 베어 넘겼고, 장세개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평소 왕경과 안면이 있던 하인이었으나, 오늘 왕경이 번뜩이는 칼을 들고 흥행을 저지르는 것

을 보자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두 다리가 마치 못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려 해도 입이 먹먹해진 듯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하인은 그저 멍하니 얼어붙을 뿐이었다. 장세개가 아직 숨이 붙어 발버둥 치자, 왕경이 다가가 그의 등(後心)을 칼로 다시 찔러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았다.

한편, 누이(방씨)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방원이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란에 놀라 미처 등불도 켜지 못한 채 급히 밖으로 달려 나왔다. 왕경은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등불을 든 하인을 발로 차버렸다. 하인은 등불과 함께 나동그라졌고 불꽃도 꺼져버렸다. 방원은 장세개가 하인을 때리는 줄로만 알고 외쳤다. '자형(姐夫), 어찌 저 하인을 때리십니까?'

그가 말리려 다가오는 찰나, 왕경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어둠 속에서 방원의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 정통으로 옆구리를 맞은 방원은 돼지 먹따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왕경은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밖에서 들리는 비명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방씨가 급히 하녀들에게 등불을 켜게 하여 함께 밖으로 나왔다. 왕경은 방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마저 죽이려 달려들었다. 그런데 참으로 괴이한 일이 벌어졌으니, 말해도 믿기 어려울 것이다. 왕경이 눈을 돌려보니, 어느새 방씨의 뒤로 무기를 든 친수(親隨)·반당(伴當) 십여 명이 소리를 지르며 들이닥치고 있었다.

당황한 왕경은 허둥지둥 뒷문으로 뛰쳐나가 영내의 뒷담을 넘어 탈출했다. 그는 피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피 묻은 단도를 깨끗이 닦아 몸에 숨겼다. 경고(更鼓) 소리를 들으니 이미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이었다. 왕경은 거리가 고요한 틈을 타 슬며시 성가로 다가갔다. 섬주는 흙으로 쌓은 토성이라 성벽이 그리 높지 않고 해자도 깊지 않았기에, 왕경은 그날 밤 성을 넘어 달아날 수 있었다.

왕경이 성을 탈출한 일은 잠시 접어두고, 장세개의 첩 방씨의 사정을 살펴보자. 방씨는 하녀 둘만 데리고 등불을 든 채 밖으로 나왔을 뿐, 본래 별다른 호위병도 함께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방씨가 먼저 본 것은, 동생인 방원의 머리와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따로 떨어져 있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방씨와 하녀들은 너무 놀라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마치 정수리뼈가 여덟 조각으로 쪼개진 듯, 또 얼음물 반 통을 머리 위로 쏟아부은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제야 방씨 일행 세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엎어지고 구르며 벌벌 떨면서 안으로 뛰어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 안쪽에 있던 친수(親隨)들과 바깥에서 당직을 서던 군뢰(軍牢)들을 불러 모으니, 그들은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든 채 모두 뒤쪽으로 달려 나와 살피기 시작했다. 이중문 밖에는 장 관영(장세개)이 또 살해당해 있었고, 하인은 바닥에 쓰러진 채 아직 숨이 붙어 발버둥 치며 피를 토하고 있었으나 보아하니 살아나기는 글렀다. 사람들이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도둑이 뒷길로 도망쳤다고 여겨 일제히 문밖으로 몰려나와 살폈다. 불빛 아래 바닥에 비단 두 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일제히 왕경의 짓이라 외

쳤다. 급히 죄수들의 인원을 점검해 보니 오직 왕경만이 자리에 없었다.

그야말로 영(營) 전체가, 그리고 좌우 앞뒤의 이웃 사람들까지 발각 뒤집혔다. 사람들은 영 뒷담 밖에서 피 묻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대조했는데, 하나같이 모두 왕경의 것이었다. 사람들은 성문이 열리기 전에 서둘러 주윤(州尹)에게 보고하고 사람을 풀어 범인을 잡자고 상의했다. 이때는 이미 오경(五更) 무렵이었다.

보고를 받은 주윤은 크게 놀라 즉시 현위(縣尉)를 보내 살해된 인원과 범인이 드나든 경로를 검시·조사하게 했다. 동시에 섬주의 네 성문을 굳게 닫게 하고, 군사와 포교 인력을 동원하여 성 안의 방(坊)·상(廂)과 이정(里正)들로 하여금 집집마다 문을 뒤지며 흉악범 왕경을 살살이 찾게 했다. 그러나 성문을 닫아걸고 이틀 동안 집집마다 살살이 뒤졌으나 왕경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주윤은 공문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 각처의 향보(鄉保)와 도촌(都村)에 관리를 내려보내 집집마다 수색하여 범인을 체포하도록 했다. 왕경의 본적과 나이, 생김새와 특징을 적고 그 형상을 그린 수배 전단을 내고, 범인을 잡는 자에게는 상금으로 1,000관(貫)을 내리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왕경의 행방을 아는 자가 주 관아에 신고하면 공문에 따라 즉시 상을 줄 것이며, 만약 범인을 집에 숨겨 먹이고 재워준 자가 적발되면 범인과 똑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라고 명시했다. 이 수배령은 인근의 주(州)와 현(縣)까지 두루 내려보내 일제히 범인 체포에 나서게 했다.

한편, 왕경이 그날 밤 섬주 성을 탈출한 사정을 살펴보자. 왕경은 옷을 추어올려 동여매고 성 주위 해자의 얇은 곳으로 건너편 기슭으로 넘어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목숨은 건졌으나, 이제 어디로 가서 몸을 숨겨야 한단 말인가?'

때는 한겨울(중동, 仲冬)이 다가올 무렵이라 잎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 있었으나, 별빛 덕분에 길은 알아볼 수 있었다. 왕경은 그날 밤 좁은 길을 서너 군데 지나서야 겨우 큰길을 만났다. 서둘러 길을 재촉하여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무렵까지 약 육칠십 리를 걸었는데, 남쪽을 향해 가다 보니 앞쪽에 민가가 뻥뻥하게 모여 있는 곳이 보였다. 왕경은 품속에 아직 돈 한 관(貫)이 있으니, 우선 저곳에 가서 술과 음식을 좀 사 먹으며 다음 행선지를 궁리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잣거리에 도착했으나 아직 이른 시간이라 술집이나 고깃집은 문을 열지 않았다. 다만 동쪽을 향한 처마 밑에 객상(客商)을 재워준다는 낡은 등롱을 내건 집 하나가 보였는데, 어젯밤 등롱을 미처 거두지 못했는지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왕경이 다가가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아직 세수도 하지 않은 한 남자가 안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왕경이 보니 그는 바로 이모의 아들인 이종사촌 형, 원장(院長) 범전이었다. 범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방주에서 장사를 하여 이문을 남겼고, 그 덕에 이 고을 양원(兩院)의 압죄절급(押牢節級)을 맡고 있었다. 올봄 삼월 중순에는 동경(東京)으로 공무를 보러 갔을 때 왕경의 집에서 며칠 머물기도 했었다.

왕경이 다급히 외쳤다. '형님, 그간 별고 없으셨습니까!' 범전도 말했다. '왕경 아우인 것 같구나.'

범전은 왕경의 모습을 보고 얼굴에 금인(金印)이 두 줄이나 새겨진 것을 발견하고는 의아해하며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때 왕경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형님, 제발 이 아우를 좀 살려주십시오!'

범전이 당황하여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네가 정말 왕경 아우가 맞느냐?' 왕경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쉴, 조용히 하십시오!'

범전은 곧 상황을 알아차리고 왕경의 소매를 붙잡아 객실로 끌고 들어갔다. 마침 범전이 어젯밤 빌린 방은 독방이었다. 범전이 낮은 목소리로 다급히 물었다. '아우야, 어찌 된 일이나? 왜 몰골이 이 모양이나?'

왕경은 범전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이며, 관아의 송사에 휘말려 섬주로 자배(刺配)되어 온 사정을 전부 털어놓았다. 이어 장세개가 얼마나 모질고 독하게 보복하려 들었는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말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범전은 크게 놀라 잠시 망설이다가, 급히 세수를 하고 밥을 먹은 뒤 방값과 밥값을 치렀다. 그리고 왕경을 군뢰(軍牢)를 따르는 수행원으로 꾸며 식당을 떠나 방주로 향하기로 상의했다.

왕경이 길을 가며 범전에게 이곳에는 어떤 일이냐고 묻자, 범전이 대답했다. '이곳 주윤(州尹)의 명을 받아 섬주 주윤에게 서찰을 전하러 왔다가, 어제야 답신을 받아 곧바로 섬주를 떠났는데, 밤이 깊어 여기

서 목어가려던 참이었다. 아우가 마침 섬주에 있는 줄도, 또 이런 일을 저질렀을 줄도 몰랐구나.'

범전은 왕경과 함께 밤에는 멈춰 쉬고 동틀 녘에 길을 가며 몰래 방주로 숨어들었다. 그렇게 이들이 막 지났을 때, 섬주 관아에서 흉악범 왕경을 체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범전은 식은땀을 쥐며 집에 돌아와 왕경에게 알렸다. '성 안에서는 도저히 몸을 숨길 수 없다. 성 밖 정산보 동쪽에 내가 재작년에 사둔 초가집 몇 채와 이십여 묘(畝)의 논밭이 있다. 지금은 장객(莊客) 몇을 보내 농사짓게 하고 있으니, 일단 그곳으로 가서 며칠 숨어 지내며 다시 방도를 도모하자.'

범전은 깊은 밤에 왕경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와 정산보 동쪽 초가집에 숨겨주었다. 그러고는 왕경의 성과 이름을 바꾸어 '이덕(李德)'이라 부르게 했다. 범전은 왕경의 얼굴에 새겨진 금인이 그대로 두면 위태롭다고 여겼다. 다행히 예전에 건강(建康)에 갔을 때 '신의(神醫)' 안도전의 명성을 듣고 후한 사례로 사귀어두어, 금인을 치료하는 법을 배워둔 터였다. 그는 왕경의 금인 자리에 독약을 발라 글자를 지운 뒤 좋은 약으로 다스리니 붉은 흉터가 돋았고, 다시 금과 옥의 고운 가루를 섞어 발라 정성껏 치료한 끝에 두 달 남짓 만에 그 흉터마저 깨끗이 사라졌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백여 일이 지났다. 어느덧 선화 원년의 중춘(仲春, 음력 2월)이 되었다. 관아의 수배 작업은 호두사미(虎頭蛇尾)격으로 처음에는 기세등등하더니 갈수록 힘이 빠져 흐지부지되었다. 왕경은 얼굴의 금인이 사라지자 점차 바깥출입을 하게 되었고, 입는 옷과 신발까지 모두 범전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경이 초가집 안에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경이 장객(莊客)에게 어디가 저렇게 북적이는지 물었다. 장객이 대답했다. '이덕 나으리, 여기에서 서쪽으로 일 리 남짓 떨어진 곳에 정산보 안의 단가장(段家莊)이 있습니다. 단 씨 형제가 이번에 본주에서 분두(粉頭, 노래하는 기녀) 하나를 데려와 무대를 세우고 온갖 가락의 노래와 재담을 공연한다더군요. 그 분두는 서경(西京)에서 새로 흘러온 행원(行院, 기예를 파는 여인)인데, 미모와 재주가 둘 다 빼어나서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나으리께서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왕경이 이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곧장 정산보로 향했다. 바로 왕경이 이곳에 발을 들이게 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 배군(配軍, 유배된 군인 왕경)이 시골 아낙(村婦)과 부부의 연을 맺고, 땅의 호랑이(地虎, 왕경)가 백성에게 재앙을 끼쳐 한 지방을 해독(害毒)하게 된 것이다. 과연 왕경이 그곳에 가서 정말로 분두의 노래와 재담이 있는지 보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단가장이 정중히 새 사위를 맞이하고, 방산채가 옛 강적과 맞붙다

段家莊重招新女婿 房山寨雙併舊強人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왕경이 정산보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오륙백 가구가 모여 살고 있었다. 공연 무대는 보루 동쪽 밀밭에 설치되어 있었다. 마침 광대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이라, 무대 사방에는 서른에서 마흔 개쯤 되는 탁자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그 주위로 북적이며 모여들어 주사위를 던지며 도박을 하고 있었다. 주사위 놀이의 이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육풍아, 오마자, 화료모, 주와아 등이 있었다.

또한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돈을 거는 켜켜한 도박판도 있었는데, 그 무리만 스무 떼가 넘었다. 그 도박의 이름 역시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다음과 같았다.

훈순아, 삼배간, 팔차아 등이 있었다.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곳이에요!', '여섯 곳이에요!' 하고
 낱수를 외쳐대고, 동전을 던지는 자들은 '앞이에요!', '뒤요!' 하고 외쳐댔
 다. 어떤 이들은 웃음 섞인 욕설을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로 진지하게 치고받고 싸웠다. 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옷을 벗어 저
 당 잡히고 두건을 벗고 버선까지 벗어가며 어떻게든 본전을 되찾으려
 애썼다. 일도 내팽개치고 잠과 식사도 잊은 채 매달렸으나, 끝내 '잃었
 다'는 글자 하나로 끝날 뿐이었다. 반면 돈을 딴 사람은 기세가 등등하
 여 몸을 흔들거리며 여기저기 술집을 찾아 헤맸다. 그들의 몸에 찬 주
 머니나 어깨끈, 소매 안에는 온통 은전이 가득했으나, 나중에 정작 장
 부를 따져보면 이긴 돈이 그리 많지 않았다. 판을 짠 이들과 판돈을 챙
 기는 이들이 다 가로채 가버렸기 때문이다. 도박하는 광경뿐만이 아니
 었다. 마을 처녀와 농가 아낙네들도 김매던 호미를 내던지고 채소밭에
 물 주던 일도 내팽개친 채, 두서너 명씩 떼를 지어 몰려왔다. 검은 진흙
 같은 얼굴에 누런 황금빛 이를 드러낸 채 멍하니 서서, 분두(粉頭) 기
 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 기생도 똑같이 부모가 낳아 기른 몸인데
 어찌 저리도 곱냐며, 구경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당장 근처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안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몰려나오는 바람에, 푸
 르렀던 밀밭 십수 묘(畝)가 밭길에 짓밟혀 반들반들해졌다.

이야기는 이쯤에서 넘어가자.

한편, 한참 구경하던 왕경은 몸이 근질거리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
 다 무대 근처 인파 속에서 덩치 큰 사내 하나가 탁자에 두 손을 얹고 의
 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내는 눈이 둥글고 얼굴이 컸으며,
 어깨는 넓고 허리는 가늘었다. 탁자 위에는 돈 다섯 관과 색주사 그릇

하나, 주사위 여섯 개가 놓여 있었으나 그와 도박을 하려는 손님이 없었다. 왕경은 속으로 생각했다. '관재수를 겪고 오늘까지 십여 개월 동안 이런 놀이를 해본 적이 없구나. 마침 범전 형님이 땀감 사는 데 쓰라고 은 한 덩이를 주었으니, 이걸 판돈으로 삼아 저놈과 몇 판 던져서 몇 판이라도 따낸 뒤에 과자나 사 먹어야겠다.'

왕경은 곧바로 은을 꺼내 탁자 위로 획 던지며 그 사내에게 말했다. "한 판 던져 봅시다!" 사내가 왕경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던지고 싶으면 오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쪽 탁자 인파 사이에서 한 사람이 비집고 나왔다. 생김새가 큼직한 것이 앉아 있는 사내와 꽤 닮아 보였다. 그가 왕경에게 말했다. "이보게, 이 은 한 덩이를 어떻게 판돈으로 걸지? 은은 저쪽으로 가져오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 자네가 이기면 관당 이자로 이십 문씩 떼어주겠네." 왕경이 대답했다. "좋소!" 그와 돈 두 판을 나누었으니, 그 사람은 이미 관당 이십 문씩을 먼저 떼어간 셈이었다. 왕경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고는 곧장 그 사내와 주사위 던지는 법을 맞추었다.

두세 판을 던졌을 무렵,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판을 짜고 던지기를 기다렸다. 왕경은 본래 동경에서 도박을 즐기던 베테랑이라, 주사위 그릇의 상태가 정직하지 잘 살폈고, 주사위가 굴러가는 모양을 피하는 법도 잘 알았으며, 교묘하고 간사하게 손을 써서 속임수를 쓰는 법도 통달해 있었다. 판돈을 챙기던 놈은 소란을 틈타 다른 탁자로 슬쩍 가버렸고, 새로 나타난 놈은 왕경이 기세 좋게 던진다는 판을 맡았으나, 사실은 그 사내의 뒷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이었다.

왕경은 단숨에 두 관을 따내며 수수료까지 챙겼다. 기세가 오른 왕경은 주사위가 나오는 대로 거침없이 판을 벌였다. 반면, 성격이 급해 본전만 찾으려던 사내는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매번 팡이 나오거나 엉망으로 던졌다. 왕경이 아홉 점을 던지자, 사내는 억지로 숫자를 맞추려 애쓰다 결국 한 시진(두 시간) 만에 다섯 관을 모조리 잃고 말았다.

왕경은 판 돈을 줄로 꿰어 두 관을 한쪽에 두고, 사내에게 판돈을 돌려줄 때를 기다리며 나머지 세 관도 잘 묶어 두었다. 이제 돈을 어깨에 메고 가려는데, 돈을 잃은 사내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가려는 거요? 갓 구워낸 솔처럼 뜨거워서 손 데이겠구만!" 왕경이 화가 나서 말했다. "나한테 진 돈을 가지고 어디서 헛소리야?" 사내가 눈을 부릅뜨고 욕을 퍼부었다.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감히 이 몸에게 손을 대려 해!" 왕경이 맞받아쳤다. "이 겁쟁이 녀석아, 네 주먹이 내 배에 박혀서 안 빠질까 봐 겁나서 그래? 당장 돈 내놔!" 사내가 두 주먹을 치켜들고 왕경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왕경은 몸을 옆으로 회피하며 사내의 손을 낚아채더니, 오른 팔꿈치로 사내의 가슴을 밀치고 동시에 오른발로 사내의 왼발을 걸었다. 사내는 힘만 썼지 이런 낙법에는 영 소질이 없었다. 결국 사내는 뒤로 좌당 넘어지며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 등을 바닥에 대고 처박혔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사내가 몸부림을 치려 하자, 왕경은 다가가 그를 짓누르고는 정신없이 매질을 해댔다. 그러자 아까 판돈을 챙기던 놈이 다시 나타나, 말리기는커녕 도와주지도 않고 탁자 위의 돈을 몽땅 훔쳐 달아났다. 왕경은 크게 노하여 바닥에 쓰러진 사내를 내팽개치고 그 뒤를 쫓아 성큼성큼 달려갔다.

그때 인파 속에서 한 여인이 튀어나오며 크게 외쳤다. "이놈,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왕경은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여인의 생김새는 이러하였다.

커다란 눈에는 흥한 빛이 서려 있고, 굵은 눈썹에는 살기가 가득하네.

허리춤은 둔하고 투박하여, 아리따운 자태라고는 전혀 없구나.

얼굴 피부는 거칠고 두꺼워, 겨우 화장으로 가려 놓았네.

머리에는 이상한 비녀를 꽂고, 양팔에는 유행하는 팔찌를 찼구나.

절구통을 번쩍 들며, 남이 숨 가빠하는 것을 비웃고;

우물 난간을 자꾸 들어 올리며, 제 힘이 대단하다고 뽐내네.

바느질은 할 줄도 모르면서, 싸움질과 주먹질만이 장기라네.

그 여인은 스물네다섯 살 정도 되어 보였다. 겉에 입은 겹옷을 벗어 한데 말아 탁자 위에 던져두니, 안에는 화살대처럼 몸에 딱 붙는 소매 짧은 옷과 앵무새 빛깔의 초록색 짧은 저고리가 드러났다. 아래에는 보랏빛 비단으로 만든 폭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여인은 성큼성큼 다가와 주먹을 치켜들고 왕경을 향해 휘둘렀다. 왕경은 상대가 여인인데다 주먹을 휘두르는 모양새에 허점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골려줄 심산으로 재빨리 쓰러뜨리는 대신 일부러 두 주먹을 내지르며 자세를 잡고는 여인과 맞붙어 씨름을 시작했다. 그 광경은 이러하였다.

여인은 '대사평' 자세를 취하며 크게 벌려 휘둘렀고, '쌍비각'을 차며 달려들었다. '선인지로'로 길을 가리키고, '노자기학'으로 학을 타고 노니는 듯한 형세였다. 여인은 '요란주' 자세로 팔꿈치를 내밀어 앞을 향해 찢러 들어왔고, '당두포'의 기세로 왕경의 이마를 노리고 들이쳤다.

또는 발꿈치를 치켜들어 땅을 훑듯 휘두르고, 손목을 비틀어 하늘을 떠받치는 듯한 기세로 몰아붙였다. 이쪽 여인은 '개정살화'를 펼치며 덤벼들었고, 저쪽 사내는 '요요관삭'을 부리며 맞섰다. 두 사람이 마치 바람을 맞으며 춤추는 부채처럼 서로 맞붙어 싸우더니, 머지않아 갑작스레 쏟아지는 소나기에 꽃잎이 떨어지듯 격렬하게 뒤엉켰다.

그 무렵 기생들이 이미 무대에 올라 유흥을 돋우는 익살극(院本)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남녀가 서로 맞붙어 씨름하는 광경을 보고는 일제히 몰려들어 두 사람을 둥글게 에워싸고 구경했다. 여인은 왕경이 그저 방어하며 막아내기만 할 뿐 파고들 틈을 주지 않자, 빈틈을 노려 '흑호투심(黑虎偷心)'의 형세로 주먹을 내질러 왕경의 가슴을 향해 휘둘렀다. 왕경이 몸을 옆으로 비키자 여인은 허공을 가른 주먹을 미처 거두지 못했다. 왕경은 그 기세를 몰아 여인을 짹 붙잡아 단번에 바닥으로 메쳐버렸고, 여인이 땅에 닿자마자 그대로 다시 껴안아 올렸다. 이 자세는 이른바 '호포두(虎抱頭)'라 했다. 왕경이 말했다. "옷 더러워지니 조심하시오. 무례하게 굴었다고 원망하지 마시오. 당신이 먼저 나를 찾아왔으니 말이오." 그런데도 여인은 부끄러워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왕경을 치켜세우며 감탄했다. "쫄쫄, 정말 대단한 권법이군요! 과연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한편, 도박에서 돈을 잃고 매까지 맞았던 자와 돈주머니를 뺏어간 사내 두 명이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간덩이가 부었구나! 감히 우리 누이를 메다꽃다니!" 왕경도 맞서서 욕설을 퍼부었다. "돈이나 잃고 매나 맞은 더러운 거북이 같은 놈들이, 내 돈을 뺏어가 놓고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러고는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그때 누군가 인파를 헤치고 튀어나와, 몸을 던져 세 사람(한 쌍 반)

과 그들의 여섯 주먹 사이를 가로막으며 크게 외쳤다. "이대랑(李大郎),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단이(段二) 형님, 단오(段五) 형님도 손대지 마시오!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할 말이 있으면 좋게 좋게 합시다!" 왕경이 보니 바로 범전이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정말로 싸움을 멈췄다. 범전은 얼른 여인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삼낭(三娘), 인사 올립니다." 여인 역시 정중히 답례하고는 물었다. "이대랑은 원장님의 친척인가요?" 범전이 답했다. "제 사촌 동생입니다." 여인이 말했다. "정말 뛰어난 권법을 가졌군요!" 왕경이 범전에게 말했다. "저놈들이 제 돈을 잃고는, 오히려 패거리를 시켜 제 돈을 뺏어갔습니다." 범전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단이와 단오의 장사인데, 네가 왜 그들에게 행패를 부리느냐?" 저쪽의 단이와 단오는 네 개의 눈으로 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이 말했다. "범 원장님의 체면을 봐서라도 저들과 다투지 마세요. 대신 저 은덩어리를 가져오세요!" 단오는 누이가 말리는 데다 누이의 숨씨가 대단한 것을 보고는, '나도 돈을 잃긴 했지만' 하면서 마지못해 원래의 은덩어리를 꺼내 삼낭에게 건넸다. 삼낭은 그것을 범전에게 주며 말했다. "여기 원래 은덩어리가 있으니 가져가세요!" 말을 마친 삼낭은 단이와 단오를 데리고 사람들을 헤치며 떠났다. 범전 역시 왕경을 데리고 곧장 초장(草莊) 안으로 돌아갔다.

범전이 왕경을 나무라며 말했다. "내가 어머님 닳을 봐서 바다와 같은 큰 담력을 내어 형님을 이곳에 머물게 한 것이요. 혹시라도 사면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형님을 위해 방도를 찾아보려 했던 말이요. 그런데 형님은 어찌 이리 참을성이 없으시오! 저 단이와 단오는 아주 고약하고 악독한 자들이고, 누이인 단삼낭은 더욱이 음탕하고 간교하기 짝이 없어서 사람들이 '대충와(大蟲窩, 호랑이 굴)'라는 별호로 부를 정도

요. 양가집 자제들이 그녀에게 홀려 얼마나 많은 화를 당했는지 모른다 오. 그녀는 열다섯 살 때 이미 남편을 얻었는데, 그 남편이 워낙 어리석었던 탓에 혼인한 지 일 년도 안 되어 그녀에게 들볶여 죽고 말았다고. 그녀는 제 힘을 믿고 단이, 단오와 함께 밖에서 사내들과 시비를 일으키며 그런 더러운 돈을 벌고 있소. 인근 마을 중에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소? 저 기생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오로지 사람들을 유인해 도박을 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지, 그 도박판이 전부 그녀가 파놓은 함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형님, 어찌 그런 곳에 가서 분란을 일으키신단 말이오! 만약 정체가 탄로라도 난다면, 형님과 나에게 닥칠 재앙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오."

왕경은 범전의 꾸지람에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범전은 자리에서 일어나 왕경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주(州)로 가서 당직 근무를 서야 하니, 내일 다시 보러 오겠소."

한편, 범전이 방주성으로 들어간 이야기는 제쳐두고, 그날 왕경은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으나 밤사이 별다른 일은 없었다. 다음 날 세수를 마치자마자 장객이 들어와 보고했다. "단태공께서 이대랑을 뵈러 오셨습니다." 왕경이 밖으로 나가 맞이하니, 주름진 얼굴에 은빛 수염을 기른 노인이 서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손님과 주인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단태공은 왕경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과연 풍채가 당당하구려!" 그러고는 왕경에게 어디 사람인지, 어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범 원장과는 어떤 친척 관계이며 혼인은 해 보았는지 물었다.

왕경은 질문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 내어 얼버무렸다. "저는 서경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아내도 먼저 떠났습니다. 범 절급과는 고종사촌 형제 사이입니다. 작년에 범 절급께서 공무로 서경에 갔다가, 제가 홀로 지내는 것이 안타까워 특별히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제가 권법을 좀 아는데, 나중에 기회를 봐서 이 주(州)에서 자리를 잡아보려 합니다." 단태공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왕경의 생년월일과 사주(八字)를 물어본 뒤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왕경이 이런저런 걱정에서 잠겨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밀고 들어오며 물었다. "범 원장님 계십니까? 이분이 이대랑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깜짝 놀라 멈춰 섰다. 둘 다 속으로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라고 생각했다. 인사를 나누고 막 말을 건네려는데 마침 범전도 도착했다.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범전이 물었다. "이 선생께서는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왕경은 이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스쳤다. '저 사람은 점술가 이조로구나.' 이조 역시 왕경을 보고 말했다. "이분은 동경 사람인데 성이 왕 씨입니다. 예전에 저와 점을 친 적이 있지요." 이조가 범전에게 말했다. "원장님, 제가 평소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이대랑이라는 친척분이 계십니까?" 범전이 왕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 사람이 제 형제인 이대랑입니다." 왕경이 말을 받았다. "제 본래 성은 이 씨이고, 왕 씨는 외조부의 성입니다."

이조가 손뼉을 치며 웃었다. "제가 기억력이 좋습니다. 성이 왕 씨라고 말씀하신 건 예전에 동경 개봉부 앞에서 만났을 때였지요." 왕경은

그가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이조가 왕경에게 말했다. "헤어진 뒤에 형남으로 돌아갔다가 기이한 사람을 만나 검술과 명리학(子平)의 비결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금검선생'이라 부르지요. 최근 방주에 왔다가 이곳이 떠들썩하다는 소문을 듣고 명절을 맞아 한몫 벌려고 찾아왔습니다. 단 씨 형제가 제 검술을 알고는 가르쳐달라고 청하여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방금 단태공께서 돌아와 귀하의 사주를 보셨는데, 어찌 이리 좋은 사주가 있겠습니까? 앞날이 말할 수 없이 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침 홍란성(紅鸞)이 비치니 응당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단삼낭과 단태공께서 크게 기뻐하며 이대랑을 데릴사위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길일을 맞아 중매를 서러 왔습니다. 삼낭의 사주는 남편을 아주 잘 도와주는 사주입니다. 방금 맞춰보니 '구리 대야와 무쇠 비'처럼 그야말로 천생연분이더군요. 어서 축하주 한 잔 올려 주십시오!"

범전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단 씨 일가가 워낙 고약하니, 만약 이 혼사를 거절하거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이 쉽지 않겠구나. 차라리 이 기회에 맞춰가는 편이 낫겠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조에게 말했다. "과연 그렇군요! 단태공과 삼낭의 뜻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만 이 형제가 좀 무뚝뚝하고 어수룩한데, 어찌 귀한 사위 대접을 받겠습니까?" 이조가 답했다. "에이, 원장님! 너무 겸손해하실 것 없습니다. 저쪽 삼낭이 입이 마르도록 이대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범전이 말했다. "그거 참 잘되었군요! 제가 혼인을 주선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곁에서 5냥 무게의 은덩어리 하나를 꺼내 이조에게 건네며 말했다. "마을이라 대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라는 작은 성의이니, 일이 성사되면 다시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이조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라며 사양하자, 범전이 말했다.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다만 부탁 하나만 드리지요. 선생께서는 저 사람이 성이 두 개인 것을 입에 올리지 마시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살피주십시오." 이조는 점술가라 은덩어리를 받자마자 범전과 왕경에게 거둬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단 씨 집안으로 돌아가 소식을 전했다. 성이 무엇인지,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혼사를 성사시켜 술과 음식을 얻어먹고 돈을 벌 생각뿐이었다. 게다가 단삼낭 자신도 상대가 마음에 쏙 들었던 데다, 평소 집안 식구들도 그녀를 무서워하여 단태공조차 그녀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기에, 이 이야기는 금세 성사되었다.

이조는 양쪽을 오가며 혼사를 주선하면서, 예물로 가져올 빙금(聘金)이 많아야 중매쟁이로서 한몫 단단히 챙긴다며 은근히 부추겼다. 범전은 예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소문이 퍼져 화를 입을까 염려되어, 양가에 말할 때 모든 절차를 간소하게 생략하기로 했다.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리는 단태공은 이를 더욱 반기며 곧장 혼인 날짜를 잡았다.

이달 22일로 날을 택하자, 양을 잡고 돼지를 도축하며 물고기를 그물질하고 개구리를 잡아다가 잔치를 준비했다. 커다란 사발에 술을 담고 큰 쟁반에 고기를 가득 차려 친척들을 초대해 축하주를 대접했으나, 생황과 통소·북 같은 풍악이나 화려한 예식, 신방의 촛불 장식 같은 북잡한 절차는 모두 생략했다. 범전은 왕경을 위해 새 옷 한 벌을 지어 단가장으로 보냈고, 관아에 일이 생겨 먼저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왕경

과 단삼낭은 맞절을 하고 합환주를 나누는 혼인 의식을 치렀으나 이 또한 매우 간소하게 끝났다.

단태공은 초당에 술상을 차려놓고 스무 명 남짓한 친척들과 자기 아들, 새 사위, 그리고 중매쟁이 이조와 함께 하루 종일 술을 마시다 저물어서야 자리를 떴다. 집이 가까운 친척들은 모두 인사를 나누고 돌아갔으나, 거리가 멀어 급히 떠나지 못한 이들이 남았다. 바로 고모부 방한 부부와 사촌 동생 구상 일가, 그리고 단이의 처남 시준 내외였다. 남자 셋은 바깥쪽 동쪽 행랑에서 묵기로 했고, 여자 셋은 위낙 철이 없는 데다 흥이 넘쳐서 술과 음식을 챙겨 왕경과 단삼낭의 신방으로 가 신방을 축하해 주며 한바탕 웃고 떠들며 술을 한 차례 더 마신 뒤에야 자리를 거두었다. 그제야 몸종과 늙은 하녀가 신방에 들어가 침상을 펴고 이불을 개어놓으며 신랑과 신부에게 자리에 들라 권했고, 몸종이 밖에서 방문을 닫자 다들 눈치껏 물러갔다.

단삼낭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거리끼지 않았던 데다, 이미 한 번 시집가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자요 이런 일에 이골이 난 여자라 부끄러움 따위는 별로 타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비녀와 가락지를 풀고 적삼을 벗기 시작했다. 왕경은 본래 한량 기질이 있는 사내였는데, 관아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로 열 몇 달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하지 못한 상태였다. 단삼낭은 눈썹이 굵고 눈이 컸으며, 아리따운 우씨처럼 요염하고 날씬한 미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등불 아래서 그녀가 가슴을 풀어헤치고 붉은 속가리개(主腰)를 끌러 내리자, 희고 매끄러운 젖가슴이 드러났다. 그 모습을 본 왕경은 자신도 모르게 음심이 일어 단삼낭을 끌어안았다. 단삼낭은 왕경의 뺨을 세차게 한 대 후려치

며 말했다. "괜히 치근대지 마세요, 뭐가 그리 급해요!" 그러고는 둘은 서로를 껴안은 채 침상으로 올라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함께 즐거운 밤을 보냈다. 정히 이러하다:

한 명은 정조를 잃은 시골 아낙이요, 한 명은 흥행을 저지른 군적(軍籍)의 죄수라.

낮가죽은 둘 다 석 자나 두껍고, 발바닥은 똑같이 열 치나 길구나.
이쪽은 진정으로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 황소가 코 고는 듯하고,
저쪽은 짐짓 아양 떨며 간드러진 소리를 내니 꽃 사이 꾀꼬리 지저귐
같네.

비단 버선도 신지 않아 어깨 위로 맨발 두 짝이 드러나고,
금비녀는 비스듬히 흘러내려 베갯머리에 검은 머리채가 한 무더기 쌓
였구나.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하는 언약은 없어도 온갖 아리따운 교태를
다 부리고,
구름과 비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함도 없이 만 가지 요염한 자태를
다 주무르는구나.

그날 밤 신방 밖에서도 입이 비뚤어지도록 웃음이 터질 만한 일이
하나 있었다. 방한, 구상, 시준의 아내들은 모두 젊은 여인들이라 술기
운에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잠자리에 들 생각도 않고, 단이와 단오의
두 아내를 끌어들여 몰래 신방 밖으로 다갔다. 그러고는 칸막이 너머
로 귀를 바짝 대고 엿듣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하
나를 놓치지 않고 아주 자세히 들었다. 왕경은 본래 한량이라 방중술에

꽤 능했는데, 아내(단삼낭)가 잘 받아 주는 것을 보고는 더욱 힘을 다해 정성을 들였다. 밖에 있던 여인들은 방 안의 소리가 점점 무르익자, 자신도 모르게 속곳이 다 젖어버릴 정도로 흥분에 휩싸였다.

여인들이 한데 모여 서로를 놀리고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드는데, 갑자기 단이가 급히 뛰어 들어오며 크게 외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여기서 웃고 떠들고만 있어!" 여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식은땀을 흘렸지만, 영문을 몰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단이가 다시 소리쳤다. "누이, 삼낭! 어서 일어나! 침상에 큰 재앙이 닥쳤단 말이야!" 한창 기분에 취해 있던 단삼낭은 단이를 나무라며 침상에서 대답했다. "밤중에 무슨 일이라고 이리 호들갑이야?" 단이가 다시 소리쳤다. "불이 머리카락을 태울 판인데! 다들 죽고 사는 문제도 모르고 이러고 있어!"

왕경은 본래 마음에 켜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아내에게 옷을 입히고 함께 방을 나와 상황을 물었다. 그러자 여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왕경이 방을 나서자마자 단이가 그의 손을 잡아끌고 앞쪽 초당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범전이 마치 뜨거운 솥뚜껑 위에 올라간 개미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단이와 단오, 단삼낭도 뒤따라 도착했다. 사정인즉 이러했다. 신안현 공가촌 동쪽에 사는 황달이 매를 맞은 상처를 다 치료하고는, 왕경의 행방을 정확히 알아내어 어젯밤 방주 주윤에게 고발했다. 주윤 장고행이 공문을 발급하여 도두(포교 우두머리)에게 명령을 내려, 흉악범 왕경과 범죄자를 숨겨준 범전, 그리고 단씨 일가 모두를 잡아오라고 토병들을 거느리고 가게 했다. 범전은 이 고을의 형사 담당 설공목과 친분이 있어 이 소식

을 몰래 미리 전해 들었다. 그래서 가족들을 버려두고 한달음에 이곳으로 달려온 것인데, 이제 곧 관병들이 들이닥칠 참이었다! 다들 관아에 끌려가 고초를 겪게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마치 닭장을 엮어놓은 듯 큰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왕경을 원망하고 단삼낭을 부끄러워하며 소란을 피웠다. 한창 소란스러울 때, 초당 밖 동쪽 행랑채에서 점술가인 '금검선생' 이조가 걸어 나오더니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여러분, 화를 피하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보시오!"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에워싸고 물었다. 이조가 말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서른여섯 가지 계책 중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오!" 사람들이 물었다. "어디로 도망가란 말이오?" 이조가 답했다. "여기서 서쪽으로 이십 리쯤 가면 방산이 있소." 사람들이 말했다. "그곳은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 아니오?" 이조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으십니다! 지금 와서 착한 사람 노릇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오?" 사람들이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이조가 말했다. "방산 산채의 채주 요립은 나와 꽤 안면이 있는 사이요. 그의 수하에는 오륙백 명의 졸개가 있어 관병들도 함부로 잡지 못하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어서 살림살이를 챙겨 그곳으로 가서 합류해야 큰 화를 면할 수 있소."

방한을 비롯한 여섯 명의 남녀는 나중에 친척이 붙잡혀 연루될까 두려워했고, 왕경과 단삼낭도 간곡히 권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결국 모두 그 길을 따르기로 했다. 장원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급히 챙겨 모조리 꾸러 싸 두고, 한쪽에서는 횃불 서른에서 마흔 개를 밝혀 들었다. 왕경, 단삼낭, 단이, 단오, 방한, 구상, 시준, 이조, 범전 이렇게 아홉

명은 채비를 마쳤다. 각자 허리에는 요도를 차고, 무기 시렁에서 박도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는 장객들을 모으니 마흔 명 남짓 되었는데, 모두 짐을 챙겨 단단히 결속했다. 왕경, 이조, 범전이 앞장섰고, 방한, 구상, 시준이 여인들을 가운데 두고 호위했다. 다행히 그 다섯 여인은 호미처럼 큼직한 발을 지녀 남자들이 못지않게 잘 걸었다. 단삼낭과 단이, 단오는 뒤를 따르며 장원의 앞뒤에 불을 지르고 함성을 질렀다. 사람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서쪽을 향해 일제히 달려 나갔다. 이웃집과 근처 마을 사람들은 평소 단씨 일가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던 터라, 오늘 그들이 횃불을 밝히고 무기를 든 채 움직이는 것을 보기도 자초지종을 알 수 없어 문을 걸어 잠근 채 감히 가로막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왕경 일행이 서쪽으로 사오 리쯤 달려갔을 때, 이미 도두와 토병들이 황달과 함께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을 마주쳤다. 도두가 앞으로 나서자마자 왕경이 칼을 휘둘러 단칼에 그를 두 동강을 내버렸다. 그러자 이조와 단삼낭 등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들어 토병들을 흩어버렸고, 황달 또한 왕경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왕경 일행이 방산 산채 아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경(새벽 3시~5시 사이) 무렵이었다. 이조는 먼저 산에 올라가 요립에게 사정을 말한 뒤,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 합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산채 안을 순찰하던 부하들은 산 아래에서 횃불이 어지럽게 일렁이는 것을 보고 즉시 주채에게 보고했다. 요립은 관병이 들이닥친 줄 알고 의심했다. 그는 평소 관병들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급히 일어나 창을 챙겨 메고 울타리 문을 열었다. 그리고 부하들을 불러 모

아 적을 막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갔다. 왕경은 산 위에서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미리 대비했다. 요립이 산 아래에 이르러 수많은 남녀를 보고는 관병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요립이 창을 내밀며 호통을 쳤다. "이놈들, 감히 어디라고 와서 우리 산채를 소란스럽게 하며 태세(太歲, 신령스러운 존재)의 머리 위에서 흠을 파헤치느냐?"

이조가 앞으로 나서서 몸을 굽히며 말했다. "대왕님, 못난 동생 이조가 인사 올립니다." 그러고는 왕경이 저지른 죄와 관아의 관리 및 관병들을 죽인 일을 간략히 설명했다. 요립은 이조의 말을 듣고 왕경이 그토록 대단한 인물인 데다 단씨 형제들까지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 혼자 힘으로는 나중에 저들에게 휘둘릴까 두렵구나"라고 생각했다. 요립은 안색을 바꾸며 이조에게 쏘아붙였다. "내 작은 산채에 너희 같은 자들을 받아줄 수는 없다!" 왕경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산채의 주인은 오직 이놈뿐이니, 먼저 이자를 제거하면 부하들 따위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는 즉시 박도를 치켜들고 요립에게 달려들었다. 요립도 크게 분노하며 창을 휘둘러 맞섰다. 단삼낭은 왕경이 위험해질까 걱정되어 박도를 들고 거들었다. 세 사람이 십여 합을 겨루는 사이, 그들 중 한 명이 쓰러졌다.

시로 이르되, 질그릇은 우물가에서 깨지기 마련이고, 강도는 칼날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네.

결국 세 사람 중 한 명이 쓰러지고 말았으니, 과연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송공명이 피서를 하며 군병 을 치료하고, 교도청이 바람을 돌려 도적 떼를 불태우다

宋公明避暑療軍兵 喬道清回風燒賊寇

이야기는 이러하다. 왕경과 단삼낭이 요립과 맞붙으니, 대여섯 합을
가지 못해 요립의 빈틈이 드러났다. 왕경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도
(朴刀)로 찔러 요립을 넘어뜨렸고, 뒤이어 단삼낭이 달려들어 다시 한
칼을 휘둘러 숨통을 끊어놓았다. 평생을 악당으로 살아온 요립이었으
나, 결국 한바탕 봄꿈처럼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왕경이 박도를 치켜들며 호통을 쳤다. "순종하기 싫은 자가 있다면
요립의 꼴이 될 것이다!"

부하들은 요립이 죽는 것을 보고 누가 감히 저항하겠는가? 모두 무
기를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복종했다. 왕경은 부하들을 이끌고 산
에 올라 산채에 도착하니, 어느덧 동쪽 하늘이 하얗게 밝아오고 있었

다. 그 산은 사방이 마치 집처럼 생긴 돌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방산이라 불렸으며, 방주의 관할 아래 있었다.

그날 왕경은 사람들의 식솔(노소)을 안착시킨 뒤, 부하들의 수를 파악하고 산채의 식량과 금은보화, 보석, 비단, 옷감 등을 낱낱이 점검했다. 이어 소를 잡고 말을 도살하여 부하들에게 크게 상을 내리고, 술을 차려 모두와 함께 경사를 축하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왕경을 산채의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무기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하들을 훈련시키며 관군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한편, 그날 밤 방주에서 왕경을 잡으러 파견된 도두(포교 우두머리)와 토병, 인역들이 왕경 일행에게 몰살당했다. 겨우 도망쳐 나온 자가 주운 장고행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왕경 일당이 미리 눈치를 채고 관군을 막아냈습니다! 도두와 보고하러 온 황달은 모두 살해당했고, 그 흉악한 무리는 서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장고행은 크게 놀라 다음 날 아침 토병을 점검해보니, 죽은 자가 서른 명 남짓이요 부상한 자가 마흔 명이 넘었다. 장고행은 즉시 본주의 수비 군관들과 의논하여, 도적을 잡을 관군과 영병(정규군)을 추가로 파견해 추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적들이 워낙 흉악한 데다 관군 역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그사이 방산채의 부하들은 나날이 늘어갔고, 왕경 일행은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습격하고 재물을 약탈했다.

장고행은 도적들의 기세가 건잡을 수 없이 날뛰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관할 현에 공문을 내려 본 지역을 수비하며 병력을 보내 협력해

도적을 잡으라고 명령했다. 또 한편으로는 본주의 수어병마도감 호유위와 의논하여 도적을 소탕하기로 했다. 호유위는 진영의 군사들을 점검하고 날을 잡아 출병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진영의 군사들이 소란을 피우며 일어났다. 이유는 두 달 동안 곡식과 급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도적을 잡으러 가겠는가? 장고행은 변고를 듣고 우선 한 달 치 급료를 나누어 주게 했다. 하지만 이 급료 지급이 오히려 군사들을 더욱 자극하고 말았다. 어찌 된 일인가? 그 책임자들은 평소 군사들을 보살피고 다독이지 않다가, 군사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나서야 겨우 급료를 내놓으니 군심이 이미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상태였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우스운 일이 있었다. 급료를 지급하면서도 평소처럼 공제하는 상례를 그대로 적용해 군사들의 몫을 깎아버린 것이다. 군사들은 평소에 깎였던 울분이 쌓여 있다가 오늘 이르러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말았다. 군사들의 기세가 흥흥하게 치솟더니, 순식간에 폭발하여 호유위를 죽여버렸다. 장고행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인장만 챙긴 채 미리 몸을 피했다.

성안에는 주인이 없어진 데다, 그곳의 무뢰배들이 반란군에 가담하여 양민들을 불태우고 약탈하기 시작했다. 이때 도적 왕경이 성안에 반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 기세를 몰아 수많은 부하를 이끌고 방주로 쳐들어왔다. 반란군과 오합지졸 간신배들은 오히려 도적의 편에 서서 그들을 따랐다. 이로 인해 왕경은 뜻을 이루어 방주를 점령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삼았다. 결국 장고행은 끝내 피하지 못하고 살해당했다.

왕경은 방주의 창고를 습격해 곡식과 재물을 약탈했다. 이어 이조, 단이, 단오를 보내 방산채와 여러 곳에 군기를 세우게 하고, 말을 사서 군사를 모집하며 식량을 비축하게 했다. 근처의 마을과 읍락은 모두 약탈을 당했다. 그러자 떠돌아다니는 무뢰배들과 악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앞다투어 왕경에게 귀순했다. 당시 공단과 공정 형제는 황달의 고발로 가산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는데, 왕경이 군사를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무리에 합류했다. 인근의 주와 현들은 그저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킬 수밖에 없었으니, 누가 감히 군마를 이끌고 나가 도적을 소탕하겠는가?

왕경 일당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만여 명의 군사를 모았고, 인근의 상진현, 죽산현, 운향현 세 곳의 성을 함락시켰다. 인근 주와 현들이 조정에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그곳으로 군사를 보내 소탕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송나라 관군은 대개 군량과 급료가 부족한 데다,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군사들은 장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수는 병법을 알지 못했다. 도적의 경보가 들리면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소리 높여 위엄을 세워 병사들을 위축시키고 백성들을 겁에 질리게 하지만, 막상 적과 맞닥뜨리면 장수는 겁쟁이가 되고 군사는 기운이 빠져버렸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왕경 일당의 기세를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관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이 때문에 왕경의 세력은 더욱 커져 남풍부까지 함락시켰다.

그 후 동경(수도)에서 장수들을 파견했으나, 그들은 채경이나 동관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양전, 고구에게 뇌물을 주는 자들이었다. 뇌물을 받아 챙긴 이들이 어찌 용맹하게 싸우겠는가? 파견된 장수들은 자

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권력을 잡자마자 군량을 가로채고 양민을 죽여 공을 세우는가 하면, 군사들을 풀어 약탈을 일삼으며 지방을 어지럽혔다. 오히려 백성들을 핍박하여 도적의 편에 서게 만들 정도였다. 이로써 도적의 세력은 점차 커져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때 이조가 계책을 냈다. 그는 형남 출신이었기에 다시 점술가로 변장하여 성안으로 들어간 뒤, 간악한 불량배와 무뢰배들을 은밀히 규합했다. 안팎에서 호응하며 공격하니 형남의 성들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이에 왕경은 이조를 군사로 삼고 스스로를 '초왕'이라 칭했다. 그러자 강호의 대도들과 산채의 호걸들이 모두 그를 따랐다. 서너 해 사이에 그는 송나라의 군주(軍州) 여섯 곳을 점령했다. 왕경은 남풍성 안에 보전과 내원, 궁궐을 짓고 스스로 황제를 참칭하며 연호를 고쳤다. 또한 송나라를 흉내 내어 문무 관직과 성안의 관료들을 가짜로 설치했다. 이조를 군사도승상으로 삼고, 방한을 추밀로, 단이를 호국통군대장으로, 단오를 보국통군도독으로, 범전을 전수(殿帥)로, 공단을 선무사로, 공정을 전운사(재정과 식량을 관리하는 직책)로 삼아 돈과 곡식의 출입을 맡기고 계산하게 했으며, 구상을 어영사로 삼았다. 그리고 단씨 성을 가진 여인을 가짜 비(妃)로 세웠다.

선화 원년에 반란을 일으킨 이래 선화 5년 봄에 이르기까지, 당시 송강 일행이 하북에서 전호를 토벌하며 호관에서 맞붙고 있을 때, 저쪽 회서의 왕경은 또다시 운안군과 완주를 함락시켜 총 여덟 곳의 군주를 차지했다. 그 여덟 곳은 남풍, 형남, 산남, 운안, 안덕, 동천, 완주, 서경이었다. 이 여덟 곳에 속한 주와 현은 모두 여든여섯 곳에 달했다. 왕

경은 또 운안에 행궁을 짓고 시준을 유수관으로 삼아 운안군을 지키게 했다.

처음에 왕경이 유민 등에게 명하여 완주를 침탈했을 때, 완주는 동경(수도)과 가까운 곳이었다. 채경 일당은 천자의 눈을 속일 수 없었기에, 도군황제께 상소를 올려 채유와 동관에게 명하여 왕경을 정벌하고 완주를 구원하게 했다. 그러나 채유와 동관은 군사를 다스리는 법도가 없고 병사들을 가혹하게 다루어 군심이 흩어졌다. 이 때문에 유민 일당에게 대패하여 큰 손실을 입었고, 결국 완주를 빼앗겼으니 동경이 크게 경악하였다. 채유와 동관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 천자께는 이 사실을 숨겼다. 도적 장수인 유민과 노성 등이 채유와 동관을 격파한 뒤, 노주와 양주를 포위하고 압박했다.

그러던 중 송강 일행이 하북을 평정하고 회군하여, 다시 황제의 명을 받들어 회서의 왕경을 정벌하러 나섰다. 참으로 잠시 쉴 틈도 없이 말머리를 돌려 쉴 새 없이 달려가는 형국이었다! 송강은 이십여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진격했다. 황하를 막 건넌을 무렵, 조정에서 다시 공문을 내려 진안무와 송강 일행의 병마에게 서둘러 노주와 양주를 구하러 오라고 재촉했다. 송강 일행은 무더위 속에서도 쉼 없이 달려, 속현(粟縣)에서 사수까지 거침없이 나아갔으며 지나가는 길에 백성들에게 조금의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대군이 양적의 주 경계에 이르자, 송강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도적들은 노주와 양주의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그때 장청, 경영, 엽청은 전호가 능지처참형으로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고 황제의 은혜를 입었기에, 명을 받들어 송강을 도와 왕경을 정벌

하는 데 합류했다. 장청 일행은 동경을 떠나 영창주에 도착한 지 보름 남짓 되었다. 송강의 선봉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은 군영 앞으로 마중을 나갔다. 인사를 올린 뒤, 황제의 은혜를 입어 관직을 받은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송강을 비롯한 장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송강은 장청 일행에게 군중에 머물며 명령을 기다리라고 명했다.

송강은 진안무, 후참모, 나무유 등에게 양적 성안에 주둔하여 행정 업무를 보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있어 성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판단했다. 송강은 명령을 내려, 대군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방성산의 나무가 울창하고 그들이 깊은 곳에 진을 치게 했다. 또한 군사들이 천 리 길을 걷느라 더위를 먹고 지친 자가 매우 많았으므로, 안도전에게 약재를 준비시켜 군사들을 치료하게 했다. 아울러 군사들에게는 시원한 차양막을 치게 하고 말들을 안돈시킨 뒤, 황보단에게 말들을 돌보고 갈기를 다듬게 했다.

오용이 말했다. "대군이 숲속에 진을 치고 있으니, 적들이 화공을 펼칠까 두렵습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오히려 적이 화공을 써주길 바라는 바요."

그러면서 송강은 군사들에게 다시 산의 높은 언덕 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로 가서, 대나무와 짚을 이용해 작은 막사를 짓게 했다. 이때 하북 출신의 귀순 장수인 교도청이 송강의 뜻을 알아채고 다가와 보고했다. "저 교도청, 선봉장님의 두터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미력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교도청에게 비밀리에 계책을 일러준 뒤, 그를 산속 막사로 보냈다.

이어 송강은 건장한 군사 삼만 명을 선발했다. 장청과 경영에게 만 명의 병마를 맡겨 동쪽 산기슭에 매복하게 하고, 손안과 변상에게도 만 명의 군마를 맡겨 서쪽 산기슭에 매복하게 했다. 그러고는 "중군에서 굉천뢰 포성이 울리면 일제히 들이쳐라!"라고 명령했다. 또한 모든 군량은 산남의 평탄한 산기슭에 쌓아두고, 이응과 시진에게 오천 명의 군사를 맡겨 지키게 했다.

병력을 배치하는 일이 막 끝났을 때, 갑자기 공손승이 말했다. "형님, 계책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무더운 날씨에 군사들이 오가며 병을 얻으면, 만약 적의 정예병이 갑자기 돌격해올 때 우리 군사가 적보다 열 배나 많다 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빈도가 작은 재주를 조금 부려, 먼저 사람들의 번잡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군마를 시원하게 만들어 자연히 기운을 북돋아 주겠습니다."

말을 마친 공손승은 즉시 검을 잡고 법술을 펼쳤다. 발로는 괴강(魁罡)이라는 두 글자를 밟고, 왼손으로는 뇌인을 맺고 오른손으로는 검결을 맺은 채 정신을 집중하여 관상에 들더니, 손방(巽方, 동남쪽)에서 생기 한 모금을 끌어다 주문을 한 번 외었다.

그러자 잠시 후, 시원한 바람이 뽕뽕 불어오고 먹구름이 서서히 물러오더니, 이 산의 능선과 골짜기 사이에서 뿜어져 나와 방성산 전체를 뒤덮었다. 이로써 이십여 만의 군마와 병사들이 모두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 속에 있게 되었다. 이 산을 벗어나면 여전히 쇠도 녹일 듯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쬘고 매미가 요란하게 울며 새들이 숨어 지내는 날씨였으나 말이다.

송강을 비롯한 장수들은 매우 기뻐하며 공손승의 신통한 도력과 덕망을 칭송했다. 이렇게 육칠 일이 지나자, 안도전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황보단이 말을 돌본 덕분에 군사와 병마가 점차 강건해졌으니, 그 상태는 말할 것도 없이 좋아졌다.

한편, 완주의 수장 유민은 적들 사이에서 꽤 지략이 있는 자로, 적들이 그를 '유지백'이라 불렀다. 유민은 송강의 군마가 무더위를 피하고자 숲이 울창하고 깊은 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말했다. "송강 그놈들은 결국 양산박 출신의 도적 떼일 뿐이라 병법을 모르니, 큰일을 이룰 리 없다. 내가 작은 계책을 하나 써서, 저 이십만 군마 중 절반은 까맣게 태워버려 주마!"

유민은 즉시 명령을 내려 몸놀림이 가벼운 군사 오천 명을 선발하게 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화전과 화포, 횃불을 준비하게 했으며, 다시 전차 이천 대를 마련하여 갈대와 마른 땔감, 그리고 유황과 염초 등 불을 붙일 물건들을 가득 실었다. 전차 한 대당 네 명의 군사가 붙어 밀도록 했다. 때는 칠월 중순으로 초가을의 기운이 돌 무렵이었다. 유민은 부장인 노성, 정첩, 구맹, 고잠 네 사람과 철기병 만 명을 거느리고, 부드러운 갑옷을 입고 말의 방울을 떼어낸 채 뒤에서 엄호하게 했다. 유민은 편장 한철과 반택 등을 남겨 성을 지키게 했다.

유민 일행은 해 질 녘에 성을 떠났는데, 마침 남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다. 유민은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송강 일당을 반드시 패퇴시키리라!"

적군이 삼경(밤 11시~새벽 1시) 무렵에 이르러서야 방성산 남쪽 이리 밖까지 도달했을 때, 갑자기 안개가 골짜기에 자욱하게 깔렸다. 유민이 말했다. "하늘이 내 성공을 돕는구나!"

그는 군사들에게 뒤에서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 기세를 올리게 했다. 또한 오천 명의 군사에게는 숲이 울창한 곳을 향해 화전과 화포, 횃불을 마구 쏘아 올리고 불태우게 했다. 그리고 구멍과 필승, 그리고 전차를 미는 군사들에게는 화차에 불을 붙여 산기슭 아래 군량이 쌓인 곳을 향해 돌진하게 했다.

모두가 용맹하게 앞으로 나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남풍이 그렇게 거세게 불더니, 순식간에 어찌하여 북풍으로 바뀐 것인가! 또한 산 위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한 번 울려 퍼지더니, 교도청이 회풍반화(回風返火, 바람을 돌려 불을 되돌림)의 법술을 부린 것이었다. 그 화전과 횃불들이 모두 남쪽의 적진을 향해 날아들었으니, 마치 수만 마리의 금빛 뱀과 불룡이 거센 불길을 일으키며 적병을 향해 덮쳐드는 것과 같았다. 적병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길에 휩싸여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때 송나라 군사들 사이에서 유민을 비웃으며 네 구절의 구호가 터져 나왔다.

군사 기밀은 본래 헤아리기 어려운데,
도적놈이 망령되어 계획을 세우는구나.

군영에 불을 질러 스스로를 태우니,
참으로 대단한 유지백이로다.

그때 송나라 선봉장인 능진이 화포를 쏘게 하니, 화포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천지를 진동시켰다. 동쪽에서는 장청과 경영이, 서쪽에서는 손안과 변상이 각각 병사를 이끌고 돌격해 왔다. 적군은 크게 패하여 흩어졌다. 노성은 손안의 칼에 맞아 몸이 두 동강이 났고, 정첩은 경영이 던진 돌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자마자 장청의 창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고잠은 변상의 칼에 찔려 죽었고, 구맹은 난전 중에 병사들에게 살해당했다. 이만 삼천의 군마와 병사들은 불길에 휩싸이고 병사들에게 살육당하여 태반이 쓰러졌으며, 나머지는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전차 이천 대도 모두 불타 없어졌다. 오직 유민만이 삼사백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앞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망쳐 완주로 돌아갔다.

송나라 군대는 땀감 한 줄기도 태우지 않았고 군사 한 명의 피해도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탈취한 말과 갑옷, 북과 징이 매우 많았다. 장청과 손안 등은 승전보를 가지고 산채로 돌아와 공을 바쳤다. 손안은 노성의 머리를, 장청과 경영은 정첩의 머리를, 변상은 고잠의 머리를 가져왔다. 송강은 이들에게 각각 상을 내리며, 교도청을 일등 공신으로 치하하고 장청, 경영, 손안, 변상의 공로를 차례로 기록하게 했다.

오용이 말했다. "형님, 정말 놀라운 계책입니다. 적들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완주는 산과 물이 굽이치고 땅이 비옥하여 마치 육지의 바다와 같으니, 만약 적들이 장수들을 다시 불러 모아 중병으로 성을 지킨다면 단번에 함락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은 서늘한 가을바람이 더위를 쫓고 이슬이 내려 시원하니, 우리 군마들도 모두 기운을 차린 상태입니다. 마땅히 우리 군의 기세가 드높은 지금, 성 안의 수비가 허술할 때 속히 공격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의 구원군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력을 나누어 남북으로 진을 쳐야 합니다."

송강이 감탄하며 그 계책을 따랐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려 관승, 진명, 양지, 황신, 손립, 선찬, 학사문, 진달, 양춘, 주통에게 병마 삼만 명을 맡겨 완주의 동쪽에 진을 치게 했다. 이는 적의 남쪽 구원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또한 임충, 호연작, 동평, 삭초, 한도, 팽기, 단정규, 위정국, 구팽, 등비에게 병사 삼만 명을 맡겨 완주의 서쪽에 진을 치게 하니, 이는 적의 북쪽 병마가 올라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장수들은 명령을 받들어 군마를 정비하고 각자의 진영으로 떠났다.

이때 하북 출신의 귀순 장수 손안 등 열일곱 명이 일제히 찾아와 아뢰었다. "저희는 선봉장님께서 거두어 주신 은혜가 매우 깊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장서서 성을 공격함으로써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합니다."

송강이 이를 허락하고, 장청과 경영에게 명령하여 손안 등 열일곱 명의 장수와 군마 오만 명을 이끌고 선봉이 되어 공격하게 했다. 열일곱 명의 장수는 손안, 마령, 변상, 산사기, 당빈, 문중용, 최야, 금정, 황월, 매옥, 금정, 필승, 반신, 양방, 풍승, 호피, 엽청이었다. 장청은 즉시 명령을 받들어 장수와 군사를 거느리고 완주를 향해 진격해 나갔다.

송강은 노준의, 오용 등과 함께 나머지 장수와 대군을 거느리고 진영을 거두어 일으켰다. 그들은 방성산을 떠나 남쪽으로 진격하여 완주에서 십 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또한 이운, 탕릉, 도종왕에게 명령하여 공성 기구를 만들게 한 뒤, 장청 등이 전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냈다.

장청 등 여러 장수가 병마를 이끌고 완주를 에워싸니, 성 안의 물이 빠져나갈 틈조차 없을 정도로 빈틈이 없었다. 성 안의 수비 장수 유민은 그날 밤 송강의 계책에 빠져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 온 처지였다. 완주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남풍에 있는 왕경에게 급히 보고를 올리고, 인근 주와 현에도 공문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했다. 오늘 송나라 군대에게 성이 포위되었으니, 그저 성을 굳게 지키며 구원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때 공격하라는 내용이었다.

송나라 군대가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옛새나 이레 동안 성벽이 견고하여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완주 성 북쪽은 여주와 맞닿아 있는데, 적장 장수(張壽)가 구원병 이만 명을 이끌고 달려왔다. 그러나 임충 등이 그 주장인 장수(張壽)를 죽이니, 나머지 부장들과 병사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같은 날, 완주 남쪽의 안창과 의양 등지에서도 구원병이 도착했으나 관승 등이 적군을 크게 격파했다. 그들은 적의 장수인 백인과 장이를 사로잡아 송강의 대진으로 압송하여 처형했다. 양쪽에서 거둔 전과가 매우 컸다.

이때 이운 등이 이미 공성 기구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손안과 마령 등은 힘을 합쳐 군사들에게 흠을 담게 하여 성벽 사방을 에워싸고 성벽 가까이 밀어붙였다. 또한 용맹하고 몸놀림이 빠른 자들을 선발하

여, 날아다니는 다리를 놓는 기구와 회전식 도르래 등을 이용해 해자와 못을 건너게 했다. 군사들이 일제히 용맹하게 성벽을 기어오르자 마침내 완주를 함락시켰다. 수비 장수 유민을 생포하였고, 나머지 부장과 장수 중 스무여 명을 죽였으며, 군사 오천여 명을 사살하고 만 명을 항복시켰다.

송강과 대군이 성안으로 들어와 유민을 잡아 처형하여 본보기를 보이고,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관승, 임충, 장청과 손안 등 여러 장수의 공로를 차례로 기록했다. 이어 사람을 보내 양적주의 진안무에게 승전보를 전하고, 진안무 일행에게 완주로 거처를 옮겨달라고 청했다. 진안무는 승전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후참모, 나무유와 함께 완주로 왔다. 송강 일행은 성 밖으로 나가 그들을 영접하여 성 안으로 모셨다. 진안무가 송강 일행의 공훈을 칭찬하니, 그 말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송강은 완주에서 군무를 처리하였다.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흐르자 어느덧 8월 초순이 되어 무더위도 점차 물러가고 있었다. 송강이 오용에게 물었다. "이제 어느 성을 공략해야 하겠소?"

오용이 대답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가면 산남군이 나오는데, 남쪽으로는 호상 땅에 닿고 북쪽으로는 관락(關洛) 지역을 통제하니, 초나라와 촉나라의 인후(咽喉)와도 같은 요충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마땅히 이 성을 먼저 점령하여 적의 세력을 나누어 놓아야 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내 생각과 같소."

송강은 즉시 화영, 임충, 선찬, 학사문, 여방, 광성에게 명령하여 진안무를 보좌하게 하고, 병마 오만 명을 거느리고 완주를 지키도록 했다. 또한 진안무는 '성수서생' 소양을 남겨두고, 수군 두령 이준 등 여덟 명에게 명을 내려 수군 선박을 이끌고 비수에서 산남성 북쪽 한강 합류 지점까지 이동하도록 했다.

송강은 육군을 세 부대로 나누었다. 그는 진안무와 작별한 뒤, 수많은 장수와 병마 십오만 명을 거느리고 완주를 떠나 산남군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였다. 시로 이르되,

만 마리의 말들이 천지를 뒤흔들며 질주하니 하늘과 땅이 떨리고,
천군만마가 용맹하게 날뛰니 귀신조차 근심하더라.

결국 송나라 군사가 어떻게 산남군을 함락시킬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서생이 웃으며 강적을 상대 하고, 수군이 물길을 일으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다

書生談笑卻強敵 水軍汨沒破堅城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군사를 나누어 수로와 육로로 동시에 진격하게 하였는데, 배와 기병이 나란히 행군하였다. 육로의 군대는 세 부대로 나누었다.

전대(前隊)에는 적진을 돌파할 용맹한 장수 열두 명을 두어 병마 1만 명을 거느리게 하였다. 열두 명의 장수는 다음과 같다.

동평, 진명, 서녕, 삭초, 장청, 경영

손안, 변상, 마령, 당빈, 문중용, 최야

후대(後隊)에는 용맹한 장수 14명을 두어 병마 5만 명을 거느리고 후미(後尾)를 맡게 하였다. 그 14명의 장수는 다음과 같다.

황신, 손립, 한도, 팽기, 단정규, 위정국, 구봉

등비, 연순, 마린, 진달, 양춘, 주통, 양림

중대는 송강과 노준의가 통령 장수 90여 명과 함께 10만 군마를 거느리고 산남군(山南軍)을 향해 무섭게 쳐들어갔다.

전대(前隊)의 동평 일행은 이미 용중산 북쪽 5리 밖까지 진격하여 진을 쳤다. 이때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왕경이 우리 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용중산 북쪽 기슭에 특별히 정예병 2만 명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용맹한 장수인 하길, 미기, 곽간, 진빈에게 병마를 거느리고 그곳을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동평 일행은 보고를 듣자마자 즉시 계책을 세웠다. 손안과 변상이 병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왼쪽에 매복하게 하고, 마령과 당빈이 병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오른쪽에 매복하게 한 뒤, 아군 진영에서 포성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돌격하여 적을 치기로 했다.

군사 배치가 막 끝났을 무렵, 저쪽 적군들은 이미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징과 나팔을 울려대며 싸움을 걸어왔다. 양군이 서로 마주하니 깃발과 북소리가 서로 맞붙었고, 남북으로 진형을 갖춘 채 각자 강한 활과 쇠뇌를 쏘아 올려 적의 진영을 압박했다. 적진의 문 깃발이 열리더니, 적장 미기가 앞장서서 말을 타고 나왔다. 그는 머리에 강철 투구를 쓰고 철갑옷을 입었으며, 활에는 까치 깃털이 달린 화려한 장식이 있고 화살에는 독수리 깃털이 꽂혀 있었다. 얼굴은 자줏빛 살기가 돌고 눈은 낫쇠 방울처럼 부릅뜬 기세였다. 그는 긴 자루가 달린 커다란 도끼를 들고, 키가 큰 황색 말에 올라타 크게 외쳤다.

"네놈들은 고작 물웅덩이에 사는 좀도둑 같은 놈들인데, 어찌하여 송나라의 무도한 간신들을 위해 힘을 쓰며 이곳에 죽으려 왔느냐!"

송군 진영에서 북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자, '급선봉' 삭초가 말을 몰아 진영에서 뛰어나오며 크게 꾸짖었다.

"근거 없이 반란을 일으킨 강도 놈이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내 오늘 네놈을 도끼로 백 번은 찍어버리겠다!"

삭초는 금빛이 도는 도끼를 휘두르며 말을 달려 미기를 향해 돌격했다. 미기 역시 도끼를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양군이 연신 함성을 내지르고 두 장수가 격전의 한복판에서 맞붙었다. 두 기마병이 서로 엇갈리며 양손에 도끼를 치켜들고 50여 합을 싸웠으나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적장 미기는 과연 용맹했다.

송군 진영에서 '벽력화' 진명이 삭초가 승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늑대 이빨 모양의 철퇴를 휘두르며 말을 달려 지원하러 나갔고, 적장 진빈이 창을 휘두르며 맞이했다. 네 장수가 먼지 구름과 살기 속에서 한창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포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안과 변상이 이끄는 군사가 왼쪽에서 들이닥치자 적장 하길이 병력을 나누어 막아섰고, 마령과 당빈이 이끄는 군사가 오른쪽에서 들이닥치자 적장 곽간이 병력을 나누어 맞섰다.

이때 송군 진영에서 瓊英이 말을 몰아 돌진하며 몰래 돌을 집어 들었다. 그는 진빈을 겨냥해 돌을 날렸는데, 돌이 날아가 정확히 진빈의 콧등을 맞히자 진빈은 말에서 거꾸러졌다. 진명이 그 뒤를 이어 머리 위로 철퇴를 내리치니, 투구와 머리가 함께 박살이 났다. 왼쪽에서는

손안이 하길과 30여 합을 싸우다 손안의 칼에 맞아 말 아래로 떨어졌고, 오른쪽에서도 당빈이 곁간을 찔러 죽였다.

미기는 아군들이 패하는 것을 보고 삭초의 도끼를 막아낸 뒤 말을 돌려 달아나려 했다. 삭초, 손안, 마령 등이 군사를 몰아 추격하며 적을 몰아붙이자 적군은 크게 패퇴했다. 장수들이 미기를 쫓아 산굽이를 막 돌았을 때, 산 뒤쪽 숲속에 매복해 있던 적군 만 명이 갑자기 나타났다. 적장 경문과 설찬이 숲에서 튀어나와 미기의 군사와 합세하여 돌아서서 공격해 왔고, 미기가 그 선두에 섰다.

송군 진영의 문중용이 공을 세우려 창을 들고 말을 달려 미기와 맞붙었다. 그러나 열 합을 채 넘기지 못하고 미기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 문중용은 몸이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이를 본 최야는 몹시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달려 미기에게 달려들었다. 두 장수가 6, 7합을 싸울 때 당빈이 말을 몰아 도우러 왔다. 미기는 지원군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외치더니, 단 한 번의 도끼질로 최야를 말 아래로 베어 넘기고는 곧장 당빈을 막아섰다.

이때 장청과 瓊英은 두 장수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부부가 나란히 말을 타고 나섰다. 장청이 돌을 집어 미기에게 날렸으나, 미기는 눈이 밝고 손이 빨라 도끼로 쳐냈다. '챙'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돌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瓊英은 남편의 돌이 빗나가자 서둘러 다시 돌을 던졌다. 미기는 두 번째 돌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고개를 숙였으나,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돌은 그의 낫쇠 투구에 맞았다.

송군 진영의 서녕과 동평은 돌이 두 번이나 빛나가는 것을 보고 함께 말을 몰아 힘을 합쳐 공격해 들어갔다. 미기는 장수들이 몰려오자 당빈의 창을 막아내며 말을 돌려 도망쳤다. 당빈이 끈질기게 추격했으나 적장 경문과 설찬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미기는 결국 달아나 버렸다. 송군 장수들은 경문과 설찬을 죽이고 적군을 흩어버렸으며, 많은 말과 북, 갑옷 등을 전리품으로 챙겼다.

동평은 군사들에게 문중용과 최야의 시신을 수습하여 묻도록 명했다. 당빈은 두 장수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며 직접 군사들과 함께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 동평을 비롯한 아홉 명의 장수는 이미 군사를 이끌고 용중산 남쪽 기슭에 진을 친 뒤였다.

다음 날, 송강 일행의 두 부대가 모두 도착하여 동평 일행의 군사와 합류했다. 송강은 두 장수를 잃은 참혹한 광경을 보고 몹시 슬퍼했다. 예법을 갖추어 제사를 마친 뒤, 송강은 오용과 함께 성을 공격할 계책을 상의했다. 오용과 주무가 운제(구름 사다리)에 올라가 성의 형세를 살펴보니, 내려와 송강에게 말했다.

"이 성은 매우 견고하여 억지로 공격해 보았자 이득이 없습니다. 우선 공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강은 즉시 명령을 내려, 한쪽으로는 공성 병기들을 정비하게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예 병사들을 보내 사방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한편, 송강 일행이 성을 공격할 계책을 세우고 있을 때, 미기는 겨우 이삼백 명의 기병만을 이끌고 산남주성(山南州城)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 성을 지키는 주장은 왕경의 처남인 단이었다. 왕경은 송나라에서 송강 일행의 군마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단이를 평동대원수로 봉하여 이곳에서 성을 지키도록 특별히 명한 상태였다. 미기가 단이를 찾아가 뵈고는, 송강 일행의 병력이 워낙 용맹하여 장수 다섯 명을 잃고 군대가 전멸했으니, 원수님께 간곡히 청하오니 병력을 빌려주어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본래 미기 일행은 왕경이 보낸 자들이었기에 병력을 빌려달라는 표현을 쓴 것이었다.

단이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며 말했다.

"네놈이 비록 내 직속 부하는 아니나, 병사를 잃고 장수를 죽인 죄는 내가 직접 물어 죽여버리겠다!"

단이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미기를 묶어 끌어내어 참수하려 할 때, 막사 아래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아뢰었다.

"원수님,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자를 일단 살려두십시오."

단이가 보니, 그는 왕경이 보낸 참군 좌모였다. 단이가 물었다.

"그럼 어찌하여 이 자를 살려두어야 한단 말이나?"

좌모가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미기가 매우 용맹하여 송군의 장수 두 명을 연달아 베었다고 합니다. 송강 일행의 병력이 정말로 강하니, 힘으로 맞서기보다는 지혜로써 취해야 합니다."

단이가 물었다.

"지혜로써 취한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좌모가 설명했다.

"송강 일행의 군량과 보급품은 모두 완주에 쌓아두고 그곳에서 운반해 옵니다. 듣자하니 완주의 병력은 단출하고 약하다고 하니, 원수님께서 밀사를 보내 군주와 공주의 수성 장수들에게 약속을 정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양쪽 길로 출병하여 완주의 남쪽을 습격하게 하고, 저희 쪽에서도 정예병을 선발하여 미기 장군에게 맡기겠습니다. 그가 공을 세워 죄를 씻도록 완주의 북쪽을 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송강 일행이 이 소식을 들으면 완주가 위험해질까 두려워 반드시 병사를 돌려 완주를 구하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퇴각할 때 저희가 다시 정예병을 내보내 양쪽에서 치면 송강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이는 본래 시골뜨기 사내라 병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으나, 좌모의 말을 듣고는 곧바로 그 계책을 따랐다. 그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 군주와 공주 두 곳에 약속을 정하러 보냈다. 이어 군마 이만 명을 정비하고, 미기와 궐추, 옹비 세 장수에게 명하여 철혹 같은 밤에 서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게 했다. 그들은 깃발을 거두고 북소리를 죽인 채, 일제히 완주를 향해 달려갔다.

한편, 송강이 막사에서 성을 공격할 계책을 궁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수군 두령 이준이 진영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수군의 배들이 이미 성의 북서쪽인 한강과 양수의 두 곳에 모두 정박하여 진을 쳤습니다. 명을 받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송강은 이준을 막사에 머물게 하고 술을 몇 잔 나누었다. 그때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성 안의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병마를 이끌고 완주를 습격하러 간다는 소식을 전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오용과 상의했다. 오용이 말했다.

"진 안무와 화 장군 모두 담력이 있고 지략이 있는 자들이니 완주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이용해 반드시 저 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그러고는 송강에게 한참 동안 비밀스러운 계책을 속삭였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이준과 보병 두령 포옥 등 스무 명에게 비밀 계책을 전수했다. 그들은 보병 이천 명을 이끌고 밤을 틈타 이준을 따라 아무런 말 없이 떠났다.

한편, 적장 미기 일행이 군사를 이끌고 완주에 도착하자, 길목을 지키던 소규모 초병이 이 소식을 완주에 보고했다. 진 안무는 화영과 임충에게 명령하여 군마 이만 명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게 했다. 두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막 성을 나서려는데, 이번에는 유성처럼 빠른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미기 일행이 군주의 적군과 약속한 대로, 군주의 병마 삼만 명이 이미 성 북쪽 십 리 밖까지 당도했습니다!"

진관은 다시 여방과 곽성에게 명령하여 군마 이만 명을 이끌고 북문을 통해 나가 적을 맞이하게 했다. 채 한 시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급보가 날아들었다.

"공주의 적장 계삼사와 예습 등이 병마 삼만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무섭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하며 말했다.

"성 안에는 선찬과 학사문 두 장수뿐이고, 병력은 일만이 넘는다 해도 대부분 노약자들인데 이를 어찌 막아낸단 말인가?"

그때 '성수서생' 소양이 나섰다.

"안무 어른,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저 소양에게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양은 두 손가락을 겹쳐 보이며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적들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진관을 비롯한 모든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진관은 즉시 명령을 내려 선찬과 학사문에게 강건한 군사 오천 명을 선발하여 서문 안에 매복하게 한 뒤, 적이 퇴각할 때를 기다려 공격하라고 일렀다. 두 장수는 계책을 받들어 움직였다. 진관은 다시 노약한 군사들에게는 성

을 지키려 애쓰지 말고 깃발을 모두 눕혀 놓으라고 명했다. 그리고 서문 성루에서 포성이 울리면 일제히 깃발을 높이 세우되, 성 안에서만 움직이고 성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배치가 모두 끝나자, 진 안무는 군사들에게 술과 음식을 들게 하여 서문 성루에 차려 놓게 했다. 진관과 후몽, 나전도 즉시 성루에 올라가 웃고 떠들며 술을 크게 마셨고, 군사들에게 성문을 활짝 열어두어 적병이 오기를 기다리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장 계삼사와 예습이 열 명 남짓한 편장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성 아래로 들이닥쳤다. 그런데 성문이 활짝 열려 있고, 성루 위에는 관리 세 명과 선비 하나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방의 성벽에는 깃발 하나 보이지 않았다. 계삼사는 의아해하며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예습이 말했다.

"성 안에서 분명 무언가 준비했을 것이요. 우리 어서 퇴각합시다. 저들의 계략에 빠지면 안 됩니다."

계삼사가 급히 군사를 물러나게 하려는데, 갑자기 성루에서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졌다. 이어 하늘을 뒤흔드는 함성과 땅을 울리는 북소리가 들려오더니, 성벽 안에서 수많은 깃발이 어지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적병들은 이미 주장의 말에 의심을 품고 있던 차에, 성 안의 모습까지 이러하니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혼란에 빠졌다.

그때 성 안에서 선찬과 학사문이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들이닥치니, 적병들은 대패하여 금고와 깃발, 병기, 말과 갑옷을 무수히 버려둔

채 흠어졌다. 그 과정에서 적의 머리 만여 개를 베었다. 계삼사와 예습은 혼란스러운 군중에 휩쓸려 죽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선찬과 학사문은 승리하여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돌아왔고, 진 안무 일행은 이미 사령부로 이동한 뒤였다. 북쪽 길의 화영과 임충은 쫓고와 오비 두 장수를 죽이고 적군을 흠어버렸다. 홀로 미기만이 도망친 것을 확인하고 승전보를 울리며 성으로 들어가려는데, 또 다른 두 갈래의 적군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서쪽 길의 병력은 이미 소양의 묘책을 물리쳤으나, 남쪽 길의 여방과 광성은 아직 승패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화영 일행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즉시 남쪽으로 달려가게 했다. 마침 여방과 광성이 적장들과 격렬히 싸우고 있을 때, 임충과 화영이 군사를 몰고 달려와 지원하니 적병들은 마치 떨어지는 별과 흠어지는 구름처럼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적을 베어 넘겼다. 그날 세 갈래의 적군 중에서 죽은 자는 삼만여 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셀 수도 없었다. 들판에는 시체가 즐비하고 논밭은 피로 물들었다.

임충, 화영, 여방, 광성은 모두 군사를 거두어 성으로 들어왔고, 선찬, 학사문과 함께 사령부에 이르러 승전보를 올렸다. 진관, 후몽, 나전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소양의 묘책과 화영 등 장수들의 용맹함을 칭송했다. 장수들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진 안무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장병들을 격려하고 삼군을 위로했다. 또한 소양과 임충 등의 공로를 기록하고 성을 굳게 지켰다. 이 일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한편, 단이가 미기 일행을 보내 성 밖으로 출전시킨 뒤, 다음 날 밤 단이는 성루 위에서 송군의 움직임을 살폈다. 때는 마침 팔월 보름이 되기 전이라, 떠오른 밝은 달이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단이가 보니 송군의 깃발이 어지럽게 흔들리며 서서히 북쪽으로 퇴각하고 있었다. 단이가 좌모에게 말했다.

"송강이 완주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군사를 물리는 모양입니다."

좌모가 대답했다.

"분명 그럴 것입니다! 어서 철기병을 출동시켜 추격하며 습격합시다."

단이는 즉시 전빈과 전의 두 장군에게 명령하여 병마 이만 명을 정비해 성 밖으로 나가 송군을 추격하게 했다. 두 장군은 명을 받들어 떠났다. 단이가 서쪽을 바라보니, 성 밖 양수의 물결이 달빛을 받아 위아래로 출렁이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송군의 양식선 삼오백 척도 점차 북쪽을 향해 노를 저어 가고 있었다.

평소 약탈에 익숙했던 단이는 오늘 밤 수많은 양식선이 보이고, 그 배들을 지키는 수군도 별로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배마다 고작 예닐곱 명의 사공만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본 단이는 즉시 서쪽 성문의 수문을 열게 하고, 수군 총관 제능에게 명령하여 전선 오백 척을 이끌고 나가 양식선을 약탈하라고 일렀다.

송군 쪽에서는 배들이 습격당할 것을 보고 급히 강가로 배를 붙였고, 배 위의 사공들은 모두 육지로 뛰어내려 도망쳤다. 그때 제능이 이

끄는 전선들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송군의 배들 사이에서 징 소리가 울리더니 백여 척의 작은 어선들이 나타났다. 배마다 두 명은 노를 젓고, 서너 명은 방패와 표창, 박도(朴刀) 같은 단병을 든 채 마치 날아오듯 달려들었다. 제능이 수군들에게 화포와 불화살을 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어선에 탄 이들은 적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적군은 승기를 잡고 양식선을 탈취했다.

제능은 수군들에게 배를 몰아 성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겨우 한 척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성 안에서 군령이 내려와 배를 한 척씩 살살이 검사한 뒤에야 들어오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제능은 군사들에게 먼저 들어온 배부터 조사하라고 시켰다. 십여 명의 군사가 일제히 배에 올라가 바닥 판자를 들추려 했으나, 마치 통나무를 깎아 만든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제능이 크게 놀라 말했다.

"분명 간계에 빠졌구나! 어서 도끼와 정으로 깨부수어 확인해 보아라! 성 밖의 다른 배들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 밖 뒤편에서 양식선 서너 척이 노를 젓는 사람도 없이 마치 조류를 타거나 순풍을 받은 듯 스스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제능이 계략임을 깨닫고 급히 상륙하려 할 때, 물속에서 열댓 명의 사람이 쑥 솟아올랐다. 그들은 모두 입에 요엽도(蓼葉刀, 여뀌 잎 모양의 칼)를 물고 있었으니, 바로 이준과 두 장씨(장황·장순), 세 완씨(완소이·완소오·완소칠), 두 동씨(동위·동맹), 이 여덟 명의 호걸이었다.

적병들이 급히 무기를 꺼내 찌르려 할 때, 이준이 휘파람을 크게 불었다. 그러자 다섯 척 남짓한 양식선 안에 숨어 있던 보병 두령들이 판자 아래에서 장대를 뽑아내고 바닥 판자를 밀어젖히며 크게 소리치고는, 단병을 든 채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바로 포옥, 향충, 이준, 이규, 노지심, 무송, 양웅, 석수, 해진, 해보, 공왕, 정득손, 추연, 추운, 왕정육, 백승, 단경주, 시천, 석용, 룡진 등 스무 명의 두령과 천여 명의 보병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달려 나와 적들을 베어 넘기며 상륙했다. 적병들은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제능은 동위에게 죽임을 당했고, 성 안팎의 전선에 있던 수군들도 이준 일행에게 대부분 죽임을 당해 강물이 붉게 물들었다. 이준 일행이 수문을 장악하자, 포옥 일행은 맹수처럼 달려들며 룡진에게 명령하여 굉천자모호(轟天子母號) 포를 쏘게 하고, 각지로 흩어져 불을 질러 적을 살상했다. 성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어, 형제와 부모를 찾는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찢었다.

단이가 번고를 듣고 급히 병력을 이끌고 지원하러 왔다가, 마침 무송, 유당, 양웅, 석수 일행과 맞닥뜨렸다. 단이는 왕정육의 박도에 다리가 맞아 쓰러지며 생포되었다. 노지심과 이규 등 열댓 명의 두령은 북문에 이르러 성문을 지키던 장병들을 물리치고 성문을 열었다.

이어 현수교를 내렸다. 이때 송강의 군마가 성 안에서 울려 퍼지는 굉천자모호의 포성을 듣고는, 즉시 군사를 돌려 공격해 왔다. 마침 전빈과 전의의 병마와 맞닥뜨려 한바탕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전빈은 변상에게 죽임을 당했고, 전의는 마령에게 맞아 쓰러진 뒤 군마에 짓밟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고깃덩이가 되었다. 삼만 철기병 중 절반 이

상이 전사했다. 손안, 변상, 마령 등이 앞장서서 군사를 이끌고 거침없이 북문 안으로 진격했다. 장수들이 적병을 흠어버리고 성을 탈환하자, 송 선봉의 대군을 성 안으로 불러들였다.

이때는 이미 오경(五更, 새벽 3시~5시 사이) 무렵이었다. 송강은 군사들에게 먼저 불을 끄고 민가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하며, 백성을 해치지 말라고 엄히 일렀다. 날이 밝자마자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고, 여러 장수는 적의 머리를 가져와 공을 세웠음을 보고했다. 왕정육이 단이를 포박해 끌고 오자, 송강은 군사를 보내 단이를 진관(陳瓘)에게 압송하여 처벌하게 했다. 좌모는 난전 중에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외에도 편야(偏牙, 부대)의 장수와 병사들 중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나, 항복한 군사는 만여 명에 달했다.

송강은 소와 말을 잡아 군사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이준 등 여러 장수의 공을 기록하여 공적 순위를 정했다. 이어 마령을 진관에게 보내 승전보를 전하게 하고, 적군의 동태를 살피도록 했다. 마령이 명을 받들어 두세 시진(약 4~6시간) 만에 돌아와 보고했다.

"진관께서 승전보를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즉시 표문을 작성하여 조정에 보고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령이 소양이 적을 물리친 일까지 덧붙여 말하자, 송강이 놀라며 말했다.

"만약 적들이 그 계책을 알아챘다면 어찌할 뻔했는가? 역시 소양의 식견이 뛰어나구나."

송강은 창고의 곡식을 풀어 전쟁의 불길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구휼하고 여러 군무를 마쳤다. 송강이 오용과 함께 형남군을 공격할 계획을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진관으로부터 추밀원(樞密院, 군사 최고 기구)의 공문이 전달되어 왔다. 공문의 내용은 이러했다.

"서경의 적들이 횡포를 부리며 동경(東京) 인근의 현들을 약탈하고 있으니, 송강 등은 먼저 서경을 평정하고 그 후에 왕경의 근거지를 토벌하라."

진관은 이와 별도로 추밀원의 처사가 가소롭다는 내용의 개인적인 편지도 함께 보내왔다.

송강과 오용은 공문의 뜻을 모두 파악하고 즉시 군사를 나누어 진격할 계획을 의논했다. 한쪽으로는 형남군을 공격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서경을 치기로 한 것이다. 이때 부선봉 노준의와 하북에서 항복해 온 장수들이 모두 군사를 이끌고 서경으로 가서 성을 함락시키기를 원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장수 24명과 군마 5만 기를 내어 노준의에게 맡겨 서경으로 보내게 했다. 노준의와 함께 떠난 24명의 장수는 다음과 같다.

부선봉 노준의

양지, 서녕, 삭초, 손립, 단정규

위정국, 진달, 양춘, 연청, 해진

해보, 추연, 추운, 설영, 이충

교도청, 마령, 손안, 변상, 산사기, 당빈.

노준의는 그날로 송강과 작별하고 장수와 군마를 거느린 채 서경을 정벌하러 떠났다. 송강은 사진, 목홍, 구봉, 등비에게 이만 명의 병마를 맡겨 산 남쪽의 성곽을 지키게 했다. 송강이 사진 등에게 말했다. "만약 적군이 들이닥치거든, 오직 성을 굳게 지키는 데 힘쓰라." 송강은 수많은 장수와 팔만 명의 병마를 거느리고 형남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해 나갔다. 창칼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고, 인마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이 이러하니,

시로 이르되:

깃발은 붉게 펼쳐져 하늘을 물들이고, 칼과 창은 하얗게 깔려 천리에 눈이 내린 듯하구나.

결국 형남을 어떻게 공격하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송강이 기산군을 크게 물리 치고, 주무가 육화진을 깨뜨리다

宋江大勝紀山軍 朱武打破六花陣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장수와 군마를 거느리고 형남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다. 매일 예순 리를 이동하며 진을 쳤는데, 대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들에게는 털끝만큼의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군대가 기산 지역에 이르러 진을 치니, 기산은 형남 북쪽에 위치한 요충지였다. 그곳에는 적장 이양(李懷)이 병사 삼만 명을 거느리고 산 위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이조(李助)의 조카였다. 왕경은 이양을 선무사로 봉했다. 이양은 송강 일행이 산남의 군대를 격파하고 단이(段二)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사람을 보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풍으로 달려가 왕경과 이조에게 보고하게 했다. 그 보고는 이러했다. '송나라 군사의 기세가 강하여 이미 큰 고을 두 곳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형남을 치러 오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노준의의 병력을 따로 나누어 서경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조는 이 보고를 듣고 크게 놀라 즉시 궁으로 들어가 왕경에게 알리려 했다. 내시가 안으로 들어가 아뢰자 어명이 전해져 나왔다. '군사는 기다리고 있으라. 대왕께서 곧 전각으로 나오실 것이다.'

이조가 두 시진을 기다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이조가 친분이 있는 가까운 내시에게 은밀히 까닭을 묻자, 그 내시가 말했다. '대왕께서 지금 단(段) 낭랑과 한창 다투고 계십니다!' 이조가 '어찌하여 대왕과 낭랑께서 다투시는가?'라고 묻자, 내시가 이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대왕께서 단 낭랑의 생김새가 그러하다 하여 한동안 단 낭랑의 궁에 들지 않으셨는데, 그 때문에 단 낭랑이 노하신 것입니다.'

이조가 다시 한참을 기다리자 내시가 나와 말했다. '대왕의 분부입니다. 군사가 아직 여기 있는가?' 이조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내시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아뢰었다. 잠시 후, 여러 내시와 궁녀들이 왕경을 에워싸고 앞쪽 전각으로 나와 자리에 앉았다. 이조는 엎드려 절을 올린 뒤 아뢰었다. '소신의 조카 이양이 보고하기를, 송강 일행이 용맹하고 병력이 강하여 완주와 산남 두 성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송강은 병력을 나누어 한 갈래는 서경을 치고, 다른 한 갈래는 형남을 공격하려 합니다. 부디 대왕께서 군사를 내어 구원해 주시옵소서.'

왕경은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외쳤다. '송강 저놈들은 물웅덩이의 풀도적 때에 불과한데, 어찌 이리도 날뛰는단 말이나!' 그러고는 즉시 명을 내려, 도둑 두학(杜壘)에게 장수 열두 명과 병사 이만 명을 거느리고 서경을 구원하게 했고, 또 통군대장 사우(謝宇)에게 장수 열두 명과 병사 이만 명을 거느리고 형남을 구원하게 했다. 두 장수는 병부(兵

符)와 명령서를 받아 병사를 선발하고 무기를 정비했다. 가짜 추밀원에서는 장수들을 배정하고, 가짜 전문사 공정(龔正)은 군량을 운반하여 두 장수를 지원하게 했다. 이들은 왕경에게 작별을 고한 뒤, 각각 병사를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두 곳을 구원하러 떠났으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 둔다.

한편, 송강의 군대는 기산 북쪽 십 리 밖에서 진을 치고 공격을 준비했다. 군사들이 적의 동태를 살핀 뒤 사실대로 보고해 왔다. 송강은 오용과 함께 계책을 논의한 뒤 장수들에게 말했다.

'내가 듣기로 이양(李懷)의 수하에는 용맹한 장사들이 가득하다고 한다. 기산은 형남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비록 우리 군사와 말이 적보다 배는 많으나, 적은 험한 지형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는 산 그늘진 아래쪽에 있어 자칫 적에게 갇힐 수 있다. 저 이양은 교활하고 변화무쌍한 자이니, 형제들이 싸울 때는 반드시 형세를 잘 살펴야 하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말을 마친 송강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장수들은 진영으로 들어가 즉시 문을 닫고 길을 정비하라. 감히 멋대로 움직이는 자는 죽이고, 큰 소리로 떠드는 자도 죽일 것이다. 군령은 두 번 내리지 않으며, 두 번 명령을 내리는 자도 죽이고 명령을 묵히는 자도 죽일 것이다.'

명령이 떨어지자 군중은 숙연해졌다. 송강은 대종을 시켜 수군 두령 이준 등에게 전하게 하여, 식량과 배를 신중히 경계하며 차례로 군영 앞으로 운반해 오도록 했다. 또한 사람을 보내 이양에게 도전장을 전달

하고 다음 날 결전을 치르기로 약속했다. 송강 선봉은 진명, 동평, 호연작, 서녕, 장청, 경영, 금정, 황월에게 병사 이만 명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라고 명했다. 그리고 초정, 옥보사, 단경주, 석용에게는 보병 이천 명을 거느리고 숲을 베어 길을 넓혀 전투하기 좋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배치가 모두 끝나자, 송강과 나머지 장수들은 각자 진영을 지키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오경(五更), 군사들은 아침 식사를 배불리 하고 말에게 여물을 먹였다. 날이 밝자 전투가 시작되었다. 적장 이양(李懷)은 부장 마강(馬戩), 마경(馬勁), 원랑(袁朗), 등규(滕玃), 등감(滕戡)을 거느리고 병사 이만 명을 이끌고 돌격해 내려왔다. 이 다섯 명은 적들 중에서도 가장 용맹한 자들로, 왕경이 그들을 호위장군(虎威將軍)으로 봉했다.

곧이어 적군과 진명의 군대가 서로 마주했다. 적군은 북쪽 산기슭의 평지에 늘어섰고, 산 위에는 수많은 병마가 뒤를 받치며 대기하고 있었다. 양측 진영에서는 깃발이 휘날리고 대열이 늘어섰으며, 강한 활과 쇠뇌를 쏘아 진영의 발치를 지켰다. 북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고 오색 깃발이 눈을 어지럽혔다.

적진의 문 깃발이 열리더니, 적장 원랑이 말을 몰아 앞장서 나왔다. 그는 머리에 잘 붙린 구리 투구를 쓰고, 꽃무늬가 수놓인 비단 도포를 입었으며, 검은 기름을 칠하고 쇠를 박은 갑옷을 둘렀다. 말은 곱슬 털의 검은 오추마였고, 붉은 얼굴에 누린 수염을 한 구척장신의 체구였다. 그는 양손에 물갈이로 단련한 강철 과(搥)를 들었는데, 왼손의 것

은 무게가 열다섯 근, 오른손의 것은 열여섯 근이었다. 그가 크게 외쳤다.

'물웅덩이의 풀도적 놈들아, 누가 감히 앞으로 나와 목숨을 내놓겠느냐!'

송강의 진영에서는 하북 출신의 항장 금정과 황월이 첫 공(頭功)을 세우고자 두 기병이 함께 진영 밖으로 달려 나가며 꾸짖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적 놈들이 어찌 입을 놀리느냐!'

금정은 바람을 가르는 큰 칼을 휘두르고, 황월은 묵직한 점강창(點鋼鎗)을 들고 원랑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원랑 역시 두 개의 강철과를 휘두르며 맞서니, 세 기병이 정(丁)자 모양으로 벌려 격렬하게 싸웠다. 세 장수가 서른 합을 넘게 싸우던 중, 원랑이 과로 공격을 막아내더니 말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금정과 황월이 말을 몰아 뒤쫓자, 원랑이 갑자기 말을 돌려 맞섰는데 금정의 말이 조금 앞서 있었다. 금정이 칼을 휘둘러 내리치려는 찰나, 원랑이 왼손의 과를 들어 맞받아쳤다. '챙!' 하는 소리와 함께 금정의 칼날이 이가 빠져버렸다. 금정이 미처 칼을 거두기도 전에 원랑의 오른손 과가 금정의 투구를 머리째 짓눌러 박살을 냈고, 금정은 말 아래로 떨어졌다. 그 순간 황월의 창이 원랑의 가슴을 향해 찔러 들어왔다. 원랑은 눈이 밝고 손이 빨라 몸을 획 피했고, 황월의 창은 허공을 가르며 그의 오른쪽 옆구리 아래로 지나쳐갔다. 원랑은 왼팔로 과를 끼고 오른손으로 창대를 낚아채 뒤로 확 잡아당겼다. 황월은 그대로 원랑의 품 안으로 고꾸라졌다. 원랑은 오른손으로 그의 허리를 껴안아 사로잡고는 말을 몰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다. 적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황월을 끌고 진영 안으로 사라졌고, 황월의 말만 홀로 본진으로 돌아왔다.

송강의 진영에서 '벽력화' 진명은 두 장수를 잃은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가 낭아곤(狼牙棍)을 휘두르며 원랑을 몰아붙였다. 원랑 역시 과를 휘두르며 맞섰다. 두 사람이 쉼 없이 싸우고 있을 때, 송강 측의 여장수 경영이 은빛 갈기의 말을 몰아 방천화극을 비껴들고 달려 나왔다. 그녀는 머리에 자금색에 비취를 박은 봉관을 쓰고, 붉은 비단에 수를 놓은 전포를 입었으며, 그 위에 금을 박은 백은세갑(細甲)을 걸친 채 진명을 도우러 나왔다.

적장 등규(滕玦)는 상대가 여인인 것을 보고 말을 몰아 앞으로 나오며 크게 웃었다.

'송강 일행은 정말 도적 떼로구나. 어찌 부녀자를 전장에 내보낸단 말이냐!'

등규는 삼첨양인도를 휘두르며 경영과 맞붙었다. 두 사람이 열 함 남짓 싸우자, 경영은 화극으로 등규의 칼을 쳐서 떼어놓고는 말을 돌려 본진으로 달아나는 척했다. 등규가 크게 호통을 치며 말을 몰아 쫓아오자, 경영은 안장 옆 수놓은 주머니에서 몰래 돌을 꺼내 버들 같은 허리를 비틀며 등규를 겨냥해 던졌다. 날아간 돌이 정확히 등규의 얼굴 정면에 명중하여 살가죽이 터지고 피가 솟구쳤으며, 그는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경영이 즉시 말을 돌려 쫓아가 다시 화극을 휘둘러 등규의 숨통을 끊었다.

이를 본 등감(滕戡)은 여장수가 자신의 형을 죽인 것을 보고 격분하여, 호안죽절강편(虎眼竹節鋼鞭)을 휘두르며 경영을 치러 나왔다. 이때 '쌍편장' 호연작이 말을 달려 채찍을 휘두르며 그를 막아섰다. 구경하던 장수들은 두 사람의 무예가 막상막하이고 차림새도 비슷하다고 여겼다. 호연작은 하늘을 찌르는 뿔 모양의 철복두(鐵幞頭)를 쓰고, 금실로 짠 누런 비단 말액(襪額)을 두르고, 칠성으로 못을 박은 검은 비단 도포를 입었으며, 검은 기름을 칠하고 쇠를 박은 갑옷을 두르고 눈을 차널 듯한 검은 오추마를 탔다. 등감은 엇각의 철복두를 쓰고, 다홍빛 비단 말액을 두르고, 온갖 꽃에 비취를 점점이 박은 검은 비단 도포를 입었으며, 검은 기름에 금을 상감한 갑옷을 두르고 누런 갈기의 말을 탔다. 호연작은 다만 물갈이로 단련한 팔각 강철 채찍 하나를 더 가졌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진영 앞에서 좌우로 돌고 오가며 쉴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편, 진명과 원랑 두 사람은 이미 백선 합 넘게 싸우고 있었다. 적진의 주장(主將) 이양은 높은 언덕 위에서 여장수의 돌팔매가 위력적 이어서 등규를 잃은 것을 보고는 즉시 징을 쳐서 군사를 거두었다. 진명과 호연작은 적장이 용맹한 것을 보고 굳이 추격하지 않았다. 원랑과 진명도 각자 진영으로 돌아갔고, 적병들도 산 위로 올라갔다.

진명 일행은 군사를 거두어 본진으로 돌아와, 적장이 용맹하여 금정과 황월을 잃었으니 장청의 부인(경영)이 아니었다면 우리 군의 예기가 꺾일 뻔했다고 말했다. 송강은 매우 근심하며 오용에게 의논했다.

'이래서야 어찌 형남을 칠 수 있겠는가?'

오용이 두 손가락을 맞대어 계책을 그려 보이며 말했다.

'다만 이리이리하면 됩니다.'

송강이 그 계책에 따르기로 했다. 송강은 즉시 노지심, 무송, 초정, 이규, 번서, 포옥, 항충, 이곤, 정천수, 송만, 두천, 공왕, 정득손, 석용 등 열네 명의 두령과 능진을 불러, 날래고 용맹한 보병 오천 명을 거느리고 오늘 밤 달빛 없는 어두운 틈을 타 저마다 가벼운 갑옷을 입고 단병기와 방패, 표창, 비도를 챙겨 셋길로 산 뒤편으로 돌아가 일을 도모하게 했다. 장수들은 명령을 받들어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이양(李懷)이 군사를 보내 도전장을 보내오자 송강과 오용이 상의했다. 오용이 말했다.

'적들이 분명 교묘한 계략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노지심 일행은 이미 적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으니, 서둘러 교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송강이 그날로 교전하기로 결재하자, 군사가 답서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송강은 다시 진명, 동평, 호연작, 서녕, 장청, 경영을 전부(前部)로 삼아 병마 이만을 거느리게 했다. 활과 쇠뇌를 곁에 세우고 방패와 창을 안에 받치며, 전차를 앞에 세우고 기병을 보조로 삼아 나아가 돌격하게 했다. 또 황신, 손립, 왕영, 호삼낭에게는 병마 일만을 정비하여 진영에서 대기하게 했고, 이응, 시진, 한도, 팽기에게도 병마 일만을 정비하여 진영에서 대기하게 하며 명했다.

'전군의 신호포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동서 양쪽 길로 적의 진영 앞까지 우회해 들이쳐라.'

이어 관승, 주동, 뇌형, 손신, 고대소, 장청(채원자), 손이낭에게는 마보군 이만을 거느리고 본진 뒤에 진을 쳐서 적의 구원병이 오는 것에 대비하게 했다. 배치가 모두 끝나자 송강은 오용, 공손승과 함께 직접 전투를 독려하기로 하고, 나머지 장수들은 진영을 지키게 했다.

이날 진시(辰時) 무렵, 오용이 운제(雲梯)에 올라 살펴보니 산세가 험준했다. 그는 즉시 군마에 영을 전해 진영을 이 리 더 뒤로 물려 벌이게 했다. 그래야 양쪽 길의 복병(奇兵)이 손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형 배치가 막 끝났을 무렵, 기산의 적장 이양(李懷)은 원랑, 등감, 마강(馬驚), 마경(馬勁) 네 명의 용맹한 장수를 거느리고 이만 오천의 병마를 이끌고 나타났다. 등감은 군사들에게 대나무 장대로 황월의 머리를 매달게 하고, 진을 돌파할 철기병 오천을 직접 거느리고 나섰다. 군사들은 모두 깊은 투구를 쓰고 철갑을 둘러 두 눈만 겨우 내놓았으며, 말들 또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얼굴 가리개를 씌워 네 발굽만 땅에 드러나 있었다. 이는 어제 여장수의 돌팔매에 장수가 다치는 것을 본 이양이, 오늘은 화살과 돌이 날아와도 갑옷이 몸을 지켜 주도록 그렇게 차린 것이었다.

그 오천 기의 철기병은 궁수 두 명이 장창수 한 명을 양옆에서 끼고 보좌하며 맹렬히 돌격해 왔다. 뒤따르던 군사들도 두 갈래로 나뉘어 협공하며 물려들었다. 송강은 그 기세를 당해 내지 못하고 급히 뒤로 물러나며, 즉시 신호포를 쏘아 올리게 했다. 수레를 밀던 군사 수백 명이 이미 화살에 맞아 다쳤으나, 전차가 앞을 막아 준 덕분에 철기병이 더는 전진하지 못했다. 전차 뒤에 기병들이 있었으나 역시 앞으로 나아가 무예를 펼칠 수 없었다.

위급한 순간, 산 뒤편에서 연달아 포성이 울려 퍼졌다. 노지심 일행이 험한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 산채로 쳐 올라간 것이었다. 산채 안의 적병은 노약자 오천과 편장 한 명뿐이었는데, 노지심 등이 그들을 모조리 몰살하고 산채를 빼앗았다. 이양 일행은 산 뒤편에서 번고가 일어난 것을 보고 급히 퇴각하려 했으나, 황신 등 네 장수와 이응 등 네 장수가 이끄는 두 갈래 군대가 양쪽에서 에워싸며 몰아치기 시작했다. 송강이 다시 총포수들에게 철기병을 치게 하자 적군은 크게 무너졌다.

노지심과 이규 등 열네 명의 두령은 보병을 이끌고 산 위에서 아래로 돌격해 내려왔고, 적병들은 비처럼 흩어지고 별처럼 흩날려 어지러이 도망쳐 목숨을 부지하려 했다. 안타깝게도 용맹했던 원량은 화포에 맞아 죽었고, 뒤에 있던 이양은 노지심에게 맞아 죽었다. 마경과 등감은 난전 중에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오직 마강(馬騁) 한 사람만 달아났다. 빼앗은 갑옷과 징·북, 말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삼만에 달하던 적군 중 태반이 죽었다. 산 위아래에 시체가 가득했다. 송강이 군사를 거두어 점검하니 아군도 천여 명을 잃었다. 날이 저물었기에 송강은 그대로 기산 북쪽에 진을 쳤다.

다음 날, 송강은 장수들을 거느리고 산에 올라 금은보화와 군량을 채기고 적의 진영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그러고는 삼군 장병들에게 큰 상을 내리는 한편, 노지심 등 열다섯 명과 경영의 공로를 기록하여 게시하고 병사들을 독려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기산을 지나자 대군이 형남의 십오 리 밖에서 진을 쳤다. 송강은 군사 오용과 함께 계책을 논의하며 장수와 병사들을 배치하여 성들을 공격하기로 하였으니, 그 뒤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이야기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 노준의의 군대가 서경을 향해 진격하는 상황을 말한다. 노준의의 군대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보풍 등의 지역에 있던 적장 무순 일행은 향을 피우고 등불을 밝히며 성문을 열고 성을 바쳤으니, 이로써 조정에 귀순하게 되었다. 노준의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무순에게 성을 지키게 하자, 적장이었던 이들은 모두 감격하여 마음과 간을 다해 사악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왔다. 이로써 노준의 일행은 뒤를 걱정할 필요 없이 군사를 몰아 거침없이 직진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준의의 군대는 서경 성남 삼십 리 밖인 이궐산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 정탐해 보니 성 안에는 가짜 선무사인 공단과 통군 해승, 그리고 여러 명의 용맹한 장수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해승이라는 통군은 진법을 익혀 그 오묘한 이치를 깊이 알고 있는 자였다. 노준의는 즉시 주무와 함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어떤 계책을 써야 할지 논의했다.

주무가 말했다. "해승 그놈은 병법을 꽤나 아는 자이니, 반드시 적과 맞서 싸우려 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군사들이 먼저 진형을 갖추고 기다리다가, 적군이 오면 천천히 도전하여 싸움을 걸어야 합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군사님의 의견이 참으로 명쾌하고 탁월합니다."

말을 마친 노준의는 즉시 군마를 배치하여 산 남쪽의 평탄한 곳에 '순환팔괘진'을 펼치게 했다.

기다리는 사이, 적군이 세 부대로 나뉘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가운데 부대는 붉은 깃발, 왼쪽 부대는 푸른 깃발, 오른쪽 부대는 붉은 깃발을 들고 삼군이 일제히 도착했다. 해승은 송나라 군대가 진형을 갖춘 것을 보고, 청기군과 홍기군 두 부대를 좌우로 나누어 진영을 세우게 했다. 해승이 운제(구름사다리)에 올라 송군이 '순환팔괘진'을 펼친 것을 보고 말했다.

'이런 진법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진을 하나 펼쳐 저들을 놀라게 해주마.'

해승은 군사들에게 화고(畫鼓)를 세 통 울리게 하고 장대(將臺)를 세웠다. 그리고 장대 위에서 두 개의 신호 깃발을 휘둘러 좌우로 진형을 맞추게 했다. 진형을 다 갖춘 뒤 장대에서 내려온 해승은 말에 올라 앞장선 장수에게 명하여 진을 열게 한 뒤, 진영 앞으로 나아가 노준의와 말을 주고받으려 했다. 그 해승 통군의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았다.

금빛 투구는 햇살처럼 빛나며 노을빛을 뿜어내고,
은빛 갑옷은 서리처럼 깔려 달 그림자를 삼키네.
붉은 출정복은 비단 자수로 화려하게 수놓았고,
황금색 허리띠는 진주를 박아 장식했구나.
초록색 장화 신고 보석 박힌 등자 위로 발을 얹고,
금빛 띠 두른 채 비단 채찍을 곁에 두었네.
진영 앞 말은 용 한 마리가 달리는 듯한데,
손에 쥔 칼은 세 자 길이의 물결처럼 휘날리네.

해승은 말을 몰아 진영 앞으로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다.

'네놈이 〈순환팔괘진〉을 펼치다니 누구를 속이려 하느냐? 네놈이 내 진법을 알거나 하겠느냐?'

노준의는 해승이 진법으로 겨루려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주무와 함께 운제에 올라 살폈다. 적군의 진세는 세 명을 한 소대로 묶고, 세 소대를 모아 한 중대로 만들었으며, 다섯 중대를 합쳐 한 대대를 이루어, 겹은 모지고 안은 둥글며 큰 진이 작은 진을 감싸 서로 긴밀히 이어져 있었다.

주무가 노준의에게 말했다.

'저것은 이약사(李藥師, 이정)의 〈육화진(六花陣)〉입니다. 이약사가 본래 무후(제갈량)의 팔진(八陣)을 덜어 내어 육화진으로 만든 것이지요. 적장은 우리가 이 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얕보고 있으나, 우리의 이 팔괘진을 팔팔 육십사로 변화시키면 곧 무후의 팔진도 법식이 되니, 저들의 육화진쯤은 충분히 깨뜨릴 수 있습니다.'

노준의가 진영 앞으로 나가 호통쳤다.

'네놈의 그까짓 〈육화진〉 따위가 무에 대단하랴!'

해승이 되물었다.

'감히 와서 쳐 보겠느냐?'

노준의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자그마한 진쯤이야 무엇이 어렵겠느냐!'

노준의가 진으로 들어가자, 장대 위의 주무가 신호 깃발을 좌우로 휘둘러 팔진도 법식으로 변화시켰다. 주무는 노준의를 통해 명을 전했다.

'양지, 손안, 변상은 갑옷 입은 기병 천 명을 거느리고 진을 쳐라. 오늘은 금(金)에 속하는 날이니, 우리 진 남쪽 이괘(離卦) 자리의 군사를 일제히 휘몰아 돌격하라.'

양지 등이 명을 받들어 북을 세 통 울렸다. 장수들이 앞으로 나아가 적장의 서쪽 문 깃발을 헤치고 진 안으로 쳐들어갔다. 이때 노준의가 마령 등 장수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휘몰아 들이치니, 적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다.

한편 양지와 장수들이 적진 한가운데로 들이닥치자, 마침 해승과 맞닥뜨렸다. 해승은 용맹한 장수 몇 명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급히 퇴각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손안과 변상은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병사들을 이끌고 그 뒤를 바짝 추격했으나, 적의 중심부까지 깊숙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때 산비탈 뒤쪽에서 갑자기 징 소리가 한 차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다. 양지와 손안 일행은 급히 물러나려 했으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시로 이르되,

푸른 봉우리 아래 진영을 뚫던 말들은 죽어 나갔고, 푸른 부들 사이로 노니던 배는 가라앉고 말았네.

결국 이 군사들이 어디서 나타난 병마인지, 손안 일행은 과연 어떻게 적을 맞이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100회 — 교도청이 안개를 일으켜 성 을 취하고, 소선평이 대포를 숨겨 적을 격퇴하다

喬道清興霧取城 小旋風藏炮擊賊

이야기는 이러하다. 양지, 손안, 변상이 해승을 추격하여 이궐산 측면까지 이르렀을 때, 산비탈 뒤에 적장들이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적들은 일만 기병을 이끌고 갑자기 튀어나와 양지 일행과 한바탕 크게 맞붙어 싸웠다. 해승은 겨우 몸을 빼내어 패잔병을 이끌고 성안으로 도망쳤다. 손안은 용맹하게 맞서 싸우며 적장 두 명을 베었으나,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했다. 결국 천여 명의 갑주를 갖춘 기병들이 모두 적군에 밀려 깊은 골짜기로 쫓겨 들어갔다. 그 골짜기는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 나갈 길이 없었는데, 적병들이 나무와 돌을 옮겨와 골짜기 입구를 막아버렸다. 적들은 성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공단에게 보고했다. 공단은 이천 명의 병사를 보내 골짜기 입구를 지키게 했으니, 양지와 손안 등은 날개가 달렸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양지 일행이 고립된 사정은 차치하고, 한편 노준의 일행은 해승의 육화진을 격파했다. 이 승리는 태반이 마령이 금전술(金磚術)을 써서 수많은 적병을 쳐 쓰러뜨린 덕분이었고, 더욱이 장수들이 워낙 용맹하게 싸운 덕분에 결국 대승을 거두었다. 노준의 군은 적의 맹장 세 명을 베어 넘기고 그 기세를 몰아 병사들을 몰아붙여 용문관을 탈환했다. 적의 수급을 만여 개나 베어냈고, 말과 갑옷, 북과 징 등 전리품도 셀 수 없이 많이 얻었으니, 적병들은 모두 성안으로 퇴각하였다. 노준의가 군마의 수를 점검해 보니, 선봉이었던 양지, 손안, 변상이 이끄는 천여 명의 군마만 보이지 않았다. 노준의는 즉시 해진, 해보, 추연, 추윤에게 각각 천 명의 병력을 나누어 주어 네 갈래 길로 나누어 찾아 나서게 했으나, 해가 저물 때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다음 날, 노준의는 군사를 움직이지 않은 채 해진 일행에게 다시 한번 수색을 명령했다. 해보가 군사 한 부대를 이끌고 덩굴을 타고 산등성이를 넘으며 이리저리 헤맨 끝에, 이궐산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등성이에 다다랐다. 산등성이 서쪽 아래 깊은 골짜기를 내려다보니,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 사람과 말이 모여 있는 모습이 어렵듯이 보였으나 자세히 살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지형의 높낮이가 너무 심해 소리를 질러 불러도 들리지 않았다. 해보는 군졸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 물었으나, 그곳의 집들은 모두 난리 중에 피난을 떠난 뒤였다. 그러다 아주 깊숙하고 외딴 산골짜기의 평탄한 곳에 이르러서야 겨우 가난한 농가 몇 채를 발견했다. 농민들은 갑자기 나타난 군마를 보고는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해보가 '우리는 조정의 군사들이다. 이곳의 도적 떼를 토벌하러 왔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관군이라는 말에 더욱 겁을 먹고 당황했다. 해보가 좋은 말로 달

래며 말했다. '우리 장수들은 송 선봉의 부하들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다. '혹시 오랑캐를 죽이고 전호를 사로잡았으며,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그 송 선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보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농민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다. '과연 장군님들께서는 닭을 잡고 개를 묶듯 노략질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시군요! 재작년에도 도적을 잡으러 관군이 이곳에 왔었지만, 그 군사들은 강도와 다를 바 없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깊은 곳까지 피해 숨어든 것입니다. 오늘 장군님들을 뵈게 되니, 저희가 다시 세상 구경을 할 수 있게 되었군요.' 해보는 양지 일행 천 명의 행방과 산등성이 서쪽 깊은 골짜기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골짜기는 안료홍(鞍繆絳)이라 부르는데,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라고 답했다. 농민의 안내를 받아 해보 일행이 골짜기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추연과 추윤의 군사 두 부대도 그곳에 찾아와 있었다. 그들은 병력을 합쳐 적병들을 흠어버린 뒤, 함께 앞으로 나아가 나무와 돌을 치워냈다. 해보와 추연이 군마를 이끌고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다. 때는 이미 늦가을이라, 과연 깊고 그윽한 골짜기의 풍경이 이러하였다.

옥빛 이슬은 단풍 숲을 깎아내고,
 깊은 바위와 아득한 골짜기엔 기운이 쓸쓸하구나.
 고개 꼭대기 구름과 안개는 하늘까지 이어 흐르고,
 깎아지른 절벽의 소나무와 대나무는 땅에 그림자를 드리우네.

양지, 손안, 변상과 천 명의 군사들은 말은 지쳤고 사람도 기진맥진하여, 모두 숲 아래 앉아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해보 일행의 군마를 발견하자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해보는 가져온

마른 양식을 양지 일행에게 나누어 주어 우선 허기를 달래게 했다. 배를 채운 뒤 군사들은 일제히 골짜기를 빠져나왔다. 해보는 농민들을 데리고 대채(大寨, 군영)로 가서 노준의를 뵈게 했다. 노준의는 크게 기뻐하며 은자와 곡식을 내어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였으니, 농민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격하여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고 떠났다. 뒤이어 해진의 군사들도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날은 날이 저물어 쉬게 되었으니, 이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다음 날 아침, 노준의가 주무와 함께 병마를 배치하여 성들을 함락시키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왕경이 위도독(僞都督) 두학에게 장수 12명과 군사 2만 명을 주어 구원군으로 보냈는데, 이미 30리 밖까지 와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노준의는 주무, 양지, 손립, 단정규, 위정국에게 교도청과 마령을 더해 군사 2만 명을 맡겨 대채 앞에 진을 치게 했다. 이는 성안의 적군이 돌파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또한 해진, 해보, 목춘, 설영에게는 군사 5천 명을 맡겨 산채를 지키게 했다. 노준의는 나머지 장수들과 군마 3만 5천 명을 직접 거느리고 두학의 적군을 맞으러 나섰다.

이때 연청이 다가와 아뢰었다. '주인님, 오늘은 직접 전장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준의가 물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연청이 말했다. '소인이 어젯밤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노준의가 대답했다. '꿈 따위가 무슨 근거가 되겠느냐. 이미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이득과 손해를 따질 겨를이 없다.' 연청이 다시 말했다. '만약 주인님께서 정나가시겠다면, 차라리 보병 500명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노준의가 웃으며 말했다. '이놈아, 네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연청이 말했다. '주인님께서서는 상관 말고 그저 제게 사람만 보내 주십시오.' 노준의가 말했다. '좋다, 내 너에게 보내줄 테니 네가 대체 무슨 일을 해내는지 보겠다!' 말을 마치자마자 노준의는 보병 500명을 연청에게 배정해 주었다. 연청은 명을 받고 떠나갔고, 노준의는 그 모습에 헛웃음을 지었다.

노준의는 장수와 병마를 거느리고 대채를 떠나 평천교를 지나갔다. 평천교 근처에는 기이한 돌들이 많았는데, 이곳은 옛 당나라 이덕유의 장원이었다. 그런데 연청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게 아닌가. 노준의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으나, 서둘러 싸우러 가야 했기에 물어볼 겨를도 없이 길을 재촉했다.

병마는 용문관 서쪽 10리 지점에 이르러 서쪽을 향해 진을 치고 기다렸다. 한 시진쯤 지나자 적군이 도착했다. 양 진영이 마주 서자 북소리가 울리고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서쪽 진영의 편장 위학이 커다란 대간도를 휘두르며 말을 타고 앞장서 달려 나왔다. 송나라 진영에서는 산사기가 말을 뛰어오르며 창을 내질렀고, 말 한마디 쉼지 않고 곧장 맞붙어 싸웠다. 두 장수가 진 앞에서 서른 합을 겨루던 중, 산사기가 창으로 위학의 말 뒷다리를 찔렀다. 말이 뒷다리를 절며 쓰러지자 위학이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산사기가 다시 창으로 찔러 그를 죽였다.

서쪽 진영의 풍태가 크게 분노하며 철간(鐵簡, 쇠로 만든 몽둥이) 두 개를 휘두르고 말을 달려 산사기를 덮쳤다. 두 장수가 열 합 넘게 싸우는데, 변상이 산사기가 풍태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창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도우러 나갔다. 그러나 풍태가 크게 호통을 치며 철간을

한 번 휘두르자 산사기가 말에서 떨어졌고, 다시 한번 철간을 휘두르자 결국 목숨을 잃었다. 풍태가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맞서 왔으나, 변상이 워낙 용맹하여 풍태의 말이 다가오자마자 크게 소리치며 창으로 풍태의 가슴을 찔렀고, 풍태는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양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서쪽 진영의 주수 두학은 장수들을 연달아 잃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장팔사모를 치켜들고 직접 출전했다. 송나라 진영의 주수 노준의 역시 직접 출전하여 두학과 쏜 합을 겨루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두학의 사모는 움직임이 변화무쌍하여 종잡을 수 없었다. 손안은 노 선봉이 승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도우러 나갔다. 적장 탁무가 남아곤을 휘두르며 맞서 달려왔으나, 손안과 대어섯 합을 겨루다 손안이 기세를 올리며 탁무를 칼로 베어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손안은 말을 돌려 곧장 두학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다. 두학은 탁무가 죽는 것을 보고 미처 손을 쓰지 못하다가, 손안의 칼에 오른팔이 잘려 말에서 떨어졌다. 이어 노준의가 다시 창을 내질러 두학의 숨통을 끊었다. 노준의 일행이 병사들을 몰아 몰아치자 적군은 대패하였다.

갑자기 남서쪽의 좁은 길에서 기병 한 무리가 튀어나왔다. 앞장선 장수의 모습은 얼굴이 거무잡잡하고 못생긴 데다, 머리카락은 형클어진 채 짧았으며 머리에는 철도관을 쓰고 있었다. 그는 종정포를 입고 붉은 탄마를 탄 채 칼을 휘두르며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말 위에서 꺾충꺾충 뛰며 맹렬히 달려왔다. 노준의 일행이 적군의 옷차림임을 확인하고 병사들을 몰아 일제히 돌격하여 맞서 싸웠다. 그런데 그 장수는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무언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더

니 정남쪽 방향을 향해 칼을 한 번 휘둘렀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적장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순식간에 평지에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송나라 군대를 향해 타올랐다. 노준의 일행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대패하였으니, 군사들은 징과 북, 말까지 버려둔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급히 달아나던 이들은 모두 불길에 휩싸여 머리가 타거나 얼굴이 짓이겨졌다. 군사 중 죽은 자만 오천여 명에 달했다.

장수들은 노준의를 보호하며 평천교까지 필사적으로 달렸다. 군사들이 앞다투어 다리를 건너려 하자, 갑자기 다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연청이 미리 나무를 베어 다리 양옆에 부교를 막 완성해 놓은 덕분에 군사들이 건널 수 있었고, 살아남은 자는 이만 명이었다. 노준의와 변상은 말을 타고 뒤처져 가다가 다리 근처에서 적장에게 따라잡혔다. 적장이 변상을 향해 입으로 불을 한 번 뿜어내자, 변상은 온몸에 불이 붙어 말에서 떨어졌고 결국 적병에게 죽임을 당했다. 노준의는 다행히 부교를 밟고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적장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해 오자, 전방의 군사들이 급히 교도청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교도청은 홀로 말을 타고 칼을 든 채 적장을 맞으러 나갔다. 적장이 교도청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시 칼을 들어 남쪽을 향해 휘두르니, 그 불길이 지난번보다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교도청은 즉시 주문을 외우며 칼로 정북쪽(坎方)을 가리키며 '삼매신수(三昧神水)'의 법술을 펼쳤다. 그러자 순식간에 수천수백 갈래의 검은 기운이 날아오더니, 마치 폭포나 솟구치는 샘물처럼 변하여 수억 개

의 구슬과 옥가루처럼 적장을 향해 쏟아져 내리며 요술의 불길을 꺼뜨렸다.

적장은 요술이 깨진 것을 보고 말을 돌려 도망치려 했으나, 말이 물기를 머금은 돌을 밟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적장은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교도청이 말을 달려 따라가 칼을 휘두르니 적장은 두 동강이 났다. 그 기세에 놀려 적의 기병 오천 명 중 오백여 명이 넘어지거나 다쳤다. 교도청이 칼을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행복한다면 모두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적들은 교도청의 법력이 이토록 대단한 것을 보고는 모두 말에서 내려 무기를 버리고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다. 교도청은 다시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달랜 뒤, 적장의 머리를 베고 행복한 적들을 거느리고 노 선봉을 찾아가 승전보를 전했다. 노준의는 거듭 감사를 표하며 연청의 공로를 높이 칭찬했다.

장수들이 행복한 적들에 대해 묻자, 그 요물이 성이 구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요술로 불을 뿜어 사람을 태우는 데 익숙하였고, 외모가 흉측한 탓에 '독염귀왕(毒焰鬼王)'이라 불리는 자였다. 예전에 왕경의 반란을 도왔던 그가 지난 2년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최근 남풍에 나타나 '송나라 군사의 기세가 강하니 내가 가서 소탕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는 것이다. 이에 왕경이 그를 급히 이곳으로 보냈던 것이었다. 한편, 공단과 해승은 구원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히 나와서 싸우지 못하고, 그저 병력을 보태 성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

그때 교도청이 말했다. "이 성은 견고하여 단번에 함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밤 제가 작은 술법을 조금 부려 선봉님의 성공을 돕고, 두 선봉님의 두터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노준의가 말했다. "그 신묘

한 술법이 무엇인지 듣고 싶소." 교도청이 노준의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이며 말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노준의는 크게 기뻐 하며 즉시 장수와 병사들을 배치하여 각자 맡은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다. 한편으로는 군사들에게 예우를 갖추어 산사기와 변상의 장례를 치르게 했으며, 노준의는 직접 제사를 지냈다.

그날 밤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 무렵이 되자, 교도청이 나와 칼을 들고 법술을 부렸다. 잠시 후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서경의 성 하나를 빙 둘러 완전히 뒤덮어 버렸다. 성을 지키던 군사들은 바로 앞도 분간할 수 없어 서로를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송나라 군사들은 이 어둠을 틈타 쏜살같이 성문 근처로 달려가 성벽을 타고 올라갔다. 그때 갑자기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지더니, 질게 깔렸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며 빛이 드러났다. 성벽 사방에는 이미 송나라 군사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각자 품고 있던 불씨로 횃불을 밝혀 위아래를 환하게 비추니 마치 대낮과 같았다. 성을 지키던 군사들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려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송나라 군사들에게 무기를 빼앗긴 채 베여 죽었다. 성벽에서 떨어져 죽은 적병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공단과 해승은 갑작스러운 변고에 놀라 급히 병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왔으나, 이미 송나라 군사들에게 네 개의 성문이 모두 함락된 뒤였다. 노준의가 대군을 몰아 성 안으로 진격했다. 공단과 해승은 난전 중에 죽임을 당했고, 나머지 부장들과 장수, 우두머리들은 모두 항복했으며, 일반 군사들 중에서도 삼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항복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티끌만큼의 해라도 끼치지 않았다.

날이 밝자 노준의는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교도청의 큰 공을 기록하여 표창하며 삼군 장수와 병사들에게 두터운 상을 내렸다. 또한 마령을 송강에게 보내 승전보를 전하게 했다. 마령이 명을 받들어 떠났다가 저녁 무렵 돌아와 보고하기를, "송강 선봉님 일행이 형남을 공격하며 연일 적군과 싸운 끝에 남풍의 구원병을 대파했습니다. 하지만 주수(主帥, 총사령관) 사령이 사로잡혔고, 송강 선봉님께서도 전쟁 업무로 너무 애를 쓰신 나머지 병이 나서서 진영에서 요양 중입니다. 요 며칠간의 군무는 모두 오용 군사가 맡아 다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준의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으나, 서둘러 군무를 정리한 뒤 서경의 성을 교도청과 마령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 다음 날, 노준의는 교도청과 마령에게 작별을 고하고 주무 등 스무 명의 장수와 부하를 거느리고 서경을 떠나 급히 형남을 향해 출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마가 형남성 북쪽의 대채(大寨, 큰 진영)에 도착했고, 노준의 일행은 진영으로 들어가 안부를 물었다. 송강은 '신의' 안도전의 치료 덕분에 병세가 이미 6~7할은 가라앉은 상태였다. 노준의 일행은 이를 매우 기뻐하며 위로했다. 한창 군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도망쳐 돌아온 군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당빈이 소양 일행을 호송하며 대채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형남의 적장 미자와 마각이 이끄는 1만 정예병이 험한 셋길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선봉이 병중에 있는 틈을 타 대채 뒷길을 습격하려다 마침 저희 일행과 맞닥뜨렸습니다. 당빈이 두 적장을 상대로 힘껏 맞서 싸웠으나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했고, 게다가 미자의 용맹함이 워낙 대단하여 결국 당빈은 미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양, 배선, 금대견도 모두 생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적들이 막 진영을 습격하려던 참에 노

준의 선봉님의 대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소양 일행만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높여 울며 말했다. "소양 일행의 목숨이 다했구나!" 하며 병세가 다시 심해졌다. 노준의를 비롯한 장수들이 모두 다가와 위로했다. 노준의가 물었다. "소양 일행이 어디로 끌려갔소?" 송강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소양은 내가 병든 것을 알고는 진 안무(陳安撫)께 하직 인사를 올린 뒤 나를 보러 왔다네. 또한 진 안무의 명을 받들어 금대견과 배선을 데리고 완주로 가서 비석에 글을 새기고 문서를 조사하라고 일렀지.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히 당빈에게 천 명의 군사를 주어 그 세 사람을 호송하게 했는데, 뜻밖에도 적에게 잡혀갔으니 세 사람 모두 죽임을 당했을 것이네!"

송강은 이어 노준의에게 오용을 도와 성을 공격하고, 미자와 마각을 잡아 복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노준의 일행은 명을 받들어 성 북쪽 군대 앞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오용 학사에게 예를 갖춘 뒤, 노준의가 서둘러 소양 일행이 잡혀간 일을 알렸다. 오용이 크게 놀라며 말했다. "이런, 큰일이로다! 그 세 사람을 잃게 생겼구나!" 오용은 즉시 명을 내려 장수들에게 성을 포위하고 힘을 합쳐 공격하게 했다. 장수들은 명에 따라 사방에서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오용은 또한 군사들에게 운제(雲梯, 구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한 뒤, 성안을 향해 크게 외쳤다. "어서 소양, 금대견, 배선을 내보내라! 만약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 성을 함락시킨다면, 군사와 백성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몰살할 것이다!"

한편, 성 안에서는 수장 양영이 거짓으로 유수(留守, 성을 지키는 직책)의 직무를 맡고 정·편 장수들을 거느린 채 성을 지키고 있었다. 패

배하여 도망쳐 온 미자와 마각은 그날 소양 일행 세 사람을 잡아 온 것을 공으로 바치기 위해 이곳으로 달아나왔다. 아직 송나라 군사가 성을 완전히 포위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미자는 성문을 열게 하여 성 안으로 들어간 뒤 소양 일행을 귀부(貴府, 장수의 관저)로 끌고 가 공을 세우려 했다. 양영은 '성수서생' 소양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포박을 풀어주고 항복을 권했다. 그러자 소양, 배선, 금대건 세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크게 꾸짖었다.

"무지한 역적 놈들아, 너희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이러느냐! 차라리 우리 세 사람을 단칼에 베어 죽여라! 이 여섯 개의 무릎뼈가 그 반쪽이라도 땅에 닿는 꼴은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머지않아 송 선봉님이 성을 함락시키고 너희 같은 쥐새끼들을 잡아다 갈가리 찢어 죽일 것이다!"

양영은 크게 노하여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저 개 같은 놈들을 때려눕혀 무릎 꿇려라!" 군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어 때려눕혔으나, 그들 중 누구도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양영이 말했다. "단칼에 죽여달라고? 나는 너희를 천천히 다스려 주마." 그는 다시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저 개 같은 놈들에게 칼(枷, 목에 씌우는 형구)을 씌워 원문(轅門, 장수의 막사 입구) 밖에 세워두고, 오직 두 다리만 골라 때려라. 나귀 다리처럼 부러뜨려 놓으면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군사들은 명을 받들어 칼을 씌우고 매질을 시작했다.

사령부 앞의 군사들과 주민들은 송나라 군대의 인물들을 구경하러 나왔는데, 그들 중에는 참된 사내다운 기개를 지닌 한 사내가 있었다.

그 사내의 성은 소(蕭)이고 이름은 가수(嘉穗)로, 사령부 남쪽 거리의 종이 가게 옆집에 거처하고 있었다. 그의 고조부인 소담(蕭儼)은 자가 승달(僧達)로 남북조 시대 사람인데, 형남의 자사(刺史)를 지냈다. 옛날 강물이 제방을 무너뜨리자 소담이 직접 장수와 관리들을 이끌고 빗속에서 제방을 쌓았다. 비가 거세고 물살이 세자 부하들이 잠시 피하라고 권했으나, 소담은 "왕존(王尊)도 자기 몸으로 황하를 막으려 했거늘, 나라고 어찌 다른 마음을 품겠는가?"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물이 물러가고 제방이 세워졌다. 그해에 가화(嘉禾, 상서로운 벼)가 자라 한 줄기에 이삭이 여섯 개나 달렸는데, 소가수는 여기서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소가수가 우연히 형남을 유람할 때, 형남 사람들은 그의 조상이 베푼 인덕을 기리며 그를 매우 존경했다. 소가수는 품성이 호방하고 뜻이 높으며 도량이 넓고 힘이 장사였을 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능한, 매우 담력이 큰 사람이었다. 그는 의리가 있는 자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와 사귀었다. 마침 왕경이 난을 일으켜 성을 침탈하자 소가수는 적을 막을 계책을 바쳤으나, 담당 관리가 그 계책을 쓰려 하지 않아 결국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적들은 백성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할 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소가수는 성 안에서 밤낮으로 적을 물리칠 방도를 궁리했으나, 외가닥 실로는 줄을 이룰 수 없듯 혼자 힘으로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오늘, 적들이 소양 일행 세 사람을 매질하며 고문하는 것을 보았고, 송나라 군사가 소양 일행을 구하기 위해 긴박하게 성을 공격한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군민들이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다. 소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기회는 바로 이때다. 이 방법 하나라면 성 안의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는 서둘러 거처로 돌아갔다.

때는 이미 신시(申時, 오후 3시~5시 사이) 무렵이었다. 그는 급히 하인을 시켜 먹물을 한 사발 갈게 하고, 옆집 종이 가게에서 두꺼운 면지 몇 장을 사 왔다. 그리고 등불 아래에서 먹을 적서 붓을 휘두르며, 아주 크고 힘차게 글을 써 내려갔다.

"성 안의 사람들은 모두 송나라의 선량한 백성들이니, 결코 적을 돕는 일에 가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송 선봉님은 조정의 어진 장수로, 오랑캐를 베고 전호를 사로잡은 분이니 어디에서도 그 기세를 거스르지 못한다. 수하의 장수와 부하 백여덟 명 또한 송 선봉님께 팔다리와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원문 앞에서 매질을 당하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저 세 사람을 보라. 송 선봉 일행이 얼마나 의롭고 충성스러운 영웅들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오늘 적들이 저 세 사람을 해친다면, 성 안의 병력은 미약하고 장수들은 적으니, 머지않아 성이 함락될 때 성 안의 모든 것이 함께 파멸하고 말 것이다. 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 중 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나를 따라 적을 죽이러 가자!"

소가수는 그 종이 몇 장에 글을 다 써 내려간 뒤, 몰래 소식을 살폈다. 백성들은 모두 집 안에서 울고 있는 소리뿐이었다. 소가수가 말했다. "민심이 이러하니, 내 계획이 성공하겠구나!" 그는 날이 밝아오는 새벽녘이 되자 거처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써 놓은 종이 몇 장을 사령부 앞 좌우 거리의 변화한 곳으로 던져 버렸다.

잠시 후 날이 밝자, 군사와 백성들이 이쪽에서 종이 한 장을 줍고 나면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한 장을 줍는 통에 순식간에 군민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다. 마침 순찰하던 군졸 하나가 종

이 한 장을 낚아채어 얼른 양영에게 보고했다. 양영은 크게 놀라 급히 선령관(宣令官, 명령을 전달하는 관리)을 부에서 내보내 명을 전하게 하여, 군사들에게 원문과 각 진영을 엄중히 지키게 하고 간첩을 철저히 잡아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때 소가수가 품속에 보도를 숨긴 채 인파 속으로 슬쩍 끼어들어 구경하는 척하더니, 종이에 적힌 내용을 큰 소리로 두어 번 낭독했다. 군사와 백성들은 모두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선령관은 주장의 명을 받들어 말을 타고 대여섯 명의 군졸을 거느린 채 각 진영으로 명령을 전하러 다니고 있었다. 소가수가 갑자기 앞으로 달려 나가 크게 호통을 치며 칼로 말의 다리를 베어버리니, 선령관이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소가수는 곧바로 그의 머리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소가수는 왼손에 머리를 움켜쥐고 오른손에는 칼을 든 채 크게 외쳤다.

"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나 소가수를 따라 적을 죽이러 가자!"

사령부 앞의 군사들은 평소 소가수를 알고 있었고 그가 강단 있는 사내라는 것도 잘 알았기에, 순식간에 오륙백 명의 군사가 그를 에워싸며 한데 뭉쳤다. 소가수는 군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다시 연달아 크게 외쳤다.

"용기 있는 백성들도 모두 나와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가 수백 걸음 밖까지 울려 퍼졌다. 그러자 사방에서 호응이 터져 나왔다. 백성들은 모두 몽둥이를 집어 들고 삼나무 말뚝을 뽑고 탁자 다리를 꺾어 들고 달려들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오륙천 명

에 달했다.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며 몰려들자 소가수가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고 사령부로 돌격했다. 평소 양영이 군민을 폭압적으로 다스리고 병사들을 채찍질했기에, 호위 장수들까지도 모두 그를 뺏속 깊이 원망하고 있었다. 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모두가 달려들어 힘을 보탬고, 사령부로 들이닥쳐 양영 일가 노소를 모조리 죽여버렸다.

소가수와 군민들이 사령부에서 쏘아져 나올 때는 이미 이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소양, 배선, 금대건을 묶고 있던 형틀을 모두 풀어주고 갈(枷)을 벗겨주었다. 소가수는 힘이 센 세 사람을 골라 소양 일행 세 사람을 등에 업게 했다. 소가수는 앞장서서 양영의 머리를 움켜쥔 채 북문까지 달려가, 문을 지키던 장수 마각을 죽이고 문지기 군사들을 흠어버린 뒤 성문을 열고 부교를 내렸다.

그때 오용이 마침 북문에 도착하여 장병들을 직접 독려하며 성을 공격하던 중, 성 안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들었다. 게다가 성문까지 열리자, 오용은 적군이 들이닥쳐 공격해 오는 줄로만 알고 급히 군마를 서너 발의 화살 거리만큼 뒤로 물러나게 한 뒤 진을 치고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소가수가 양영의 머리를 움켜쥐고, 세 명의 장정이 소양 일행을 등에 업은 채 부교를 건너 급히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오용이 깜짝 놀라 바라보고 있을 때, 소양 일행이 크게 소리쳤다.

"오 군사님, 실로 이 장사 덕분에 백성들을 떨쳐 일으켜 적장을 죽이고 저희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용은 그 말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소가수가 오용에게 말했다.

"상황이 워낙 급박하여 예우를 갖추려 겨를이 없습니다. 군사님께서는 어서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부교 근처에 모여 있던 군민들도 일제히 소리쳤다.

"송 선봉님을 성 안으로 모셔라!"

오용은 성 안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장병들에게 명령을 내려 군마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또한 만약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오(伍, 같은 조)의 병졸을 모두 처형하라고 엄중히 일렀다.

북쪽 성벽을 지키던 수비 병사들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모두 창을 버리고 성 아래로 내려왔다. 동, 서, 남쪽 세 방향의 수비 병사들도 소식을 듣고는 적의 장수들을 모두 결박한 뒤 성문을 활짝 열었다. 그들은 꽃과 향, 등불을 밝혀 송나라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정중히 맞이했다. 오직 미자 그놈만이 용맹하여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고, 서문을 통해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 버렸다.

오용은 사람을 보내 송강에게 이 소식을 급히 전했다. 소식을 들은 송강은 나라를 걱정하고 형제를 위해 울던 병세가 9할 9푼이나 씻은 듯이 나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송강은 즉시 장수들과 함께 진영을 걸어 일으켰다. 대군이 형남 성안에 도착하자, 송강은 사령부에 올라 군민들을 안심시키고 장병들을 위로했다.

송강은 소가수를 사령부로 불러 성명을 묻고는 그를 윗자리에 앉혔다. 송강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말했다.

"장사께서 호기롭게 거사를 일으켜 반역자를 처단하고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성을 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송강의 형제 셋을 구해냈으니 마땅히 절을 올려야 하오."

소가수가 연신 답례하며 말했다.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 군사와 백성들이 힘을 합친 덕분입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소가수를 더욱 경외하게 되었다. 송강은 아래 장수들에게 예우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게 했다. 성안의 군사들이 적의 장수들을 끌고 오자, 송강은 항복하려는 자는 모두 죄를 면해주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성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수만 명의 적군이 항복했다. 마침 수군 두령 이준 등이 수군 함대를 이끌고 한강에 도착하여 모두 문안을 왔다.

송강은 소가수 장사에게 술을 대접하도록 명했다. 송강이 직접 잔을 들어 권하며 말했다.

"그대의 뛰어난 재능과 덕망을 보니, 내가 조정에 돌아가 천자에게 직접 아뢰면 반드시 높은 관직에 발탁하실 것이요."

그러자 소가수가 말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일은 공명이나 부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얽매이지 않는 행실을 지녀 자라서도 향리의 명성을 얻지 못한, 견문이 좁은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은 참소하는 무리가 득세하여 어진 선비가 이름을 떨치지 못하니, 비록 수후(隨侯)의 구슬과 화씨(和氏)의 옥 같은 재능을 품고 허유(許由)·백이(伯夷) 같은 행실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끝내 구중궁궐(천자)에까지 닿지 못하는 법입니다. 제가 보니, 포부를 가진 영웅들이 죽음을 돌보지 않고 나랏일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어섰다가, 만약 그 거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제 한 몸과 처자식만 보전하려는 자들이 뒤따라 그 허물을 들춰내어, 결국 그들의 목숨이 모두 권세 잡은 간신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저처럼 지켜야 할 관직도 없는 사람은 마치 한가로운 구름이나 들판의 학 같으니, 어느 하늘인들 날지 못하겠습니까!"

이 한마디 말에 송강을 비롯한 모든 이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좌중에 있던 공손승, 노지심, 무송, 연청, 이준, 동위, 동맹, 대종, 채진, 번서, 주무, 장경 등 십여 명도 소가수 장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음미했다.

그날 밤 술자리가 끝나고 소가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사령부를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송강은 대종을 보내 진 안무(陳安撫, 진관)에게 승전보를 전하게 했다. 이어 송강이 직접 소가수 장사의 숙소로 찾아가 문안하려 했으나,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다. 옆집 종이 가게 주인이 말했다.

"소가수님은 오늘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거문고와 칼, 책가방을 챙겨 들고 소인에게 작별을 고한 뒤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훗날 누군가가 소담과 그 자손의 덕을 기리며 시로 찬양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빛속에서 독을 고치는 이는 소승달(蕭僧達, 소담)이니,

거친 파도와 노한 물결에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네.

지극한 정성으로 물을 멈춰 독을 완성하니,

여섯 이삭 상서로운 벼가 한 줄기에 돌아났네.

어진 손자(소가수) 또한 호걸이라 그 할아버지(조상)에 견줄 만하니,

한번 호통치자 백성들이 따라 도적의 우두머리를 베었네.

은덕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미치고 명철히 제 몸을 보전하니,

한가로운 구름과 들판의 학처럼 참으로 초탈하도다.

송강이 사령부로 돌아와 여러 두령에게 소가가 홀연히 떠나버렸음을 알리니, 모든 장수가 탄식을 금치 못했다. 저녁 무렵 대종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완주와 산남 두 곳의 관할 구역 중 아직 평정하지 못한 주와 현들이 있었으나, 진관(陳瓘, 안무)과 후 참모가 로쟁, 임충, 화영 등에게 계책을 내려 모두 평정하였다고 했다. 조정에서 이미 여러 명의 신임 관리를 파견하여 각자의 업무를 모두 인계하였다고 전했다. 진관은 이미 여러 장수를 이끌고 출발하여 바로 오늘 도착할 예정이었다.

송강은 오용과 함께 의논하여, 진관이 이곳에 도착해 수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군을 일으켜 적의 우두머리들을 소탕하기로 했다. 송강

은 형남에서 오륙 일 동안 몸을 추스르니 병이 완전히 나았다. 어느 날 진관 일행의 병마가 도착했다는 보고가 올라와 송강 등이 성안으로 마중을 나갔다. 문안을 마친 뒤, 진관은 삼군 장병들에게 큰 상을 내렸다. 뒤이어 산남의 수비 장수인 사진 등이 주현의 업무를 신임 관리에게 모두 인계하고 뒤따라 도착했다. 송강은 주현의 업무를 진관이 다스리도록 청했다.

송강 일행은 진관과 작별한 뒤 대군을 이끌고 수륙 양면과 기병이 함께 진격하여, 남풍의 적 소굴을 소탕하러 나섰다. 이때 일백여덟 명의 호걸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하북에서 항복해 온 손안 등 열한 명의 장수와 스무여 만의 군마가 합세하였다.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병세가 드높아지니, 적들은 그 위세만 보고도 겁을 먹고 항복하였다. 송강은 탈환한 주와 현들을 진관에게 보고하였고, 진관은 로쟁을 보내 병사와 말을 거느리고 와서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송강 일행의 수륙 대군은 거침없이 진격하여 남풍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때 경찰병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적의 우두머리 왕경이 이조를 통군대원수로 삼아 이곳에서 수륙 병마 오만 명을 차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운안, 동천, 안덕 세 길에서 각각 이만 명씩의 병마를 더 불러 모았는데, 모두 이곳의 위병마도감(僞兵馬都監) 유이경과 상관의 등이 이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수십 명의 맹장과 십일만 명의 정예병이 적을 막으러 몰려오고 있었으니, 왕경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나선 것이었다.

송강이 이 소식을 듣고 오용과 함께 계책을 의논하며 말했다.

"적이 모든 전력을 다해 몰려오는 것을 보니, 필시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 것ियो. 우리가 어찌해야 승리할 수 있겠소?"

오용이 대답했다.

"병법에는 그저 '여러 방면에서 몰아쳐 적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병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으니, 군사를 여러 갈래로 나누어 적을 공격한다면 적이 도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댈 것입니다."

송강은 이 계책을 따라 명령을 내려 병사와 장수들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며칠 전, 박천조 이응과 소선평 채진은 송강 선봉의 장령을 받들어 마보(馬步) 두령인 단정규, 위정국, 시은, 설영, 목춘, 이충을 거느리고 군사 오천 명을 이끌었다. 이들은 대군 뒤에서 식량과 군수품 차량, 비단, 화포, 수레 등을 호송하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용문산이었다. 용문산 남쪽 기슭 산자락에는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사방이 높은 흙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토성 같았고 세 방향으로 길이 나 있었다. 마을에는 빈 초가집과 기와집이 수백 채나 있었으나, 주민들은 전쟁을 피해 모두 떠나고 없었다. 그날 저녁, 동북풍이 거세게 불고 먹물을 뿌린 듯 짙은 구름이 몰려왔다. 이응과 채진은 날이 저무는 것을 보고 비가 내려 식량이 젖을까 걱정되어, 군사들에게 문짝을 떼어내 수레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라고 명했다. 군사들이 막 끼니를 준비하며 쉬려는데, 갑자기 '병대충' 설영이 군사를 이끌고 순찰을 돌다 간첩 한 명을 붙잡아 왔다. 설영이 채진에게 달려와 보고했다. "간첩을 심문해

보니, 적장 미생이 정예병 만 명을 거느리고 오늘 밤 이경(二更, 밤 10시~자정 사이)에 우리 식량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려 한답니다. 지금 용문산 속에 매복해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용문산은 양쪽 절벽이 문처럼 마주 보고 있어 그 사이로 배가 다닐 수 있었고, 나무가 뻗뻗하게 우거진 곳이었다. 이응이 그 말을 듣고 채진에게 말했다. "아우가 마을 앞으로 가겠소. 저 망할 놈의 도적 떼를 만나면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박살을 내버리리다." 그러자 채진이 말했다. "미생은 매우 용맹하여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군사가 적으니, 제가 작은 계책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화포 대여섯 대와 땔나무 백여 수레를 이용해 당빈 등의 원수를 갚고 저 간첩 놈도 죽여버리겠습니다." 채진은 군사들에게 식량과 화포, 수레를 정리하게 한 뒤, 이응에게 군사 삼천 명을 주어 활과 화살, 불화살을 갖추고 식량 수레를 호위하게 했다. 황혼 무렵, 그들은 흙 언덕을 모두 빠져나와 남쪽을 향해 먼저 길을 떠났다. 대신 땔나무 수레 백여 대를 남겨두어, 남서쪽 바람이 불어가는 쪽(풍하)의 초가집 처마 밑에 흩어 놓았다. 또한 빈 수레 백여 대를 다섯여섯 군데에 묶어 세워두고 그 위에 쌀을 조금씩 얹어 놓았다. 곳곳에는 화포를 숨겨두고, 유향과 초석을 뿌린 마른 장작을 깔아두었다. 시은, 설영, 목춘, 이충에게는 군사 이천 명을 주어 동쪽 흙 언덕 길목에 매복하게 했다. 단정규에게는 기병 천 명을 주어 마을 남쪽 길목에서 적이 오기를 기다리게 했으니,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마지막으로 채진은 '신화장군' 위정국과 함께 보병 삼백 명을 거느리고 불씨와 화기를 챙겨 뻗뻗한 숲속 산 위로 올라가 매복했다.

이경이 되자, 적장 미생은 과연 두 명의 편장을 거느리고 만여 명의 군마를 이끌고 나타났다. 병사들은 갑옷을 갖춰 입고 말의 방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멈춘 채 급히 남쪽 흙 언덕 입구로 달려왔다. 단정규는 적병이 오는 것을 보고 군사들에게 횃불을 밝히게 한 뒤 맞서 싸웠다. 그러나 단정규가 미생과 대결한 지 네 다섯 합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말을 돌려 병사들을 이끌고 안으로 퇴각했다. 미생은 용맹하기만 하고 지략은 없는 자라, 병사들을 이끌고 그 대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다. 남쪽 길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본 설영과 시은은 즉시 이충과 목춘에게 군사 천 명을 나누어 주어 마을 남쪽으로 급히 달려가 길목을 막게 했다. 이때 적병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을 지르며 안으로 들이닥쳤으나, 동북쪽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은 빈집뿐이었고 식량은 보이지 않았다. 미생이 병사들을 이끌고 사방을 수색하다가, 바람이 불어가는 아래쪽(풍하) 방향에 겨우 백여 대에서 이백 대 정도의 식량 수레와 이를 지키는 오 육백 명의 군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군사들은 적병이 나타나자 비명을 지르며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미생이 말했다. "알고 보니 식량이 그리 많지 않구나!" 그는 군사들에게 횃불을 들어 비추게 했다. 그러자 수레 행렬 중간중간에 비단이 실린 수레가 두 대씩 있는 것이 보였다. 적병들은 이를 보고 정신없이 달려들어 약탈하기 시작했다. 미생이 급히 이를 저지하려 할 때, 갑자기 산 위에서 불화살과 횃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왔다. 초가집과 땔나무 수레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 적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급히 피하려는데, 미리 설치해둔 화포의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서 벼락같은 굉음과 함께 화포가 터져 나왔다. 도망치던 적병들은 화포에 맞아 속수무책으로 죽어 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바람은 불길을 돕고, 불은 바람의 기세를 빌리니,
천 개의 화살은 금빛 뱀처럼 휘몰아치고, 만 개의 뇌성은 불꽃 속에서
울려 퍼지네.

여산 꼭대기에는 아마도 포사처럼 기세를 떨치고 있을 것이요,
양자강 물가에는 주유의 기묘한 계책에 뒤지지 않으리.
자줏빛 안개는 몽게몽게 하늘로 솟구치고, 붉은 노을은 번쩍이며 땅까
지 꿰뚫네.
타닥타닥 툭툭 끊임없이 울리는 소리는, 마치 한밤중에 폭죽을 터뜨리
는 듯하구나.

그 순간 불길은 무섭게 치솟았고, 화포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
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을 내며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백여 채의 초가
집은 거대한 불덩어리와 연기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미생은 화포에 맞
아 죽었고, 적병들도 태반이 죽었으며, 머리를 그슬리고 이마를 덴 자
가 수없이 많았다. 게다가 단정규와 시은 등이 세 갈래로 몰려와 추격
하며 공격해 오자, 적의 두 편장마저 모두 죽임을 당했다. 만여 명에 달
하던 적군은 겨우 천여 명만이 흙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가 겨우 목숨을
건질 뿐이었다. 날이 밝자 채진 일행은 다시 이응 등과 합류하여 식량
을 대본영으로 운송했다. 송강 선봉이 막 군막(軍幕)에 올라 군무를 보
며 병마를 조발해 적을 소탕하려던 참이었는데, 마군은 말들을 매어 채
비하고 보군은 무기를 정비하고 있으니,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깃발은 붉게 펼쳐져 하늘의 노을처럼 빛나고, 칼과 검은 하얗게 깔려 천 리에 눈이 내린 듯하구나.

결국 송강 일행이 어떻게 싸워 나갈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